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나의 길을 찾는 나의 인생 교양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나의 길을 찾는 나의 인생 교양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나의 길을 찾는 나의 인생 교양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나의 인생교양
나의 길을 찾는다



CONTENTS

1
교양으로
나를 접프하다

1	벼랑 끝에서 다시 만난 '프리드리히 니체' · 최태진	06
2	기후변화와 함께 변화한 나 · 송기원	16
3	한 번의 교양수업, 독서와 과학의 문을 열다 · 조희재	25
4	나의 고착화 된 생각, 그 너머로 · 손성연	38
5	소크라테스가 남긴 불멸의 가르침 · 김재은	47
6	첫 만남의 행운 "창의적 컴퓨팅" · 임재빈	57

2
교양으로
세상을 만나다

1	나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행복을 경영하기 · 박혜령	69
2	같이의 가치, CLAP · 우다현 외 4인	80
3	어린 시절 간직했던 수수께끼가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까지 · 이원정	93
4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변화, GPS101 · 이선환 외 3인	101
5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 김연재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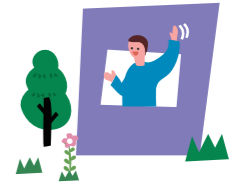
3
교양으로
미래를 열다

6	희곡을 읽다, 세상을 읽다 · 이소정	130
7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아이를 위한 나라도 없었다 · 엄성현·이창재	142

1	종교와 과학의 만남, 인간됨을 사유하다 · 임서우·이가영	161
2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 김미소	173
3	과학을 바라보는 사회학적 상상력 · 이힘	184
4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다 · 선문수	194
5	과학 소설은 현실 속 과학이 된다 · 이주예·이찬영	204



교양으로 나를 점프하다



01. 벼랑 끝에서 다시 만난 '프리드리히 니체' · 최태진
02. 기후변화와 함께 변화한 나 · 송기원
03. 한 번의 교양수업, 독서와 과학의 문을 열다 · 조희재
04. 나의 고착화 된 생각, 그 너머로 · 손성연
05. 소크라테스가 남긴 불멸의 가르침 · 김재은
06. 첫 만남의 행운 "창의적 컴퓨팅" · 임재빈

01

벼랑 끝에서 다시 만난
'프리드리히 니체'

최태진(역사교육과)



2020년 초, 나는 2년간의 휴학을 마치고 하릴없이 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무기력과 우울함의 늪에 빠져있던 나에겐 나를 밖으로 꺼내줄 동기와 에너지가 필요했다. 사람이 신을 믿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내겐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기댈 수 있는 일종의 신이 필요했던 셈이다.

나는 본래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 휴학을 했으나, 입소 후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5일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하고 말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내내 시달리던 마음의 병이 결국 끓아 터져 버렸던 거다. 정말 신이 있다면 전생의 내가 그에게 미움을 샀던 게 틀림없다고 믿을 만큼 힘들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여러 대인관계에도 싫증과 고단함을 느꼈고 또한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에 기댈 수 없으리라 여길 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누구일까, 혹은 어디일까 고심해보았다. 그리고 보면 난 어려서부터 철학을 무척 좋아했다. 중학교 도덕 시간부터 조금씩 눈에 익혀오던 철학자들의 이름은 쪽 어느새 내 뇌리에 선명히 남아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점심을 먹고 나면 종종걸음으로 도서관에 향했다. 철학 분야 도서를 읽으며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의 혁명성에 대해 고찰해보았고, 칸트가 구축한 이원론적 체계를 헤겔이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는가에 대해 숙고해보기도 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근대 미학에 관심이 생겨 휴학 전 2학년 당시 '미학의 이해' 교양 강의를 수강했던 적도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근대, 중세, 근현대로 넘어오며 만났던 수많은 철학자의 이름을 아직 기억한다. 이제껏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 어릴 적부터 철학에 기대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중 가장 애정해 마지않는 철학자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나는 복학이 결정되자마자 니체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니체는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교내 교양 과목으로 '서양철학 입문'이 눈에 띄었다. 담당교수

'고지현'이란 석 자는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휴학한 사이 새로 부임하신 분이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이력과 커리어를 알아갈수록 정말 멋진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제학도였던 고지현 교수님은 졸업 후 일순간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다고 한다. 그 이후 국내 발터 벤야민 최고 권위자로 발돋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2004년 독일 브레멘대학 철학과에서 발터 벤야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로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처음에는 니체를 비롯한 철학을 다시 접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수강했지만, 교수님의 깊이와 강단은 나를 점점 더 해당 교과목에 심취하게 했다.

서양철학 입문은 주로 교수님의 수업 혹은 학생의 발표 후 자유로운 토론과 피드백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수업 중 질의응답과 의제 제시가 상당히 잦아 교수와 학생 사이에 소통이 활발했으며 모든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분명 자신의 의견을 말로, 때로는 글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수님의 배려이자 권유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주체적인 사유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 소통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권장하셨다.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수업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와 각 존재의 만남 속에 끝없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응답한 주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식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정치원리와 문화를 유산으로 남긴 고대 도시국가들의 삶의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이 추구한 '좋은 삶', '행복', '예술', 그리고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 주로 배웠다. 중간고사 이후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혁 과정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가 고뇌해야 할 인간 문제에 대해 배웠는데, 특정 철학자를 선택해 학생 개인 혹은 팀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수강생끼리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됐다. 이때 교수님께서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칭찬과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셨고 수강생들은 편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발언할 수 있었다.

2. 수강 동기

니체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문장들은 내게 펍 힘이 되곤 했다.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니컬한 태도로 살아왔기에 나와 비슷한 온도로 말하는 사람에게 웬지 모를 동질감을 느껴왔다. 아마 나만 이런 게 아님을 확인하며 위로받고, 안심하곤 했으리라. 나는 인간 욕망의 복잡성을 논하며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니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외치는 니체, 모두가 신을 믿을 때 '신은 죽었다'며 죽어서도 현대인을 일갈하는 니체가 좋았다. 그런데 이제야 내게 일종의 신 따위가 필요해지다니, 나 자신의 심경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철학을 다시 접할 때가 됐다는

건 분명했다. 적어도 프리드리히 니체만큼은 다시 만나볼 때가 되었다. 그렇게 믿었다.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수강할 전공과목을 선택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지현 교수님의 '서양철학 입문'을 수강하기로 결심했다.

본래부터 철학을 좋아했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첫 번째로 수강을 신청한 데에는 다른 배경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철학가이기 때문이었다. 가정사,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복잡함 등에 치여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춘기를 보내던 내가 손에 꼽게 생기 넘치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가수 아이유의 노래를 들을 때였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게 도와준 가수 아이유는 오프라인 사인회나 온라인 팬카페에서 팬들에게 니체의 책을 종종 추천하곤 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읽은 책이 바로 '니체의 말'이다. 니체의 말에는 니체가 여러 저서에서 언급한 수많은 문장이 뒤죽박죽 병렬되어 있다. 그 문장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며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추천해준 책이라면, 그저 그 이유만으로 철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수업 첫날이 되었다. 교수님이 마이크 테스트와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왜 철학일까요? 왜 철학입니까, 여러분? 왜 철학을 수강하셨어요?”

곧바로 나는 소리 내지 않고 대답했다. 철학은 곧 삶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은 자신만의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내려진다. 추상적인 무언가 혹은 중대한 안건만이 철학의 범주가 아니다. 삶의 모든 것이 철학이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선택조차 그렇다. 누군가는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출시한 신메뉴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에 신메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번 먹던 피스타치오 맛으로 주문한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철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 자체를 즐기는 자와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 안정적인 선택을 고수하는 자.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철학적인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밀접한 여러 가지 분야가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재학 중인 역사교육과에서는 교육철학 교직 과목이 필수 이수 과정이며, '역사 철학' 서적도 상당히 많다. 내가 취미로 즐겨보는 축구도 철학이 개입한다. 예컨대 볼 점유율을 높여 공세를 펼치는 철학이 있고, 대조적으로 볼 점유율을 포기하는 대신 날카로운 역습을 노리는 철학이 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성인 대표팀 감독에게 항상 들이대는 단골 잣대 중 하나가 '축구 철학이 있는가 없는가'일만큼 철학은 여기저기에 녹아있다.

철학은 삶 어디에도 있다. 철학은 곧 삶 자체이고, 따라서 철학일 수밖에 없다. 교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부리나케 속으로 대답한 나는 교수님의 첫 질문을 들었을 때부터 이 과목을 수강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비록 이 수업이 정확한 정답을 제공하진 못하더라도 현재 내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 상처 받아 지친 마음이 나아갈 최소한의 이정표는 세워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이는 속단이었을지언정 정확했다.

3. “서양철학 입문”이 나의 인생교양인 이유

고지현 교수님의 수업은 내용 자체도 알차지만, 무엇보다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셨다는 점이 교과목 내용 측면에서 가장 좋았다. 또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셨고, 그 발언이 기존 학계의 개념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결코 틀리다고 단언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 모든 수강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게끔 사려 깊게 배려하신 것이다. 나 또한 이런 교수님의 깊이와 배려심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교양이 내 삶에 깊이 와닿았던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왜?”라고 묻기

교수님께서서는 학생이 “~인 것 같습니다.”, “~이 아닌가 합니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말투로 “왜?”라고 재차 물어보셨다. 왜일까? 나는 어렵פות이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내용 중 특정 논의에 대한 학생 개인의 사유, 즉 개인의 의견이 어떤 사고방식에서 말미암아 도출된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보셨다. 이때 학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고체계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평소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지향점을 돌아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생각을 재구성하게 되고, 심지어 생각이 180도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수님은 분명 이를 의도하고 우리에게 질문 공세를 던지셨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신만의 용어로 타인 앞에서 내뱉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논의에서 사고의 깊이가 다소 부족하다면 그 깊이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

“왜?”라는 질문은 오로지 교수로부터 학생에게로 향하는 일방적인 공세가 아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자신의 설명에 무한히 의심하길 바라셨다. 당신의 설명과 내용 지식이 “왜” 그런 것인지 질문하도록 유도하셨다. 물론 학기 초에는 어색함에서 비롯한 머뭇거림 탓에 소극적인 학우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수업이 거듭될수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철학가의 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모든 철학은 본디 “왜?”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깨워 주신 것이다.



수업이 반복될수록 나는 마치 세상만사와 만물에 호기심이 가득해 “왜”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3살짜리 아이의 마음처럼 천진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바로 나 자신에게 그러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나는 과연 누구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불안함과 우울함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에 뒤덮여 있던 내 마음의 형태를 비로소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부를 깨끗하게 닦아 다친 정도를 확인하듯 모든 치유에는 상처를 제대로 쳐다보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었다. 내가 나에게 던진 질문은 돌고 돌아 이 간단한 명제를 깨닫게 해주었다.

■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기’

고지현 교수님께서서는 평소 수업에서 차근차근 쉬운 언어들로 설명해주신 것과 반대로, 종종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열하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비롯한 수강생들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내용 이해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다른 개념과 엮은 응용 질문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예컨대 ‘헤겔의 절대정신 개념으로 바라본 나폴레옹과 니체의 초인 개념으로 바라본 나폴레옹의 관점 및 나폴레옹 인물상의 차이’와 같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당 진도 당일 갑작스레 퀴즈처럼 우리에게 내주시곤 했다.

당연히 정해진 답은 없었다. 애당초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더러 철학적 논의를 깊게 다뤄주기를 기대하고 질문하신 건 아니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스파르타식 훈련은 우리에게 사고의 지평을 확실히 넓혀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수업이 거듭되며 나를 비롯한 수강생 대부분은 금세 적응해 자신만의 표현으로 나름의 논의를 정립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때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보던 경험이 나만의 철학적 사유를 해내는 데에 분명 큰 도움이 되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너희 스스로 답을 찾아내라. 답은 너희 안에 있다’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교수님의 수업 태도는 날 아주 적극적인 학생으로 변모하게 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학생 개인이 혹은 팀을 구성해 특정 인물에 대해 PPT를 제작하고 1시간가량 발표 후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나누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이때 발표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로 선정했는데, 나는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니체를 선점했다. 처음에는 니체의 사상과 철학적 논의를 조사하며 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기존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친 후에는 니체라는 인물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두게 되고, 그의 주요 논의를 바탕으로 마음가짐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보람 있었다.

모든 발표와 수강생들과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교수님은 내게 하나의 돌발질문을 하셨다.

“니체가 위버멘시(초인)로 여긴 인물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최태진 학생에게 위버멘시가 있다면 누가 있나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 위버멘시가 많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 두 분께서도 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니체의 위버멘시 개념이 유달리 특별하고 엄청난 희소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나를 양육하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육아에 힘쓰셨다. 어머니는 이혼 후 출가해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서기에 성공하셨다. 아버지는 꿈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사는 불행한 삶 대신 혼자 사는 고단한 삶을 선택하셨다. 이를 내 짧은 인생 내내 생생히 지켜봤기에 교수님의 돌발질문에 대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 결국 모든 것은 나를 다시 찾는 일

이 교과목이 내 인생교양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나’를 다시 찾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게끔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자발적으로 발표까지 도맡았던 니체 철학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끔 했다. 앞서 나는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주었다. 그는 내게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신을 죽였다고 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신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대들과 내가! 우리 모두는 그의 살해자이다!”

니체는 위와 같이 말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기존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세계관들은 단지 카오스를 회피하려는 인간 욕구의 표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모든 부정적인 일의 근원은 나 자신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생각, 따라서 내가 기뻐 곳은 초월적인 무언가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통렬히 깨졌다. 니체는 자신의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은 세계를 지속적으로 위조하고, 창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인간은 의미를 창조해 부여하는 ‘형이상학적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나는 어쩌면 예술가가 되기를 강요당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고쳤다. 인간 실존에 대해 고민하고, 자아를 찾아 나가고,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일련의 단계는 필연적인 치열한 청춘을 보내는 내게 당연한 과정이었다. 별안간 마음이 편해졌다.

철학 수업을 들으며 내 존재가치를 회복하고 마음 건강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일은 해당 교과목이 내 인생교양인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중에서도 니체의 허무주의 개념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허무주의의 본질을 크게 두 방식으로 나누는데 이는 바로 약자의 허무주의와 강자의 허무주의이다. 니체를 다시 만나기 전의 내가 바로 약자나 다름없었다. 약자의 허무주의는 스스로 세계를 창조할 힘을 상실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수동적 허무주의이다. 니체는 이를 ‘피곤으로 지친 약자의 표정’으로 비유한다. 나는 분명 여러 문제에 지쳐있었고, 세계를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창구를 만들어내지 못했었다. 반면 강자의 허무주의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의욕이 매우 커서 그 힘이 전체의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이는 능동적 허무주의로서 현실 도피의 삶을 거부하고 허무의 근원에 적극 개입하여 현실을 극복한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기를 마친 나는 강자의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는 수업을 듣기 전까지 니체의 허무주의 사상에 대해 줄곧 잘못 알고 있었다. 이전의 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실존하지 않으며 목적, 통일성, 진리 따위의 개념 역시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타인과의 대화, 소통은 상상만으로도 부질 없었으며 다가오는 내일이 전혀 기대되지 않았었다. 보람찬 일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니체의 사상 역시 이러한 세상에 대한 무작위적인 냉소로 가득하리라 여겼었다. 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가치함을 주장하는 행위의 무가치함’에 대해 역설했다. 나는 여태껏 니체가 제시한 허무주의의 울타리 속에 부분적으로 갇혀있을 뿐이었다.



니체 철학에 따르면, 모든 현실을 초극하고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 세상을 윤희한 자는 위버멘시에 도달하게 된다. 나의 위대한 어머니가 그러하듯,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그러하듯 위버멘시란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하고 윤리와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주도적 존재를 뜻한다. 영어권에서는 이를 슈퍼맨으로 번역하여 지금의 DC코믹스 캐릭터 슈퍼맨의 모티브로 삼았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그의 위버멘시 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바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특징이 그의 철학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고 나만의 용어로 재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마치 네가 직접 자신을 다시 찾아보라는 듯 니체는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다.

4. 최태진의 성장 스토리

복학하여 해당 교양수업을 수강하기 전까지의 나는 우울증, 그로 비롯한 병역 문제, 대인관계와 이성 관계에서 느낀 고단함과 상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부터 꾸준히 고통을 받아왔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모두 떨어져 있었고 병역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채 복학했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은 조금해졌고 시종일관 불안함에 시달렸다.

이때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난 니체의 철학은 무던히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던 내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니체 철학에서 유래한 용어 중 운명을 의미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다. 누구나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Amor fati)’라는 노래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왜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이란 붓을 들고 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당신은 위 가사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모르파티는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언급되는 ‘영원회귀’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용어이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만사가 무한한 주기로 반복된다는 내용인데, 이는 모든 일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다. 아모르파티는 라틴어로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를 뜻한다. 운명은 늘 나를 등지고 있으며 우연은 번번이 내 운명을 더욱 망쳐놓을 뿐이라 여겼던 나는, 니체가 제시한 아모르파티가 트로트로 재탄생해 내게 신선한 울림을 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개인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비극을 인정하되 이를 초극하고 세상의 부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긍정하는 태도를 지니라고 말하는 니체.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비로소 그가 초인어로 보였다. 그리고 누구나 초인이 될 수 있으며 나 또한 그렇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니체를 다시 만나고 그의 위대함에 젖어 들어 한동안 그의 서적을 매일같이 읽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니체의 문장으로부터 직접 위로받기보다는 니체의 문장을 한껏 흡수하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았나 한다. 물론 4학년이 되고 졸업을 앞둔 지금도 니체가 필요할 때가 더러 있다. 그럴 때마다 니체는 날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니체는 인간의 욕망, 순수한 욕구를 인정하되 이를 개인이 초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니체는 나와 생각이 같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니체의 생각이 어떻게 간에 내가 그의 글귀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분명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 내가 오랫동안 의심하던 나의 사유와 가치관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고, 더는 나의 보편적 이기심과 여러 부정적 감정에 대해 자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운명이란 여전히 그 정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듯 좀처럼 그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운명이 나를 평생 등질지언정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 속 우연들이 내 운명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삶에 대해 견지하던 태도가 180도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간 소원했던 동기들과 수업을 함께 수강하며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고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는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다시 만난 니체에게 배운 바에 따르면 내가 현상과 실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를 구분 지을 것인가, 어떠한 모양의 창구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어떻게 관점을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현실 자체는 한편으로 굉장히 단순하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 일과를 마치고 다가올 또 다른 오늘을 고요히 기다릴 뿐이다. 다른 술한 현대인들처럼 나 역시 불면증과 만성피로에 시달리지만, 이전만큼 심하지 않다는 데에 긍정하고 의의를 둔다.

여전히 온 세계가 몹시 아프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니체는 예상이라도 했듯 역설한다.

“나는 너무 일찍 왔다. 놀라운 사건은 아직도 도중에 있고,
방랑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 인간의 귀까지 닿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통찰력 있는 예언자로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보란 듯이 적중했다. 우리가 이미 신을 죽였기에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점도 현대인들을 더욱 고독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위버멘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운명을 믿고, 사랑하고, 현재를 긍정하는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독한 감기가 끝나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 · 고 · 문 · 헌

- 알라딘 국내 저자찾기, 고지현,
https://www.aladin.co.kr/author/wauthor_overview.aspx?AuthorSearch=@289203
- 박재현, 『초역 니체의 말』, 삼호미디어, 2020
- 강용수,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세창미디어, 2016
- 윤형식, 『서양철학사 2』, 이학사, 2016

02

기후변화와 함께
변화한 나

송기원(행정경제학부)

지도교수 : 정병곤



1. 들어가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시야와 경험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하곤 한다. 만약 누군가 “왜 뉴스만 보면 각국의 정부들은 탄소 배출에 혈안이 되어있는 걸까?” 혹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면 지구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할까? ‘생태계와 기후변화’를 수강하기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개의치 않고 넘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생태계와 기후변화라는 나의 인생 교양을 수강하고 나서 이 질문의 의미와 환경과 기후 변화라는 학문적인 부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공동체적 가치 실현의 행복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되기까지 인생 교양으로 나는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되새겨보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무너진 나의 기회, 그리고 매너리즘

2019년 9월 1일, 나는 긴 칠학년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 또래 친구들보다 더 긴 약 28개월로 군 생활을 마쳤다. 군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학교에 복학하면 바로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플학원을 등록하여 영어 회화까지 공부했고, “다시 만나는 동기들과 새로 만나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을까?”라는 복학생의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에 비싸서 사지 못하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뒀던 좋은 옷들도 사보기도 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장황했던 모든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 버렸는데, 바로 코로나19가 찾아온 것이다. 내가 지원했던 기업 서포터즈 같은 대외 활동들은 모두 무기한 연장되었고, 해외 교환학생은 물론

지원했던 해외 봉사활동도 모두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절망에 빠졌다. 캠퍼스는 밟아보지도 못하고 방안 모니터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언택트 시대에 무기력하게 어영부영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고, 복학에 설레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던 나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다.

어느 날 졸업을 앞둔 나에게 겨울방학 수강신청 기간 일주일 전 조교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22년 졸업자 교양수업 미이수 명단 - 졸업을 위해 자연과학영역 교양 이수 바람”이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라서 그리 아쉽지도, 반갑지도 않은 내용의 소식이었다.

이전의 나는 교양수업은 전공 교과목들보단 상대적으로 배우는 지식의 두께가 얇다 보니 휘발성이 강한 수업이라는 기우어진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교양수업을 듣는 것보단 오히려 전공수업을 듣는 것을 선호했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위해 수준을 맞춰주신 수업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공인 경제학에 너무 심취해있어서였을까?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목표만을 내 삶에 과하게 주입하다보니 자연과학, 특히나 환경 분야는 내 취업과 진로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교양조차 내 전공과 관련된 수업들만 듣다 보니 3학년이 될 때까지 내 전공 이외의 세상의 접점은 거의 전무했다.

이 문자를 받고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별생각 없이 듣고 싶은 교양을 찾다 보니 시선이 멈춘 한 과목, ‘생태계와 기후변화’라는 과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당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CEO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저술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책을 읽던 중이었다. 최근 화두인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로 변화한 기업들의 ESG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빌 게이츠라는 사업가의 관점으로 제시하는 기술 혁신적 방향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니 환경문제를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거기다가 강의계획서까지 다 읽고 나니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 기존의 통념으로는 대학교 강의는 1명의 교수님이 한 학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강의는 지도교수님을 포함해서 무려 총 6명의 교수님이 함께 이루는 교양수업이었다. 심지어 내 전공 교수님이셨던 경제학과 교수님은 물론 해양, 환경, 식품 분야까지 계시니 이 수업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가장 먼저 번쩍었다. 특히나 내게 친숙한 경제학과 교수님이 환경 관련 분야를 강의해주시는 데다가 환경 분야 주제에 내 전공지식이 곁들여진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궁금한 수업이었는데, 이런 이유만으로 이 강의는 어느샌가 내 수강신청 목록에 담겨있었다.

3. 경제학도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

먼저 지도교수이신 정병곤 교수님은 환경공학과에서 환경생태공학 전공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교수님에 대한 첫인상은 '학자같은 교수님'이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다. 처음으로 듣는 과학 분야의 첫 교양에서 모니터 너머로 느껴지는 딱딱한 PPT, 처음 들어보는 과학 용어로 가득한 개념과 이론 위주의 수업 전개는, 역사, 인문학, 철학이 어우러지는 수업을 들어왔던 나에게는 조금은 어색한 유형의 수업이었다. 다행히 마치 내 걱정을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려웠던 지구과학 개념들을 실생활의 예시와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이야기해주시면서, 이과생뿐만 아니라 문과생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지구과학의 진입장벽을 낮춰주셔서 마지막까지도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정병곤 교수님은 매주 수업을 마치시면 항상 과제를 내주셨는데 강의 내용을 요약한 레포트, 우리 학교가 있는 군산 지역 내 친환경 산업 분야 조사, 태양광과 풍력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분석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셨다.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대한 평을 찾으니 과제가 많고 문과생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후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나는 과제를 하면서 한때 열정적으로 했던 공모전과 대외 활동으로 쌓았던 감각이 점차 돌아왔다. 또한 기후변화는 내 관심사가 되었기에 다른 어떤 과제들보다 성심성의껏 완성하여 제출했고, 당시 환경 관련 공모전에 나가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노력을 쏟은 시간을 보냈다. 오히려 학구열이 떨어진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매주 새로운 과제가 나오니, 다른 비대면 수업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효율도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정병곤 교수님의 과제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식품에너지, 경제학, 생태계 등 다른 전공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인터넷 기사나 책에서도 찾기 쉽지 않은 환경 분야 정보까지 공부를 하니, 환경공학과 친구들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어느샌가 토론까지 하고 있어, 친구들이 내가 경제학과 학생이 맞는지 물어보는 에피소드가 생길 정도로 이 강의는 나에게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각인시켜주었다.

10개가 넘었던 과제 중, 특히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과제는 학기가 시작되고 약 3주 정도 지났을 즈음에 교수님께서(에린 브로코비)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해야 하는 과제를 내주신 것이다. 이 영화는 에린 브로코비라는 평범한 여성이 법률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대기업 공장에서 유출된 오염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치밀한 조사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대기업을 상대로 거대한 소송을 시작해 이후 집단소송 사상 최고액인 3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영화를 보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모든 내용이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다는 점이었다. 그중에서 내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에린 브로코비치의 태도였는데, 그녀가 본인의 본 업무와 별개로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약자인 주민들을 위해, 거시적으로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다.

4. 알고 나니 더 불편해진 환경에 대한 진실

강의를 듣기 직전의 해의 2020년은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기념적인 해였다. 예전부터 TV를 틀면 "지구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다,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은 매해 나오는 단골 주제였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 눈앞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기는 하지만 촉박하고 긴급하다고 생활 속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역대 가장 길고 길었던 장마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후변화 문제를 살갓에 와닿게 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무려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는, 7월보다 6월이 더 기온이 높은 이상 현상다가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이 침수되어 생활 속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시킨 끔찍한 재난이었다. 특히 내가 있는 지역인 호남은 우리나라의 밥그릇이라고 불릴 만큼 넓은 옥토를 가진 곡창지대인데 침수의 가장 큰 피해를 받으면서 '식량문제'라는 새로운 기후변화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국가로 이 호남지역의 농산물 보급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에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1년 전에 발생한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농수산물과 식료품의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만약 같은 장마가 매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미래에 기후변화의 속도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과 해빙 속도, 사막화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해서 2050년에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인가라는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 분석을 보면 2020년에 우리가 경험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7000명의 이재민보다 약 185배인 매년 130만 명에게 홍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¹⁾. 거기에다가 더 가까운 미래인 2030년에는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홍수로 인해 약 330만

1) climate central 연구결과, 2019

명의 홍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으며 이 피해는 5000km 제곱미터의 면적 크기의 피해로 서울시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의 절망적인 내용이었다.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기후 변화 문제는 국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과 관련된 직접적인 타격은 적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국내에서도 신혼여행의 성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몰디브나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가 물에 점점 잠겨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국토가 물에 잠겨서 사라지는 비극은 안타깝게도 다른 아닌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이며, 재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탄소배출량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 내용으로 강의의 첫 주치의 수업에서 보여주셨던 자료 중 하나가 떠오르는데 바로 2009년에 있었던 몰디브 내각 회의이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과 13명의 각료가 바닷속으로 잠수장비를 갖추고 들어가 회의를 진행하고,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는 사진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통 제조업, IT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들이 만들어내는 기후변화로 생동맞은 국가들이 피해를 받게 되며, 우리들이 무심코 만든 행동들이 조금씩 모여서 커다란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실들은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불쾌한 진실들이었다. 이렇게 변화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부정적인 미래는 필연적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함에 과연 이것들이 노력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서 곱씹어졌다.

5.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3가지 방법

교수님께서서는 결국 이 찝찝한 진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로 'ESSD, 낮은 에너지 사용,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한 다양성을 확보'라는 총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셨다.



먼저 첫 번째 'ESSD'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평소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에 '환경적으로 건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더 붙는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개발 시장을 선도하는데 그 이유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체가 모두 사용하는 공기, 지하자원, 바다에 있는 생선 등과 같은 자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선택이 남용되어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각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세계환경보전전략,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등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협약 합의를 통해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결국 ESSD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함인 것이다.

두 번째 '낮은 에너지 사용' 생활을 통해 생태학적 효율성을 높이고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낮은 소비는 우리가 하다못해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작은 개념으로 현재보다 더 작은 욕심으로 검소한 생활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에너지 생활이 중요한 이유를 예를 설명하자면 앞서 말한 ESSD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로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TV의 내구성을 높여 수명이 5년인 기존 TV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10년 수명의 새로운 TV가 개발된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버리는 TV와 냉장고 등은 사용하지 못해서 버리는 것이 아닌, 구형이 되면서 기능이나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또 식량부족 문제로 인간이 계속 육식 위주 생활을 한다면 1350kg의 콩으로 동일시간 22명에게 먹일 수 있으나, 소고기로 먹는다면 단 한 사람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지 않는 불편한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소비의 감소 때문에 사라지는 산업에서 고용과 소득 창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도적 보완이나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 소수(Minority)에 대한 배려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세 가지 방향성 중에서 왜 중요한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환경과 생태계가 악화된 것을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종 다양성의 감소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생태계가 가장 건강하려면 종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멸종되어가는 종의 확보에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소수로 존재하는 종을 확보하는 이유에서이다.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난민, 노숙인 등 소수자들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처럼 자연에서도 소수 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 관대해야만 우리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²⁾.

6. 인생 교양을 수강하여 성장한 나의 이야기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도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파괴되고 있는 기후와 생태계 문제에 찝찝함이 남았다. 그렇게 마지막 학부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후배에게 군산시 청년뜰에서 주관하는 그

2) 정병곤·김민영 외 4명, 『생태계와 기후변화』, 동화기술, 2014, p102-105

린뉴딜 창업아이디어 수업을 같이 들어보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 경진대회는 수업을 듣고 멘토링까지 받은 후에 창업경진대회로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일종의 공모전이었는데, 소식을 받자마자 불현듯 지난 학기에 들었던 생태계와 기후변화가 떠오르면서 당시 배운 내용을 잊기 전에 활용하고자 바로 신청해버렸다.

당연하겠지만 이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교양수업 한 번으로 환경 분야 창업아이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지만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진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처음에 멘토링을 받기 위해 내가 내놓은 주제는 '미세플라스틱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표'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였다. 당시 식품생명과학부 교수님이신 구재근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 해안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하셨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양식장이 많은 서해, 남해 특성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대부분 발포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스티로폼 부표가 물살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식장의 김이나 미역, 전복 등에 포함되어 미량만 들어가도 유해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결국 높은 가능성으로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억을 상기시켜 경영학에서 배워 나름대로 알고 있던 B2B, SWOT 분석을 섞어 내용만 보면 걸보기엔 문제가 없는 정도로만 중간보고서를 완성해서 멘토님께 제출하였다. 중간 보고서를 잠깐 보시고 나서 바로 나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소재와 관련된 특성, 사업에 드는 비용, 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물어보셨는데 나는 대부분 질문에 대답 하지 못하였고, 1학년 시절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만든 PPT로 발표한 후 교수님의 꼬리물기 질문으로 멘탈이 무너져 얼굴이 화끈 화끈했던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렇게 민망한 지적을 받고 부표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꾸기 위해,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ESSD와 낮은 에너지 사용의 방향성을 더 강화하자란 되새김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자란 마음이 더해져 도출한 새로운 주제는 '페마스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용량이 급증한 마스크는 1인당 2.3일에 1개씩 사용하며 국내에서만 매일 2천만 개의 사용량이 발생한다. 그러나 방역 상의 이유로 마스크는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는데 매립 시에 약 450년의 분해 기간과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조사를 해보니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소재 2위에 해당하며, 마스크 끈과 코의 철사만 제거하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바로 해외에 과연 이 페마스크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다가 프랑스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해, 나도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영감을 받게 되었다.

끝내 완성한 '페마스크 폴리프로필렌(PP)소재 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페마스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기술, 브랜드 기업들과 협업하여 친환경 프리미엄으로 사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 외에, 실제 제품 모델의 샘플까지 제시하였고 질의로 이어지는 교수님들과 창업 컨설턴트 분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할 수 있었다. 만족스러웠던 발표였기 때문인지 내겐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인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결과로 학교에 있는 창업 동아리인 KS동아리의 제안을 받아 이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성 사업으로 졸업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업을 학교와 구상 중이다. 현재 이 과정들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작게나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안에서 나오는 무언가는 매슬로우 욕구이론의 최종점인 자아실현 욕구를 간접적으로라도 느꼈을 건지도 모르겠다.

7. 지구로부터 배운 새로운 시야와 사회 공동체적 가치

유럽의 해안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은 지브롤터 섬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조각상이 있다. 헤라클레스 상 밑에 한 문구가 적혀가 있는데

“이곳이 세상의 끝이니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Non Plus Ultra)”

이곳이 지구의 끝이니 안전을 위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고대인들은 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믿었기에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지리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글귀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 교양은 적어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수업이었다. 내가 이 인생 교양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전처럼 내 사고의 한계 안에 있는 강의를 다시 찾아 수강했을 것이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새로운 환경과학 분야의 공부는 졸업하고 나서도 접하기 어려운 학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 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인 창업경진대회 수상과 창업 동아리와의 협업은 아마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 도전해보지 못했던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인생 교양은 내게 단순히 강의라는 개념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욕망에 불을 붙인 세기의 발명품인 '나침반' 같은 수업이었으며,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구하고, 두렵지만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려 했던 자세는 넓은 바다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항해시대를 맞이하는 나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인생 교양이었다.

강의를 통해서 넓어진 생태계 및 기후변화 분야의 지식은 경제학도로서 항상 효율과 균형만을 중시하는 경제시장만을 분석하던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가치를 알게 해주었다. 나는 강의를 듣

03

책이 싫은 문과가 과학책을 만났을 때 : 한 번의 교양수업, 독서와 과학의 문을 열다

조희재(국어교육)
지도교수 : 전영옥



1. 들어가며

모든 학생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지식과 우리말, 그리고 교양수업에 한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전영옥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관심과 열정이 저희 학생들을 변화시키셨고, 앞으로 만날 학생들에게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패기의 1학년은 어느 봄바람을 타고

어느덧 올해도 거의 다 가, 곧 벌써 25살이다. 2019년도 1학년, 그때의 나를 지금 생각해보면 실력은 없고 패기만 있는 학생이었다. 하등 삼수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그저 하릴없이 대학에 갈 날만을 기대했지, 되려 환상 같은 것은 없는 한편이었다. 그렇게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대학에 와보니 알게 됐다. 대학은 오히려 나에게 현실 이상의 환상이 존재하는 곳이었음을.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때를 떠올리면 설레는 기억들이 많다. 관심사가 같은 동기들, 열정이 넘치시는 교수님, 여유롭게 생각하며 산책하기 좋은 캠퍼스. 그중에서도 1학년 1학기, 나를 가장 가슴 뛰게 한 기억은 다름 아닌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지식의 교감의 장이 열린 그 교양수업이었다.

실제로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찾아 나선 것이 '명강의'였다. 나에게는 대학에 가면 조원들을 만나 발표를 하고 열띤 열정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꿈꿔왔다. 학과도 좋고, 동기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대학만이 가지는 이 '교양'에 대한 매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대학이 가지는 에너지이고, 내가 대학에 가는 커다란 이유라고 느꼈었다. 그 수업이 <명저읽기>이다. 책을 읽어오고, 글을 쓰고, 조원들이 생기고, 그 조원들과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양과 지식에 대해 한없이 얘기하는 그런 수업.

기 전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고 그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낮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익을 만들어내어 인간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 모두가 원하는 욕망이지 않을까라는 경제적 이윤 극대화 관점이 내 삶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계와 기후변화를 만나고 나는 우리가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미래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을 때, 건강한 공기가 부족해지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나도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없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는 이 마음가짐은, 이 인생 교양이 나에게 원했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과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 인생 교양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다. 깨달은 교훈과 배움의 소중함은 졸업을 앞둔 나에게 가능성의 불씨를 지퍼주었고, 졸업하고 만나게 될 두렵지만 설레는 대항해시대에 Non plus ultra의 자세가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Plus Ultra'의 자세로 나아가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훌륭하신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이끌어주시며 아낌없는 응원으로 격려해주신 정병곤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다른 학우들도 각자의 인생 교양을 찾아 많은 배움과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참 · 고 · 문 · 헌

- 정병곤·김민영 외 4명, 『생태계와 기후변화』, 동화기술, 2014
-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김영사, 202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해양수산부, 2015

그런데 수업을 신청하려니 문제가 있었다. 수업 평가는 명강의라 불릴 만큼 매우 좋았으나 일부 선배들의 소문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1학년은 이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것이었다. 수업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업의 내용보다도 과제 분량이 만만치 않으며, 수업 난이도 역시 매우 어려워 흔히 불리는 '1학년 무덤'이라고 불리는 수업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명강이라 불리는 이 수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종종 주변은 말리는 한편이었지만, 대략 무시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어릴 때야 반강제 하다시피 책을 꽤나 읽었다. 그런데 수능과 10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한 자들은 다 알 것이다. 말 그대로 수능 외에는 잘 아는 것이 없는 강퍽 상태가 된다. 그 시간 동안에는 책은 고사하고 신문기사 하나 제대로 읽은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러한 상태에서 대학에 왔다. 그러니 학점 같은 것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으랴. 나는 이미 가슴속에 불어오는 1학년 1학기, 그 봄바람을 타고 <명저읽기>를 신청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업을 통해 나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 아니, 어쩌면 나의 미래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3. 교양의 문을 열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의 첫 교양수업의 교실 안으로 발걸음을 디뎠다. 문을 여는 순간은 늘 떨림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지, 목소리는, 생각은 또 어떨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한 수업의 문을 여는 일 자체가 늘 떨림이다.

이런 자리는 첫 순간이 어색하고, 다들 어찌할 줄을 몰라 휴대폰을 보고만 있곤 하는데, 다행히도 나에게 아는 얼굴이 있었다. 잠시만, 둘 다 1학년이다. 이 수업 1학년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걸 알고 신청했다. 한 명을 보니 빠박머리라고 불리는 김민중이라는 친구다. 당시 나는 긴 생머리였는데, (지금 아니다) 그 친구와 나는 한 조가 되어 옆자리에 붙어 앉아 훗날 다른 사람의 발표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는데, 그래서 그 수업 나름의 안팎으로는 긴 생머리와 빠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깐부가 된다.

어찌 됐든, 그 친구는 내가 듣기로 명문고 출신인데 수능에서 미끄러져 자신의 목표보다 낮은 대학에 온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누가 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표정이다. 얘기를 조금 나눠보니 수강신청에 실패해서 수업을 들어오게 됐다고. 속으로 조금 안타깝긴 했다만 그것 역시 그러려니 했다. 어찌 됐든 우리는 수업에서 좋은 협력자가 되기로 하고, 서로 번호를 주고받으며 훈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자 슬슬 수업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고,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다. 교수님은 우리 대학 출신의 국어 연구원이며, 화법을 중심으로 전공하셨다고 한다. 그 뒤 프린트물을 소량 나눠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 독서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에는 수전 와이즈 바우어의 『독서의 즐거움』의 내용을 담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고전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문학도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손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궁금한 점과 중요한 점은 메모해 가며 읽어야 해요. 그리고 책을 한 번 읽어서는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책은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란…….”

정말 기본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기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 주입식의 교육에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먹여주는 음식을 잘 떠먹으면 되는 일이었다. 학창 시절, 그 당시 나는 한국 사회가 어른들에게 잘 순종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에게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대비하려면 너희는 우리들의 도움을 미리 받아야만 할걸?'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수업은 달랐다. 내가 지식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법을 알려 주었다. 누군가 책을 왜 읽는지 알려준다는 것은 내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수업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 책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4. 독특한 진행, 똑똑한 과정

오리엔테이션 중에는 수업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다. 대략 정리하면 이렇다. 학습자는 한 학기에 해당하는 12주를 총 네 번으로 쪼개어 네 권의 책을 각각 3주씩 학습한다.

첫 주차는 교수자가 이번에 읽게 될 책을 해설한다.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그 분야의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 이를테면 곧 등장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때에는, 이 책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알려준다. 2

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내용은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천재였는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단어를 합성시키는 방법의 합성어 등을 문학 속에서 창조했고, 그 단어들이 지금 존재하는 영단어의 커다란 영향과 큰 뿌리가 되었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을 때에만 더욱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주차까지는 책을 읽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타인의 얘기를 듣는 것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해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날 처음 하는 활동은 바로 퀴즈를 푸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셨다.

“책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책을 오용하고 오해하면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기본적인 책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래서 퀴즈를 푸는 겁니다.”

아주 납득했다. 어릴 때 본 한 작가의 책에서 그 책의 내용을 비판하려거든 적어도 그 책에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이해해 달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그만큼 책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 보였다. 그다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주제에는 일정한 가이드가 있는데, 토론은 자율 토론이지만 이 가이드에서 벗어나거나 책의 내용, 즉 팩트에서 벗어나는 즉시 교수님이 개입하셔서 발언이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주시곤 했다. 나는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양이고, 가이드는 울타리라면, 교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지만 동시에 적절히 훈계하기도 하시는 양치기와 같다고 여겼다. 다음으로는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전체 학생에게 발표하고, 교수님은 그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신 이후에 이 각 토론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마지막 3주차는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까지 한 페이지 가량 독후감을 써야 한다. 그리고 수업 때는 각자의 발표문을 서로가 읽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진다. 앞서 오리엔테이션 날 딱 한 권의 책을 고르게 되는데, 3주차에 자신의 독후감을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마지막 책인 『이기적 유전자』를 골라 거의 끝순이었다. 좌우지간 교수님은 그 발표를 다 들으시고 수업 전체와 발표를 아울러 정리하시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뜨거운, 때로는 잔잔한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책의 의의를 말씀해주신다. 이 과정을 총 네 번 진행하면 수업은 종강에 이르고, 여기까지가 첫날 듣게 된 <명저읽기>의 개요이다.

개요를 다 듣고 나니 한 명의 국어교육과 친구는 수업을 포기할까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내가 보기에도 과제는 산더미 같았고, 활동 역시 독서, 독후감, 퀴즈, 발표, 토론 한도 끝도 없이 느껴졌다. 다들 표정이 죽어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 딱 두 명만 빼고, 나랑 빠박머리. 나와 민중이는 나가면서도 얘기했지만, 패기 넘치는 삼수생, 재수생 1학년 간부 둘에게는 이 수업은 대학교 체험 종합 선물세트였다. 오히려 좋았다. 책을 직접 펴기 전까지는 말이다.

5. 힘들다. 그래서 더 인생 교양이다

■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책, 그리고 따뜻한 조원들

1) 문학 분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4대 비극』으로 들여다 본 인간의 ‘본성’

아차, 있었다. 나 책 별로 안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지, 읽기가 아니었다. 첫 번째 책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구매하려고 보니 책은 비싸고 읽기엔 부담스러운 두께였다. 그래도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책을 읽어 갔다.

『4대 비극』 첫 주차에 조원이 정해졌는데, 우리 조원은 꽤 다양하게 구성돼 있었다. 일단 나와 민중이가 1학년에 대한 배려인지 같은 조로 배정되었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실제로 맞다고 한다) 생명공학, 가족복지, 컴퓨터공학 등 대부분 나의 한참 선배인 분들과 한 조가 되었다. 빠박머리 민중이는 OT 날부터 이미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터라 나도 더 긴장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첫 토론을 위해 이 고전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우리에게 고전이란 큰 의미가 있는 존재이다. 토머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신세대는 늘 행복한 운명을 지닌 세대라고, 그것은 우리가 고전의 이야기를 품은 채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고전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 시대, 그 세대, 그 세대를 넘어 그 세대의 생각과 배경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준다. 나에게 『4대 비극』도 그러했다.

『4대 비극』은 그 이름처럼 모두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라는 네 작품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해 생기는 끝없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주 멀어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큰 감명을 준 책이었다.

그래도 첫 책은 문학이라 그런지 다들 성실하게 책을 읽어온 분위기였고, 우리 조 역시 나이가 많으신 선배분들이 있던 터라 적극적으로 서로 리드를 해주시고, 분위기가 잘 조율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조원들과 만났지만,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들여다보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많았다는 것이 참 신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조원들의 발표를 통해 들은 이야기도 우리의 공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역시 놀랐다. 고전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 수백 년 뒤에 우리에게 닿고, 우리에게 여운을 준다는 것.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감명을 준 책으로 기억한다.

어찌 됐든 첫날이지만, 우리 조는 서로 꽤 많이 가까워졌고, 훈훈한 분위기에 하나의 팀으로써 잘 자리 잡았다. 발표할 때 사실 다른 조원들이 공격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명칭은 그냥 질문 시간이지만 사실상 공격 질문의 시간이다) 우리 조원들은 이미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감싸주거나, 청지기 역할을 맡곤 했다. 나는 이런 성숙하고 따뜻한 조원들과 만나 첫 날부터 조원들의 모습에 감동했고 아울러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

2) 사회, 역사, 철학 분야,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어찌 된 일인지 책이 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다. 벌써부터 책을 아예 읽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 보였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4대 비극』을 통해서 조원들과 한껏 친해진 터라 책을 읽는 과정은 조금 어려웠는지 몰라도, 그 뒤에 있을 활동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독서의 어려움을 차분하게 누그러뜨렸다.

교수님은 책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이어나가셨다. 책은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중립적이며, 때문에 역사 기술자적 관점에서 주로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부분이 보일 것이며, 단순히 우리가 역사가 왜 중요한 것인지만 생각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폈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카가 얘기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그만큼 교수님의 말씀이 절반 옳았던 것. 그런데 후자인 '책을 읽다 보면 보이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뒤에 이어진 퀴즈라던가, 활동들이 책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도왔고, 결론적으로는 나는 이 책에 대해 다시 느끼게 되었다.



책의 내용은 대략 흔히 역사란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추구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책의 본론이다. 책은 역사가가 쓴 책답게 사료를 매우 중요시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사료가 있어도 각 세대가 쓰는 언어와 배경, 생각이 다르고, 또한 역사가의 가치 개입적인 인식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역사, 온전한 역사는 없으며, 아울러 책의 내용을 온전히 재현하는 일 자체도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게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며 그중에 이전의 『4대 비극』과 같이 『역사란 무엇인가』도 우리 조원 모두가 공감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은 한 구절이었다. 그게 바로 E.H. 카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인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사실 카의 생각을 한 번에 요약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가의 시선, 실존했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기술한 그 시대의 역사가. 이것은 아주 역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술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역사는 마치 끊임없는 대화와 같다고 표현했다.

나는 이런 공감을 통한 자연스러운 토론의 흐름 속에서 책의 내용을 다시 이해하며 책을 조금 더 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때, 그런 깊이 있는 책 읽기가 주는 매력을 깨닫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책을 여러 번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입체적으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그리고는 내게 떠오른 몇 가지가 있었는데, 착한 우리 조원들을 믿고 내가 느낀 느낌 그대로를 용기 내서 얘기했다.

“카가 말한 것은 사실은 기술적 관점에서 역사를 설명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삶의 역사를 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제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르게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나와, 그 시간을 보고 있는 지금의 나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두 자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자아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과거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들. 저는 이게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조원들은 역시 따뜻한 사람들이라 내 의견을 잘 경청해 주었다. 심지어는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으며, 자신의 어릴 적 흑역사에 대한 얘기가 술술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게 그저 아프고, 힘들었던 흑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게 한, 지금 내게는 다르게 보이는 그런 흑역사 말이다. 마음씨 고운 조원들 덕에 우연찮게 튀어나온 내 발언을 계기로 토론에서는 잠시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만, 교수님도 차분하게 우리 얘기를 지켜봐 주셨고, 우리는 다른 조가 이미 토론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잠시만요!”라고 외친 뒤 계속해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곤 했다. 그 후로 나는 조원들과 이제는 유대감이랄까

그런 것이 생겼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은 모르지만, 안 보고 있으면 그림고, 또 보고 싶은 감정 그런 것 말이다.

3) 문화, 예술 분야,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

- 모든 '문화'에는 이유가 있더라

그날 이후로는 뭔가 조원들뿐만이 아니라,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놀랍게도 독서에 관하여도 한껏 익숙해진 상태였다. 이전 책에서의 깨달음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전의 나는 '책은 한 번만에 이해해야 한다'는 한국식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나는 꼭 한 번만에 이해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편한 마음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그것은 삶의 기회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가 읽었던 책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책 읽기란 불안이 아니라 설렘이었고, 보다 내 중심의 관점에서 작가는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를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글 읽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한 한편이었다.

이미 나는 조원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가진 터라 수업을 가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조원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중에서도, 컴퓨터공학도의 한 형이 있었는데, 본래도 우리 조원들과는 생각이 잘 맞았지만, 특히나 뜬금없는 부분에서 "어!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하는 부분이 많아 그 형에게는 더욱 큰 내적 친밀감이 있었다. 그 형과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 서로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우고 발전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다.

다시 돌아와 이번 책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며, 그래서 그 문화를 바라볼 때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마치 옴니버스¹⁾식 소설의 이야기처럼 책의 이야기는 독특한 문화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그 문화가 왜 생겨났고, 기후나, 환경, 생존 관계에 따라 존재하는 문화들의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 시간과 같았다. 그래서 더욱 그 문화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책에는 생각보다 과학계 문화에 대한 옹호론적인 입장이 존재했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그 공감의 순간은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책의 내용을 반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화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시선, 혹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

1) 옴니버스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뜻한다. 이에 파생되어 최근 영화나 연극계에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 편의 작품이라는 뜻으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옴니버스')

지는 문화까지 일부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나와 조원들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으며, 이로써 우리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문화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 가치는 어떤 진귀하고 귀중한 문화도 그 위에는 균림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한 인간의 생명적 가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내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다. 문화를 넘어 사람을 보는 시선. 발표를 통해 들은 다른 조원들의 생각들. 그때, 패기 넘치는 1학년 간부 두 명은 잠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의 수수께끼』와 조원들을 통해 느껴진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나는 그들의 모든 입장에 대해서는 단연 공감할 수 없으며, 선부른 비판은 오산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나눔을 솔직하게 하자 조원들도 이에 공감했고 응원과 위로가 오갔다, 그 뒤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끈끈했던 공감이 이제는 다른 조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미 조원들의 따뜻한 경청으로 인해 때로는 소극적인 나의 모습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게 됐고, 교수님의 관심과 진심 어린 칭찬은 내가 교양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교양을 더욱 열망했고, 그때쯤 마지막 책, 내 발표 순서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6. <명저읽기>의 종착역, 과학, 기술 분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 이 교양수업이 내게 인생 교양수업인 이유

나는 이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입장에서 더욱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태도를 발견하곤 했고, 더러는 일부 학생들이 이미 독서 자체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 책을 여러 번이나 읽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발표를 맡은 책이라 그러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즐거웠다. 그것은 깊은 관계가 생긴 우리 조원들과 민중이 덕분일 수도 있고, 그 조원들과 함께하는 애기와 공감의 시간이 즐거워서 일수도 있다. 또 교수님이 수업 중간중간 던져준 진심 어린 관심과 칭찬 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이제는 내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책 한 권을 통해서도 조금씩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법을, 그 매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세상을 말하는 수업'이라고, 종종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곤 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말에서 오는 어감이 있듯 보는 이로 충분히 유전자가 왜 이기적 인지를 궁금하게 한다. 그러나 책이 본질적으로 하는 말은 유전자가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 하는 담론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전자가 가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그 존재가 살아남는, 즉 '적자생존'하는 방식이 마치 사람이 보기에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이목을 끌어 도입 부분을 잘 이끄는 장면을 영화계에서는 흔히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기적 유전자』는 그런 면에서 성공한 책이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유전학의 대중화를 끌어낸 이 유를 납득할 수 있다.

책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지 과학적인 기본 원리만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었다. 책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넓게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생존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이 지구가 생존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에 서로를 바라보며 신기해할 지경이었다. 책은 분명 너무나도 어렵고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고난도의 책이지만, 책의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단연코, 절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만큼 내게는 이 책이 <명저읽기>라는 강의의 목적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만지며, 말하게 하는 책이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네'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 정말 이 책을 읽다 보면 과학이 주는 인문학적 설렘을 느낀다.

나는 과학에 문외한이었다. 과학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 과학 수업은 늘 즐기 좋은 시간이었다. 책도 좋아하지 않았었지만, 과학은 그보다도 더 심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법을 깨달은 채, 또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마음 깊이 깨달은 채 접한 이 책은 내가 그동안 과학과 인문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반성하게끔 했다.

절대 과학과 인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같았다. 나아가서 이 책은 과학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일리 있게 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이 없어서는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과학을 외면한 채 살았던 나의 모습이 무지했음을 느꼈고, 또 이제는 인문만을 홀로 두고는 세상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느낌을 고스란히 내 발표문에 담았다. 어떻게 써야 더 멋있는 글이 될까 하는 가식적인 마음의 글이 아닌, 내 마음과 진심을 문장 하나하나에 겸손한 마음으로 담고 싶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내 발표문에 담았던 마지막 부분이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 책은 그저 과학만을 담은 책이 아니었다. 이 책이 담은 세상 이야기는 우리가 그간 읽은 문학, 역사, 사회, 철학, 문화, 예술의 모습과 기억을 다시 바라보게 했던 책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됐으며,
책은 우리에게 80만 년 전 사피엔스와 나를 '끊임없이 대화'하게 만든 무전기가 되었다.

또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수수께끼'를 밝혀 모든 생명이 가진 위대한 가치에 대해 말해 주었다.

인문과 과학은 동떨어진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연인과 같았다. 그래서…….”

이 글은 내게 그저 진심만을 담은 부족한 글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모든 학생들은 이 글을 읽는 중간중간 탄식과 감탄이 섞인 소리를 내뿜었고, 글이 끝날 때쯤에는 잠시 고요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던 우리 조원들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이 일제히 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 있는 질문 시간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끄덕였으며, 교수님은 내 발표를 거의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해 주셨다. 그것은 이제 이 수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듣기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때 내 평생 가슴에 남을 한마디를 들었다.

“앞서 발표했던 조희재 학생이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해 주었네요. 다들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겠지만, 이 발표로 <명저읽기>에 관한 얘기들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나도 모르게 그때 왠지 눈물을 조금 흘린 것 같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라 부족한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코 슬프거나 아쉬운 감정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벅차고, 기쁜 감정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교수님처럼 교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 수업이 왜 내게 인생 강의였는지를 대신하고 싶다.

7. 강의를 넘어 사람으로, 사람을 넘어 세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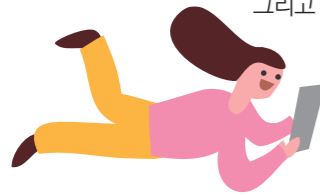
■ 작고 사소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강의를 통해 바뀐 내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작디작다. 그냥 나는 책을 좀 좋아하게 됐다. 사실은 훨씬 더. 그리고 나는 과학을 좀 좋아하게 됐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그러다가 나는 생명공학 복수 전공을 신청했다. 한 교수님께서 몇 번은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글썄, 희재 학생. 이거 실수로 잘못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국어교육인데, 생명공학을 복수 전공한다니, 희한하네. 왜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면 특히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과학 얘기를 좀 자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만난 여자친구도 나와 사귀기 전에 내가 하는 과학 얘기를 듣다가 그게 부끄럽지만 일부 내 매력이 됐기도 했다고 한다. 싱어게인 우승자인 이승윤을 프로듀싱하고 있는 천재 음악인인 우리 형은 본래부터 과학을 좋아했었는데, 어릴 때 형과 곧잘 천장에 세상을 그려보며 얘기하곤 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부한 얘기들에 과학과 등등이 추가됐다는 것도 장점이겠다. 안 그래도 나를 문돌이라며 놀렸었던 이공계의 내 친한 친구도 이제는 나를 그런 식으로는 절대 놀리지 못하기도 하고, 특히 엄마에게 요즘 내가 관심이 많이 생긴 천문학 분야의 얘기를 하면, 가끔 그 얘길 듣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 그럼, 그런 웅장함이 천문학의 매력이지. 아직은 절대로 다는 못하고, 때로는 잘 모르겠다며 피할 때도 일수지만 앞으로는 과학을 더 알아가면서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질문에도 더 척척 대답해주고 싶다.

그리고 앞서는 좀 사소했다만 생각해 보면 내 꿈이 조금 자세하게 설정된 점도 있다. 나는 본래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CEO가 되는 것이 내 꿈이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부룬디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후 연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빵이었음을 절실히 느꼈다. 또 기본적으로 손을 쓰는 방법이니, 위생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를 더러 봤다. 그런 일례를 보다 보니 나는 경영과 교육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로소 과학을 전달해야만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과학을 알아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때도 그랬지만, 나는 사실 지금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학생이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학생도 좋은 강의를 만나면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이것들이 작은 변화들이라서 더 좋다. 작고 사소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꾸준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결국 내 인생의 모습들을 바꿔나감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작은 변화의 불씨 위에 톱밥을 던져주고 간 따뜻한 우리 조원들, 내가 읽은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내가 만난 교양과 그 교양을 전해준 나의 이 인생 교양 강의, <명저읽기>를 사랑한다.

참 · 고 · 문 · 헌

- 남경아, “세대공감, 교류 넘어 교감으로”, 경향신문, 2021.11.18,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18030000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교양’
- 유시민, 『유시민의 공감필법』, 창비, 2016
- 조성일, “다시 묻노니 ‘역사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 2000.07.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2579
- 김보일, “고전은 논술의 힘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중앙일보, 2009.07.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73579#home>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옵니버스’
- 김정란, “한 권의 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관이 뒤바뀌는...”, 조선일보, 2018.10.2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2215.html
- 정현희,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문화 유전론 ‘میم’ 인간의 본질에 물음을 던지다!”, 한국강사신문, 2019.11.26, <http://www.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5>

04

나의 고착화 된 생각, 그 너머로

손성연(관광학부)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뭘지 알아? 무계획이야”

영화 <기생충>에서 폭우로 수재민 대피소에 누워있는 기택(송강호)과 기우(최우식), 기정(박소담). 기우가 계획이 뭐냐고 묻자 기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방학 일과표 그리기 숙제, 미래 계획표 발표하기부터 아직도 매년 초에 하는 새해 계획 세우기까지. 너무나도 일상에서 흔히 보아 계획이 없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계획과 실천이라는 것은 서양의 철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개념임을 알고 있었나요? 저의 인생 교양,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 수업은 평소에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개념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기하며 시작됩니다.

1. 대학에 왔으면 한 번쯤은

학과의 커리큘럼 상, 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 때 필수 전공들을 한 학기에 5과목을 들을 정도로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원하는 교양을 수강하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고등학교 마냥 짜인 수업들만 듣는 만큼 더 빨리 지쳤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2학년이 되었고, 저는 전공 지식에만 갇혀있던 제 세상을 교양 수업들을 통해 넓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무엇을 들어야 할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수업,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 흥미 있는 분야의 수업, 어렵지만 가치 있는 수업 등 선택지를 혼자 나열해보았고, 고민 끝에 '대학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수업'을 교양 선정의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왕 인문학 수업을 들을 거, 제대로 들어볼까 하

는 생각이 들었고, 철학과 교수님께 직접 철학 강의를 들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 수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너무 본격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벽이 있어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와 '일단 들어보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이긴 쪽은 해보자는 것이었고, 하나의 도전과제를 행하는 느낌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제 인생 교양이 되었습니다.

레포트로 대체되는, 즉 암기형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시험방식 또한 제게는 이 교과목의 매력 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암기해서 치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머리에 꾸역꾸역, 순간적으로 넣은 지식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경험 뒤에는 늘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해를 한 이후에야 암기가 가능한 사람이었고,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글씨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하는 시험을 결과와 상관없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한 학기에 딱 한 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내주신 주제에 대해 2페이지의 분량으로 압축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막상 학기 말이 되자, 한 학기의 내용 전체를 A4 앞뒤 한 장에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주어진 분량이 적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개념을 스스로 선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학기의 기말 레포트 주제는 “동서양의 문화적, 철학적 관계와 효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삶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라”로 깊은 생각을 한번 거쳐야 했습니다. 레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업내용, 제 삶, 전공을 다 돌아볼 수 있었고, 제출 이후에도 지식이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 어떤 수업일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 강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인간 본성의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서비교철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주 수업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 수업의 주요 흐름은 동서양 문명의 핵심적인 특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 강의 계획표를 보았을 때 동서양 철학과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어떤 관념이나 문화가 동서양 중 특정한 한 곳에서만 나타난다면, 그것을 과연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교수님께서도 그 점을 짚어주십니다. 그렇게 두 문화를 맞대면시키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고, 의식이 깨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우리 대학교에서 철학과 수업을 하고 계신 이근세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벨기에 루뱅대학교 철학 고등연구소 ISP에서 스피노자 철학과 모리스 블롱델의 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서양 근대철학과 프랑스 철학이나, 점차 연구의 초점을 수업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동서 문화 담론으로 이동시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양철학을 오래 공부하셨던 만큼 서양 철학의 한계점들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또 너무 동양사상으로 치우치지 않게 동서양 각자의 장단점이 명백히 있으니 한쪽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시며 균형이 잘 잡아주셨습니다.

교재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프랑수아 줄리앙의 저서 '전략'과 책의 해설서라고도 볼 수 있는 교수님의 저서 '효율성, 문명의 편견'으로, 이 2권을 중심으로 강연이 전개되었습니다.

3. 동양과 서양, 가장 핵심적인 차이

현재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고, 사실상 더 이상 동서양의 문화를 구분하기가 모호해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들이 서구적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힘듭니다. 이에 이 수업은 동서양의 진정한 문화교류가 시작된 16세기 이전, 각각의 문화와 철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주로 살펴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각각의 세부 사항들은 다르겠지만, 먼저, 서양 문화 전반은 모두 현실을 넘은 이상세계가 별도로 있음을 전제했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상과 실재, 목표와 수단, 계획과 실천, 수학과 자연, 신과 인간, 수요와 공급 등 우리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양이 현실 세계와 변화를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해 이상세계를 제시했던 것과 달리, 동양은 변화를 자연의 흐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서양과 달리 세계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운행의 원리로 동작한다는 관점에서 철학과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핵심은 상황이며, 동양사상에서는 상황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양은 이분법적인 관점이, 동양은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큰 틀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틀을 바탕으로 전쟁, 종교, 자연 등 수업마다 주제를 바꾸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강의해 주시는데, 중간중간 현재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생각들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 주십니다. 수업과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 사고하고, 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매 수업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듯 내용을 풀어나가시며 진행되고,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이지만 재미있는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 내 인생 교양,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

제 인생 교양을 통해, 저는 동서양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동양 서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는 작업은, 각각의 사상 차이는 물론이고, 두 문명이 만나기 전후의 역사, 종교, 과학,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같이 얻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읽기는 난이도가 있는 철학서를 수업 시간에 함께 읽으며 한 학기가 동안 두 권의 책을 제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손자병법의 경우, 방학 때 따로 구매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고리타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쳤을 법한 내용도 수업 내용이 연상되자 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동양 고전 서적들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수업 외의 다른 내용들과도 융합해보는 경험을 통해 인문학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방학 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접했는데, '역사가 인물과 사건을 만드는 것인지 인물이 역사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톨스토이의 역사관이 동양 사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톨스토이의 역사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더 찾아보았고, 그의 영웅주의가 아닌 역사관에 대해 다룬 서평, 감상문들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건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수업내용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이 자연을 보는 시각이 다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접하자, 동서양의 정원이 어떤 시선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업 이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더 재미있어졌고, 자연스럽게 지적으로 성장하는 저를 보는 것도 부듯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은연중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착화된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동양의 것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이 일부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편적이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계획에 얽매이는 사람이었고, 고난과 역경에 도전하지 않는 자세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저에 대한 사실들을 통해, 저는 더 열린 마음을 지녀야겠다고 마음가짐을 바로잡았고, 편견이 어떻게 무의식중으로 자리 잡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수업 내용을 제 삶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전략을 쓰는 최종 레포트를 통해 현재 제 전공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을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만난 이후로 좋은 방향으로 습관을 설정하는 것과 진로, 자기계발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제가 수업을 통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와 제 전공 공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기회주의자가 되어도 좋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관객 수 1위, 영화 <명량> 속 이순신 장군의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영웅을 접해왔습니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등 위인전으로 접한 민족의 영웅들부터 아이언맨과 같은 어벤져스 히어로들까지. 개인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웅주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에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졌고, ‘영웅주의’라는 말은 영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라는 단어는 어떤가요? 어쩐지 민족 반역자나 비열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회주의를 깎아내리는 것은 영웅주의를 기준으로 삼는 편견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전자는 개인적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켜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세상의 흐름을 타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이근세, 2014). 진정한 기회주의자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갖춘 조건을 헤아려보면서, 조그만 기회도 불씨처럼 살려내는,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손조문, 2014). 그런 의미에서, 전투 지휘뿐만 아니라 천문지리 파악, 부상자 처리, 소금확보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상황 전략가였던 이순신 장군도 진정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의 방식은 현대의 경영, 성공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흔히 매체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고 최고경영자가 된, 개인적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킨 영웅적인 혁신가, 기업가들을 접해왔고, 그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과도 같은 스토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고려제강의 예시를 들며, 화려한 목적이나 도전 없이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장악력이 큰 회사를 만든 CEO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제게는 이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한 충격이었고, 제가 아는 성공적인 사람들이 겪는 고난, 위기 없이 실제적인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주의와 영웅주의, 각각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내리셔도 안 되지만, 어쩌면 기회주의자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계획과 실천, 그리고 나의 새로운 습관

저는 늘 계획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늘 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다 빼고, 며칠 뒤엔 어떤 계획

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수험 생활 때 매일같이 쓰던 플래너에서도, 계획한 양을 다 공부하고 잠든 적은 손에 꼽았고, 매년 초에 쓰던 플래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씩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는 했습니다. 항상 끝은 지키지 못한 제게 자책하며 결국에는 이룬 것 없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며 다시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계획과 실천이라는 방법만이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큰 틀만 잡아두고, 세부 사항들은 당일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하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계획표 짜는 것을 그만두고 하루에 한 일을 시간대별로 적어보는 타임 트래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 트래커에 공부, 운동, 취미생활과 같은 카테고리를 정해둔 뒤 색깔 펜으로 각각을 칠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진정으로 하루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이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닌 한 일을 보는 만큼 무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루에 허비한 시간이 와닿자, 보다 시간을 더 알차게 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타임 트래커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인지 4달이 넘어가는데, 규칙적으로 바뀐 제 기상 시간, 적당한 정도의 독서 시간 등의 기록들을 볼 때마다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3) 청중을 휘어잡는 발표

계획에 강박을 가지지 않기, 상황의 흐름을 타기. 수업을 듣고 제가 만든 이 법칙은 제 삶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영역, 발표력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달달 외운 대본의 단어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머리가 하얘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끝내긴 했지만, 암기한 것을 다 말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 정작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발표에 있어 비슷한 일은 종종 발생했고 저는 좋은 반응을 얻는 발표자들이 늘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부럽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학교 수업에서 발표를 들던 중 잘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분위기, 관객, 상황에 맞춰 여유 있게 발표를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본에는 절대 없을 것 같은 멘트나 돌발 행동도 하며 매력적으로 청중을 휘어잡습니다. 늦게야 깨달은 부분이지만, 발표 또한 계획대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반응과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음에도 항상 저는 대본이라는 계획에서 벗어 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영어 발표 수업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암기하는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인 발표의 흐름에 더 초점을 맞추어 발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틀린 부분이 있음에도 그냥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색하고 신경 쓰였지만, 반복되자 점차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중간에 다르게 쓰거나 순서가 바뀐 단어들이 있었음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고, 교수님의 칭찬과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계획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분야들도 있지만, 계획에 대한 집착이 제 삶의 전반에 얼마나 뿌리박혀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 순간은 늘 놀랍습니다.

4) 나는 충분히 잘해오고 있었다

자신의 미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의욕이 부족한 상태, 미래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해 무기력한 상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허망한 상태, 대2병. 저는 어쩔 수 없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올해 초에 특히 항상 무엇인가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듯한 결과물이 없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도 없다는 사실에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사상과 관련된 부분의 수업 중, 동양에서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을 다 점검하고, 목록화 해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할 불씨를 찾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덧붙여서,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모아놓은 것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들이며 이미 했던 것에 조금의 노력만 더 붙인다면 자존감과도 연결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수업내용과도 추가로 연결해 특정한 이상적인 결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모두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강 이후, 방학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과제물, 공모전 자료, 취미활동 등을 다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료들을 보며 자잘한 것들이지만 생각보다 해낸 것이 많았고, 당시에는 즐겁게 했었다는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공 교수님들께 칭찬을 받았던 과제들을 다시 보는 일은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되자, 무기력함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기타 연습도 다시 시작했고, 멈췄었던 스페인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광 전공 시간에 배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행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단한 것 중 일부는

다시 완수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고, 전공에도 더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코로나, 관광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현재의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습니다. 여러 산업에 걸쳐 피해를 준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특히 제 전공과 관련된 관광산업은 직격타를 입었습니다. 사실 전공을 살릴지조차 고민 중이었던 제게, '관광 전공이면 지금 정말 힘들겠다'며 많은 사람이 제게 보내는 걱정 어린 말들은 더더욱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위에 전과를 고민하거나 이미 전과를 한 친구들도 많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은 제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더 어렵게 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저는 이 수업을 만났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형세, 상황의 흐름을 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현 시기의 흐름을 잘 보고, 유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들을 찾아보며 무의식적으로 전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될 것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웠고,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세웠던 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관광산업에서는 항공사들은 최악의 시기를 겪었고, 많은 여행사가 문을 닫았고, 일부 5성급 호텔들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와중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올라간 호텔들이 있고, 몇백억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행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지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마이리얼트립'은 국내 여행 수요에 빠르게 대처해 성과를 내었고, 국내 최초로 랜선 투어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인 '프립'은 외부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잘 읽었고, 기존 서비스의 사업 범위를 소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취미활동까지로도 확장해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잠실의 시그니엘 호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남들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려는 수요가 커짐을 파악했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 대신 고객들의 심리적인 만족을 채워줌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막연히 코로나19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고, 빠르게 코로나19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파악해 잘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장해 전공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며, 저는 '형세'라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영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현재 상황 때문에 제 전공에 대해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교양,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현재 수업 이후에 얻은 습관들과 생각들을 잘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며 더 멋진 성장스토리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 전공은 좋아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시간에 이끌려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가며 제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제게 오는 기회들을 잡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참 · 고 · 문 · 헌

- 김하연, “대학생들의 고질병, ‘대2병’, 당신은 괜찮나요?”,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0.11.30, <http://www.korea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504>
- 손조문, “이순신의 ‘신념’이 모두의 ‘운명’으로”, 미디어스, 2014.08.09,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55>
- 오대석,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 60억 추가 투자 유치”, 매일경제, 2020.03.24,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3/305712/>
- 유승목, “1박에 50만원” 비싸도, 코로나에도 대박난 ‘시그니엘’, 머니투데이, 2020.06.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715405518038>
- 장미, “여행사 불황에도 여행 스타트업이 투자 이끌어 낸 비결은”, IT조선, 2020.12.10,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3107.html

05

소크라테스가 남긴 불멸의 가르침

김재은(의류학과)



1. 수강동기

대학에 입학하고 설레임에 부풀어있던 저는 ‘수강신청’이라는 첫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강신청이 성공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에 개설되어 있는 수많은 교양 과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교양 필라테스’와 같이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운동 과목도 있었고 ‘시와 법’, ‘미시경제원론’같이 평소 관심 있던 사회 과학 관련 교양들도 개설되어 있었지만 저의 눈길을 끈 교양 과목은 제가 인생 교양으로 선정한 불멸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장선생님께서 운동도서로 지정하셨던 책입니다. 매일 아침 읽어야 하는 책이었던지라 열심히 읽어보려 했으나 그 당시에는 내용이 어렵고 이해도 잘 안가서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아침 시간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이 책을 다 읽어내겠다’라는 오기로 직접 책까지 사서 밑줄도 긋고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 책을 이해하고 체화시켰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저 쪽 수 넘어가는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저는 변론의 메시지와 함의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장에 꽂혀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저에게 꼭 정독해야만 하는 목표가 되었고 본 교양 과목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이해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강 신청에 성공했고 본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불멸의 철학자들’은 본교 철학과 소속 김재형 교수님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그의 메시지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교양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소크라테스 철학을 어떤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매학기 다르게 설정되는데, 제가 수강한 21년 1학

기에는 민주주의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당대 아테네 사회를 통해 현대 사회를 성찰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교수님의 의도에 맞게 소크라테스 철학과 현대 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불멸의 철학자들'은 강의명에 '철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철학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철학이 처음인 비전공자들의 철학 입문을 돕고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소크라테스 변론을 수업 전에 읽어오면 교수님께서 읽은 부분에 대한 해설과 관련 철학 개념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학우들과 수업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지는 못하여 아쉬웠지만, 교수님께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보다 자세한 교안과 설명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주교재는『확신과 불신: 소크라테스의 변론 입문』과 『플라톤의 네 대화편 에우티프론, 변론, 크리톤, 파이돈』이라는 책과 이에 대한 해설과 관련 배경 지식을 담은 강의 교안이었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요약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3.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1) 원문을 통한 정확한 이해와 사고 확장

흔히 교양이라고 하면 얇은 차원에서 내용을 훑고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교양은 수업 전에 미리 변론의 원문을 읽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역시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모두 발언에서 보충 변론에 이르는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한 문장, 한 문단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변론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변론 전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약본을 통해 학습하지 않고 원문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었기에 변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변론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함께 설명해주셔서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발자들과 논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

러 논증법과 수사학적 방법, 변론에서 그들의 발언 속에 드러난 당대 아테네의 사회적 배경과 철학 사상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하며 단순히 변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왜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예측할 수 있었고 변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대 사회상이나 세태를 현대 사회와 연결시켜보거나 당시 철학자들의 견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고 저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2)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과목

교수님께서 소크라테스 철학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지혜이자 화두임을 발견하길 요청하셨으며 강의 중간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질문을 던지는 성찰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던져가며 지키고자 했던 '영혼의 돌봄'과 '시민적 자유'와 같은 메시지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보므로써 평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학업능력의 향상

본 교양은 제가 앞으로 학업을 이어가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들을 향상시켜주었습니다. 첫 중간고사 날 여백으로 가득 찬 전지 사이즈 종이에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유는 본 교양 과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논술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 유형 역시 암기한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론을 공부하면서 생각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방식이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과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들에 대하여 기승전결에 맞게 하나의 글로 구성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준비하며 학습 내용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정립해보도록 노력했고 a4 용지에 다양한 주제로 여러 번 글을 작성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첨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까지 암기형 객관식 문제에 익숙했던 저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를 글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과제의 경우, 소크라테스 변론을 7 페이지의 분량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변론을 흐름에 맞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변론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중심내용과 근거를 구분해보며 글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몸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저는 '철학'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눈에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고 익숙지 않은 용어를 다루는 본 교양 과목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에 적응하기 바빴

습니다.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고 방대한 양의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의 첫 출발을 '불멸의 철학자들'과 함께한 것에 단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멸의 철학자들'을 수강하며 배우고 느낀 점들은 훗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불멸의 가르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동안 강의를 열성적으로 이끌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표 하고 싶습니다.

4. 성장 스토리

1) 물질 만능주의 세태와 이에 대한 성찰

9월 17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그린 <오징어 게임>은 물질 만능주의, 극한의 경쟁, 승자 독식 등 현대 자본주의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게임 속에서 참가자들은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속이는 등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마저 잊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 세태를 풍자하면서도 인간이 가지는 본연적 가치보다 돈, 명예와 같은 외면적 가치를 우선시했을 때 모두가 파멸하는 비극에 이를 수 있음을 단편적으로 드러냅니다.



변론 속 당대 아테네의 사회 역시 이런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BC 479년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델로스 동맹 이후 노예 노동과 주변국에서 들어오는 조공으로 풍요가 넘었던 당대 아테네인들은 물질지상주의에 빠져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사치에 빠져 시민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아테네 시민들은 결국 나라의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당대 아테네 시민들에게 '영혼을 돌보라', '자네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절제일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는 평소 학력, 외모 같이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을 추구하던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 저의 꿈과 목표는 어느새 사라지고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이 가슴 한편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물질 만능주의는 필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를 완전

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태도를 바꿔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보거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할 때 <오징어 게임>처럼 모두가 파멸하는 비극을 맞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차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계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 대조해보며 철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알아보기도 했고, 만약 당대 아테네 사회가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에 의해 통치되었다면 이상적일 수 있었을지 상상해보면서 사상을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생긴 서양 철학에 관심은 서양 철학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서양 철학에 대해 알려면 서양 철학 전반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기존의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왜 그런 주장을 펼쳤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의 흐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니체 출현 이전의 2천여 년 동안 서양 철학을 정초한 소크라테스 사상이 서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으나 그 이후 변화가 발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서양 철학이 변화하는 시작점이 된 니체 철학은 저의 눈길을 끌었고 니체 철학을 더 주의 깊게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니체를 공부하기 위해 니체 철학 입문서를 읽고 니체 철학이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대별되는 부분을 따져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철학자의 사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 권위의 위엄으로 무장된 전통 도덕, 구원을 약속한 기독교의 교리 등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니체 철학을 통해 서양 철학사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양을 통해 입문한 서양 철학 공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철학자로부터 시작한 서양 철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 지루함 없이 서양철학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체 철학을 공부하며 궁금했던 내용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칸트'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공금증을 갖고 철학 공부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다수결은 정의로운가?

우리는 주권자로서 모든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민주 사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은 가장 합당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가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중우정치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의 선동과 대중 심리로 인해 재판에서 다수의 민중들이 사형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고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며 다수결이 언제나 정의로운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수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해 과거의 사례부터 탐구해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탐구를 통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다수결을 통한 결정이 언제나 옳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당의 히틀러와 파시스트당의 무솔리니 모두 강압과 폭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으며 반민주적이라고 평가받는 유신 헌법 역시 국민 투표에서 투표자 91.5%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 것도 민중의 흐름을 따라 쉽게 좌우되는 것이 다수결이기에 자칫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다수결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테네의 중우 정치와 같은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현대 민주 국가들은 많은 대안책을 가지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 탄핵 소추에 있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처럼 중대한 국가 사안에 있어 가중다수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리 다수에 의해 결정된 법률이라도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내용의 정당성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다수당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여권이 약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임대차 3법'과 같이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역시 다수결의 원칙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역시 다수당이 주도적으로 이끌려 소수당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협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채 절차로서의 다수결만 고집하는 것은 다수결에 대한 왜곡, 즉 다수 독재가 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의견의 다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민주적 결정이라는 것은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

해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결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수결은 다수를 만들어가는, 더 큰 다수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이철희, 2020.10.27.).

한겨레 신문 칼럼에 실린 다수결에 대한 견해입니다. 저는 위 견해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동아리 회의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선정하는 문제 등을 다룰 때 다수결의 원칙을 통한 결정을 당연시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별다른 생각 없이 바로 배제해버리는 경우도 물론 많았습니다. 앞으로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죽음을 두려워하던 나를 위한 가르침

예전부터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은 제가 경험 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어느 날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공부하며 저는 죽음을 예전보다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죽음은 완전히 무료 돌아가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보다 더 즐거운 밤이 어디 있겠나? 다음,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것이다. 생전에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죽음을 통해 귀찮은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긴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는 죽음이 무지의 영역임에도 알지도 못하면서 최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비난 받을 일이며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가 이렇게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초연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저로 하여금 삶을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5)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고찰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해석의 여지가 충분했고 제가 소크라테스의 발언과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법을 준수하여 아테네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하며 남긴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국법을 준수한다'의 의미는 악법에도 복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해당된 죄목은 대화를 통해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청년 타락죄'와 국가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불경죄'였기에 위 죄목은 당위성을 따졌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즉 아테네 민주정의 황금기를 살았던 소크라테스에게 아테네 민주정은 공동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제도였고 이 제도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합의된 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판단해 죽음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여러 견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법적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 국가의 부당한 판결을 거부하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적인 성격을 띠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만약 사형을 선고 받고 플라톤의 도움을 받아 탈옥을 시도했다면 이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소크라테스는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 체제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저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분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다니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면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니다.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는 모습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며 신념과 타협 사이에서 나왔다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물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니다.

6) 인문학을 가까이하는 계기

강의를 통해 인문학을 통해 삶을 배우고 공부하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삶,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연과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연과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사변적이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별개로 인문학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데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인문학과 만나고 기술이 기초 학문들과 만나면 그 결과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라는 발언을 할 만큼 인문학이 가지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본 교양을 통해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저는 인문학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나'만의 답을 찾아 나서는 끝없는 여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인문학을 진정으로 공부하고 사유하고 있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 '과제를 해야한다' 등의 핑계를 대며 책 한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인문학과의 끈을 놓지 않고자 친구들과 철학 스터디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함께서양의 지적운동이라는 책을 읽으며 르네상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유럽 문화를 지배해온 서양의 사조를 공부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 헛갈리는 개념들은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주제마다 발제를 준비하여 친구들과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흡스의 리바이어던을 공부할 때 <흡스가 추구하는 리바이어던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사회에서 세계화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무한경쟁의 모습을 찾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리바이어던(국가)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리바이어던을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공부할 땐 <"사회주의는 죽었다"라고 단언하는 말이 등장할 만큼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하였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는 서방의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뒤쳐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주의가 죽었다'고 표현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있고(복지정책, 그린벨트, 징병제 등) 이를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라는 발제문에 대하여 스터디 친구들과 각자의 생각을 정립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인문학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짧게 5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중인데 저의 마음을 밝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참 보람칩니다. 요즘에는 동양 고전에 관심이 생겨 신영복의 『강의』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은 노트에 옮겨 적으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앞으로 도 저는 인문학과 공존하는 삶 속에서 보다 사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06

첫 만남의 행운
"창의적 컴퓨팅"

임재빈(의류학과)



우선 이 "창의적 컴퓨팅"이라는 과목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저희 대학교 1학년 1학기의 기본 수업(이번 학기에 웬만하면 꼭 들으라고 학교 측에서 짜주는 것)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과목을 1학기에 들으려고 마음먹었지만, 이럴 수가, 수강 신청을 하는 날에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11시 10분쯤에 수강 신청 사이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작한지 10분 만에 이 과목의 수강 정원은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졸업하기 전에만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중학생 때 배웠던 컴퓨터 언어, "C언어"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따라 방과 후 수업으로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따옴표, 쉼표 등을 자주 사용해야하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때 담당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책이 입문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 코딩 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후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보는 과목이 컴퓨터 관련 과목인 것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마음 한 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 컴퓨팅에서는 C언어가 아니라 파이썬에 대해 배운다고 했는데, 이게 C언어만큼 어려울까?', '내가 중학생 때는 공부를 잘 안 해서 어려웠던 게 아닐까?', '현재의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은 점점 커져갔고, 이 커진 궁금증은 이 과목을 다음 학기에 들겠다고 했던 저의 마음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형과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빌널"(정원이 다 찬 강의의 교수님께 '저까지만 받아주세요..'라며 비는 행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빌널을 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메일을 적었습니다. 처음엔 교수님께서 수강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처럼 증원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며칠 뒤에 결국 증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와 과정입니다.

"창의적 컴퓨팅"은 컴퓨터계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접근하기 수월한 컴퓨터 언어인 파이

참 · 고 · 문 · 헌

- 권기석, 박세원, 이동환, 권민지, "의대라면 7수도 하죠" 정시확대에 수능 또 본다, 국민일보, 2021.11.15,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466963>
- 이철영, "다수당 횡포 제동, 징벌적 '입법중재법'도 만들자", 더팩트, 2021.08.31, <http://news.tf.co.kr/read/column/1884905.htm>
- 이글루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민주주의, <http://egloos.zum.com/xuecheng/v/4161287>
- 이철희, "다수결에 대한 오해", 한겨레, 2020.10.26,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7256.html>
- 최영무, "[한승윤의 무수골 산책] 모두가 참가자...'오징어게임', AVING, 2021.10.13,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44087&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션(Python)을 이용하여, 컴퓨터 언어의 개념과 활용법을 배우고 습득하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실제 컴퓨터 비전공 학생인 제가 배워보니, 정말 접근하기 수월했습니다. 사용하는 명령어들도 input(입력할 때 사용), print(출력할 때 사용) 등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과목의 교수님은,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고 계시는 이병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말투는 되게 무뚝뚝하시지만 과제나 강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메일 답장도 빠르게 해주시는 반전 매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런 따뜻한 매력에 빠져 수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밖에 밟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과목의 저의 '인생 교양'인 이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렵지 않은 수업 내용과 과제"입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파이썬은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직관적이라서 학습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름 방학 중 추가적인 학습을 해보니, 물론 파이썬에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내주시는 과제들도 그 주의 수업만 잘 들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막 대학에 온 제가 좌절하지 않고 학습 의욕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양은 교양 수준에서 배워야 한다.'는 저의 생각에도 부합했습니다. 친형이 대학에 가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학점을 받기 힘들 것 같은 과목을 "드랍"(그 과목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행위)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창의적 컴퓨팅 과목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만 배웠다면, 저도 우리 형처럼 이 과목을 아예 드랍 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이 과목의 '인생 교양'인 두 번째 이유는 "활용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이 과목의 시험은 학습 내용과 지식의 활용을 요하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파이썬에 대해 깊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변별력도 높여줍니다(상대평가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과제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시험까지 쉬우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파이썬의 조건문(if문)을 이용하여 1부터 100까지의 소수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결과 값으로부터 문제가 원하는 것을 해석해내는 데에는 파이썬의 학습 내용이 필요했고, 코딩을 할 때에는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끔 사용했던 '소수를 구하는 법'(2로도 안 나뉘지고 3으로도 안 나뉘지면 그것이 소수)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봤을 때에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기반하여 여러 번 읽어보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는 담당 교수님의 탁월한 문제 출제에 감탄했습니다. 파이썬 학습 내용과 고등학생 때의 지식을 동시에 요하는 문제라니.

이는 '강의의 깊은 이해'와 '변별력 높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이제 이 과목을 듣고 난 뒤 성장한 저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것들의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선풍기 같은 전자 제품에만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사람도 [배가 고프다.] → [치킨을 먹는다.]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심지어 연필도 [종이에 대고 일정한 힘을 준다.] → [선이 그어진다.] 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니 이 세상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매일 봐서 별 감흥이 없어진 제 방책상 스탠드와 휴대폰 거치대도 각각 [스위치를 누른다.] → [전등이 켜진다.] → [전등의 밝기는 어느 정도?] ..., [각도를 어느 정도?] → [휴대폰을 놓는다.] → [휴대폰을 지지한다.]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저는 무언가에 질렸을 때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장래에 패션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디자인 영감을 얻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과목을 배우고 난 뒤에 추가적인 학습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시험 기간이 아니면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학습하고 나서, 흥미로운 파이썬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여름 방학에 책을 따로 구매하여 혼자서 추가적인 학습을 더 해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공부를 멀리하던 제가, 필요한 것과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너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컴퓨터 언어에 대해 학습한 내용은 제 진로에 있어서 의료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 또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성장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수강하기 전까지 모든 공부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그저 오늘 할 일을 얼른 끝내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목을 수강하며 파이썬이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저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초등학교 때 보았던,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는 절대 안 하는 친구들과 나는 뭐가 다르지?', '교수님께서 열심히 수업을 해주는데 나는 왜 열심히 안 듣지?'...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에 왔으니, 제가 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워가야겠다

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공부를 얼른 끝내 버리고 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노는 것만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 또한 이 강의 덕분에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며 파이썬의 기초적인 명령어들을 배우고 그에 기반한 369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코딩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게임을 프로그램으로 짜보려 합니다. 먼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나빼기 게임은 가위, 바위, 보 중 두 개를 골라 왼손과 오른손에 내고, 상대방의 양손을 확인한 뒤 두 손 중 하나를 앞으로 뻗어 승패를 결정짓는 게임입니다. 이것을 컴퓨터와 대결하는 게임으로 나타내려면, 기본적인 가위바위보 게임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손에 대하여 입력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선택한 두 개 중 무엇을 낼지 정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것은 그저 왼손, 오른손에 입력을 각각 받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것은 컴퓨터가 사용자가 양손에 낸 것을 보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을 내는 식(만약 그 확률이 같다면 둘 중 하나를 무작위로 내는 식)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if 조건문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무엇을 택하는 것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기반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해보았습니다. 총 9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을 자료 사진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재민-하나빼기.py
File Edit Format Run Options Window Help
import time
import random

#1
print('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게임입니다.')
print()
time.sleep(1)
print(''''왼손과 오른손에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면, 컴퓨터와 당신이 양손에 무엇을
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손을 앞으로 뻗을지 입력해주세요.
(왼손을 뻗으려면 1을 입력, 오른손을 뻗으려면 2를 입력)''')
print()
time.sleep(1)

#2
while True:
    print(''''가위, "바위", "보" 중 왼손과 오른손에 낼 것을 각각 입력해주세요.(중복 선택 불가)''')
    L=str(input(''''왼손:''''))
    R=str(input(''''오른손:''''))
    print()
    if (L=="가위" or L=="바위" or L=="보") and (R=="가위" or R=="바위" or R=="보"):
        if L==R:
            break

#3
CN=[1,2,3]
CP1=int(random.choice(CN))
i=0
while True:
    if CP1==CN[i]:
        break
    else:
        i=i+1
del CN[i]
CP2=int(random.choice(CN))

```

[그림1]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코딩1

이 프로그램에서 숫자를 무작위로 결정해주고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부분에 파이썬에 내장된 함수인 time과 random을 불러왔습니다(import 명령어를 통하여). 그리고 #1은 게임의 시작을 안내하는 파트입니다. 게임을 소개하며 규칙을 안내하는 문구를 print 명령어를 이용해 출력하였습니다.

#2는 사용자가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낼 것을 input 명령어를 통해 입력받는 파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가위", "바위", "보" 외의 것을 입력하거나 같은 것을 중복하여 입력한다면, 게임의 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break 라는 명령어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실행되는 while True 반복문을 사용하였습니다. input을 통해 입력받은 값을 저장한 변수 L(Left)과 R(Right)이 중복되지 않고, "가위", "바위", "보" 중 두 개가 저장되었다면 break 명령어가 발동되어 while True 반복문은 중지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변수, 함수 등의 이름을 약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이름 옆 괄호 안의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의 약자인지 나타냅니다.)

#3은 컴퓨터가 양손에 낼 것 2개를 무작위로 정하는 파트입니다. CN(Choose Number)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random.choice라는 명령어를 통해 임의로 숫자를 골라 CP1(Computer Point 1)이라는 변수에 지정하였습니다. 이 때, 컴퓨터도 "가위", "바위", "보"(앞으로 편의상 가위바위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중에서 중복 선택을 하면 안 되므로 while True 반복문을 이용하여 CP1에 지정된 값은 CN 리스트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후 동일한 방법으로 CP2에 무작위로 값을 지정해주었습니다.

```

인재민-하나빼기.py
File Edit Format Run Options Window Help
#4
def RSPa(a,b):
    if a==1:
        h1="가위"
    if a==2:
        h1="바위"
    if a==3:
        h1="보"

    if b==1:
        h2="가위"
    if b==2:
        h2="바위"
    if b==3:
        h2="보"
    return (h1, h2)

CN,CR=RSPa(CP1,CP2)

#5
time.sleep(1)
print(''''컴퓨터의 양손을 확인하고, 왼손과 오른손 중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세요.'''')
print()
time.sleep(1)
print(''''당신의 왼손: 'L+' / 당신의 오른손: 'R+'''')
print(''''컴퓨터의 왼손: 'L+' / 컴퓨터의 오른손: 'R+'''')
print()
time.sleep(1)
Lhand=int(input(''''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 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print()
time.sleep(1)

```

[그림2]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코딩2

#4에서는 RSPa(Rock Scissors Paper 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RSPa는 #3에서 CP1, CP2에 지정한 값을 토대로 CL(Computer Left)과 CR(Computer Right)에 가위바위보를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튜플(CL, CR)을 함수의 return값에 대응시켜 각 변수에 값을 지정하였습니다.

#5는 사용자의 양손과 컴퓨터의 양손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무슨 손을 앞으로 뻗을지 입력을 받는 파트입니다. time.sleep(초) 명령어는 위에서부터 사용했는데, 이는 괄호 안의 초만큼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의 출력 값이 1초 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려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input을 이용하여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int를 이용하여 입력 값을 숫자로 변환하여 uhand(your hand)에 지정하였습니다. (input을 이용한 입력 값은 기본적으로 문자로 취급됩니다.)

```

임재민-하나빼기.py
File Edit Format Run Options Window Help
hand=int(input('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 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
r=int()

time.sleep(1)

if uhand==1:
    print('당신은 왼손( 'L' )을 냈습니다.')
    print()
    uhand=L
elif uhand==2:
    print('당신은 오른손( 'R' )을 냈습니다.')
    print()
    uhand=R

def RSPd(c,d):
    if c==d:
        print('무승부!')
    if c=='가위':
        if d=='바위':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d='보'
        elif d=='가위':
            pr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el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c=='바위':
        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d='가위'
        elif d=='가위':
            pr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el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c=='보':
        if d=='가위':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d='바위'
        elif d=='바위':
            pr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el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

[그림3]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코딩3

그리고 if 조건문과 elif 조건문을 통해 uhand에 지정된 값이 1인지 2인지를 판별하여 사용자가 어떤 손을 앞으로 뻗을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손을 뻗었는지, 그것이 가위바위보 중 무엇인지 print를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6에서는 RSPwd(Rock Scissors Paper winner decision)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함수로 정의한 것입니다. if조건문을 사용하여 c(컴퓨터가 낸 것)와 d(사용자가 낸 것)을 비교하여 사용자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

임재민-하나빼기.py
File Edit Format Run Options Window Help
hand=int(input('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 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
r=int()

time.sleep(1)

if uhand==1:
    print('당신은 왼손( 'L' )을 냈습니다.')
    print()
    uhand=L
elif uhand==2:
    print('당신은 오른손( 'R' )을 냈습니다.')
    print()
    uhand=R

def RSPd(c,d):
    if c==d:
        print('무승부!')
    if c=='가위':
        if d=='바위':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d='보'
        elif d=='가위':
            pr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el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c=='바위':
        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d='가위'
        elif d=='가위':
            pr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el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c=='보':
        if d=='가위':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d='바위'
        elif d=='바위':
            pr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elif d=='보':
            pr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

[그림4]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코딩4

#7은 3가지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7-1의 함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정의한 함수는 cRSPdrand(computer Rock Scissors Paper decision random)으로, 컴퓨터가 앞으로 뻗을 손을 무작위로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컴퓨터가 무작위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뒤 #8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에서는 cRSPdL(computer Rock Scissors Paper decision Left)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양손에 낸 것(e, f)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자신의 왼손(g)을 내는 것이 사용자를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7-3에서도 비슷하게 cRSPdR(computer Rock Scissors Paper decision Right)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여, 오른손을 내는 것이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에서는 #7에서 정의한 함수들을 모두 이용합니다. cRSPdL과 cRSPdR 함수를 통해, 컴퓨터가 자신의 왼손을 내는 것이 유리하면 chand1(computer hand 1)에 1을, 오른손을 내는 것이 유리하면 chand2에 1을 지정합니다. 만약 chand1과 chand2에 모두 1이 지정되었다면, 컴퓨터는 어떤 손을 앞으로 뻗어도 이길 확률이 50%라는 뜻이 됩니다. 사용자가 양손에 가위와 바위를 내고, 컴퓨터가 바위와 보를 낸 상황(사용자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바위를 내면 이길 수 있고, 사용자가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보를 내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7에서 정의한 cRSPdrand 함수를 이용하여 앞으로 뻗을 손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가위바위보-하나빼기.py
File Edit Format Run Options Window Help
uhand=1(input("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
pr int()
time.sleep(1)
if uhand==1:
    pr int("당신은 왼손( 'L' )을 냈습니다.")
    pr int()
    uhand=L
elif uhand==2:
    pr int("당신은 오른손( 'R' )을 냈습니다.")
    pr int()
    uhand=R
#6
def RSPwd(c, d):
    if c==d:
        pr int("무승부!")
    if c=="가위":
        if d=="바위":
            pr 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d=="보":
            pr 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if d=="가위":
            pr 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d=="보":
            pr 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if c=="바위":
        if d=="가위":
            pr 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d=="보":
            pr 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if d=="가위":
            pr 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d=="보":
            pr 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if c=="보":
        if d=="가위":
            pr 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d=="보":
            pr 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if d=="가위":
            pr int("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if d=="보":
            pr int("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

[그림5]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코딩5

마지막으로 #9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선 사용자와 컴퓨터가 최종적으로 앞으로 뽑은 손(가위바위보 중 하나)들을, #6에서 정의한 RSPwd 함수를 통해 비교하여 승부를 결정합니다.

학기 중 이 강의를 수강할 때의 파이썬은 접근이 쉬워 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코딩하면서 파이썬이 꽤 어려운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 흥미를 잃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파트 별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엄청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난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너무 기뻐 혼자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친 적도 있습니다. 학습으로부터 오는 희열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는데, 저에게 공부의 참된 매력을 다시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한층 더 파이썬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의류학과에 온 지금까지, 졸업한 뒤 저의 진로는 패션 디자이너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화 학습을 통해 정말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관련 분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컴퓨터와 패션을 결합한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파이썬을, 저에게 자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이 교양 강의와 담당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는 대학생 1학년들이 1학기에 처음으로 듣기 가장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코딩한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게임의 시연 사진을 보여드리며 에세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START:
파이썬#임재빈-하나빼기.py =====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게임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면, 컴퓨터와 당신이 양손에 무엇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손을 앞으로 뽑을지 입력해주세요.
(왼손을 뽑으려면 1을 입력, 오른손을 뽑으려면 2를 입력)

"가위", "바위", "보" 중 왼손과 오른손에 낼 것을 각각 입력해주세요.(중복 선택 불가)
왼손: 보
오른손: 바위

컴퓨터의 양손을 확인하고, 왼손과 오른손 중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세요.
당신의 왼손: 보 / 당신의 오른손: 바위
컴퓨터의 왼손: 가위 / 컴퓨터의 오른손: 바위

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2

당신은 오른손( 바위 )을 냈습니다.
컴퓨터는 왼손( 가위 )을 냈습니다.
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

[그림6]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시연1 (사용자의 승리)

```

===== RESTART:
파이썬#임재빈-하나빼기.py =====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게임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면, 컴퓨터와 당신이 양손에 무엇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손을 앞으로 뽑을지 입력해주세요.
(왼손을 뽑으려면 1을 입력, 오른손을 뽑으려면 2를 입력)

"가위", "바위", "보" 중 왼손과 오른손에 낼 것을 각각 입력해주세요.(중복 선택 불가)
왼손: 안녕
오른손: ㅎㅇ

"가위", "바위", "보" 중 왼손과 오른손에 낼 것을 각각 입력해주세요.(중복 선택 불가)
왼손: 바위
오른손: 가위

컴퓨터의 양손을 확인하고, 왼손과 오른손 중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세요.
당신의 왼손: 바위 / 당신의 오른손: 가위
컴퓨터의 왼손: 바위 / 컴퓨터의 오른손: 보

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2

당신은 오른손( 가위 )을 냈습니다.
컴퓨터는 왼손( 바위 )을 냈습니다.
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
    
```

[그림7]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시연2 (사용자의 패배)

```

===== RESTART:
파이썬#임재빈-하나빼기.py =====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게임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면, 컴퓨터와 당신이 양손에 무엇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손을 앞으로 뽑을지 입력해주세요.
(왼손을 뽑으려면 1을 입력, 오른손을 뽑으려면 2를 입력)

"가위", "바위", "보" 중 왼손과 오른손에 낼 것을 각각 입력해주세요.(중복 선택 불가)
왼손: 가위
오른손: 바위

컴퓨터의 양손을 확인하고, 왼손과 오른손 중 무엇을 낼 것인지 입력하세요.
당신의 왼손: 가위 / 당신의 오른손: 바위
컴퓨터의 왼손: 보 / 컴퓨터의 오른손: 바위

어떤 손을 내시겠습니까? 왼손은1, 오른손은 2를 입력하세요: 2

당신은 오른손( 바위 )을 냈습니다.
컴퓨터는 오른손( 바위 )을 냈습니다.
무승부!
    
```

[그림8]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프로그램 시연3 (무승부)



교양으로 세상을 만나다



01. 나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행복을 경영하기 · 박혜령
02. 같이의 가치, CLAP · 우다현 외 4인
03. 어린 시절 간직했던 수수께끼가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까지 · 이원정
04.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변화, GPS101 · 이선환 외 3인
05.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 김연재
06. 희곡을 읽다, 세상을 읽다 · 이소정
07.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아이를 위한 나라도 없었다 · 엄성현·이창재



과학적으로 행복을 경영하기

행복의 과학: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하여

과학적으로 행복을 경영하기

행복의 과학: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하여

박혜령(경영학과)

우연한 첫 만남

“자본이 누구시라고?”

幸福

꿈 깨라

“최근의 경영학 연구가 밝히는 행복의 과학은 영혼, 영적, 초자연적, 종교, 명상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는 행복론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다시 평가해본다.”

=행복은 별개 아니다

행복에 대한 자기는 진실

- 성공적 인생 추구책 경험
- 웰빙이벤트와 문화
- 영도가 아닌 영도
- 구체적인 선례와 계명

어떤 이벤트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

- 1) 내 행복 때문에 나쁜 것
- 2) 미래에 가서 리얼 세팅을 위한 것
- 3)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

4. 같은 질문으로 나의 행복 패턴의 순서를 기록하고 비교해본다.
4.1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혹은 그와/녀의 나날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고 싶은 것)
4.2 유쾌하게 가사 일을 맡는 것(혹은 혼자서 할 일의 일부를 맡는 것)
4.3 내 친구와 함께 하는 것(혹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 광범위한 신뢰
- 관계
- 불확실성 용인성
- 자이에 대한 존중과 자유도
- 앞으로 가져올 나의 행복

교양교육의 본질

“우리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죽어가는 영혼의 자유
나를 알고 인간을 아는 지식
지식을 통해 타인과, 사회와 연결되기

01

나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행복을 경영하기

박혜령(경영학과)



1. 행복과의 우연한 첫 만남

이 강의를 처음 수강하게 된 건 순전한 운이었다. 나의 첫 시간표는 이미 다른 과목은 들어올 틈도 없이 전공과목과 기타 필수 과목들로 정확하게 아귀가 들어맞아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전공과목 하나가 바뀌게 되면서 내 시간표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작은 틈으로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흘러들어왔다. 그제서야 계획에 없던 다른 과목들을 둘러보다 우연히 행복의 과학이라는 수업을 발견했다. 그렇게 수강신청 종료 날 직전에 시간표를 바꾼 나는 최대 마일리지 투자를 행복의 과학 수강생 티켓을 얻게 되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이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 과목은 사실 이미 학우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목이었다. 내가 어떤 수업에 들어온 것인지 깨닫자 마치 하루 전부터 줄을 서 있어야 먹을 수 있는 맛집 티켓팅에 우연히 성공한 기분이었다. 심지어 그곳이 맛집이라는 것도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다. 행복의‘행’이라는 한자는 불운 혹은 요절할 운명을 뜻하는 글자가 거꾸로 뒤집어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행복의 글자에 들어있는 그러한 우연성을 고려했을 때, 나와 강의의 첫 만남은 행복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과학: 본격적인 시작

‘행복의 과학’이라는 강의명은 사실 끌리는 이름은 아니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행복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간은 시니컬한 태도로 들었던 수업에서 처음 뵈는 서은국 교수님은 나 못지않게 시니컬하신 분이셨다. 교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수업을 이끄시는 그런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분이셨다. 교수님께서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

중 한 분으로, 수업 외적으로도 여러 방송 매체에서 강의하시는 모습을 한 학기 내내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교수님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셨다. 교수님의 그 차갑고도 뜨거운 열정 덕에 나도 점점 강의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업을 거듭할수록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복의 진실에 대해 배우며 나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가 밝히는 행복과 관련된 성격, 객관적 조건(돈, 결혼), 문화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다시 평가해보는 것. 이를 위해 강의에서는 행복에 대한 역사적 시각들을 차례대로 배우고, 학계에서 행복연구가 진행되어온 과정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행복에 대한 시각으로는 고대 유다이모니아(eudaimonia)적 사고부터 쾌락주의, 금욕주의, 중세 기독교적 사고와 근대 공리주의, 그리고 동양의 유불도 사상에서 비롯된 사고까지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행복의 역사를 배우니 내가 존재하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관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적 흐름의 하에 있는 가치관 중 하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또한 내 사고가 그동안 무엇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스스로의 생각을 먼 거리에서 관조하고 관찰하는 메타인지를 통해 나를 초월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전공수업에선 흔치 않은 참 산뜻한 경험이었다.

한 학기 수업 내내 내 책상 위에 함께 올려져 있던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었다. 말 그대로 행복의 기원과 부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밝혀내는 책이었다. 그 기원은 소실된 채, '웰빙(well-being) 혹은 '힐링'과 같은 말과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온 '행복'이란 사실 인간의 생존을 돕는 도구로 정의될 수 있었다. 즉 행복은 어떤 도덕적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생존해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필요한 좋은 느낌,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었다. 책은 행복의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진화론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교수님의 통찰도 엿볼 수 있었다. 책을 통해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정리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수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었다.

3. 행복에 대한 본론질: 차가운 진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며 행복에 대해 성장한 사고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종착지나 끝내 도달해야 할 이데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과 행복을 유발하는 트리거를 혼동했기에 발생하는 착

각이다. 인생에 목표나 종착지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행복은 그것 자체라기보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경험되는 구체적인 상태이자 맛이라고 보아야 정확하다. 이것을 위해 교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이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라는 표현이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경험으로 정의되고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그런 쾌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음식'이다.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음식에서 쾌를 얻는다. 또한 타인과 어울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꼭 필요한 자극을 얻는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극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삶에 얼마나 자주 가지고 있었는지 되짚어보라고 하셨다. 이런 기본적인 측면을 무시하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전까지 나는 먹는 것과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었다. 인생에는 그것보다 좀 더 대단하고 거창한 무언가가 있다고 꿈꿨었다. 그런데 수많은 실험 결과들이 두 팔 걷고 증명해주는 인생의 진리를 알고 나니 태도는 달라졌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계속해서 살게 해주고, 또 나에게 쾌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니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맛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졌다. 억지로 무엇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반드시 타인이 필요하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가 자연스레 행복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왜 그제서야 나는 나에게 행복을 허락해줄 수 있었을까. 마치 이전까지는 캐비어가 캐비어인 줄도 모르고 매번 상에 올라와도 먹지도 않거나, 먹어도 다 흘리고 먹으며 귀한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캐비어가 캐비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맛을 음미하며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교수님께서 행복에 있어 중요한 자질이 '음미(savor)'하는 능력이라고 하셨던 걸 기억해보면 나는 수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나만의 미뢰를 장착하게 된 셈이다. 캐비어보다 더 귀한 가족과 친구들의 진가를 깨닫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성장이었다.

두 번째,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연구에서 주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단어였다. 행복이라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명된 유사변인이 바로 이 '주관적 안녕감'이다.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양외과도 같은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긍정정서의 존재, 부정정서의 부재,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요인이다. 특이했던 점은 부정정서의 부재가 곧바로 긍정정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삶에 단순히 걱정이 없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유의 대가이신 서은국 교수님은 이조차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셨다. '쾌'와 '행복'의 관계는 '나무'와 '공원'의 관계와도 같다는 것이었다. 나무가 없는 공원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넓은 '공원'을 이루는 삶의 평온함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쾌와 즐거움을 주는 나무들을 활발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만 많다고 다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긍정정서나 쾌라는 감정만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중요한 것은 결국 균형이다. 평온과 만족이라는 '부정정서의 부재'와 쾌와 기쁨이 되는 '긍정정서의 존재'가 동시에 동등한 중요성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서의 두 측면에 대해서도 이처럼 심도 있게 배우면서 내 삶에서 행복을 일궈나가기 위해 필요한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여기까지 배우자 의문점 하나가 생겼다. 부정정서는 없어야 좋은 것이라면 애초에 인간은 왜 부정정서를 느끼도록 진화했을까? 만약 인간의 생존에 부정정서가 하는 역할이 없다면 부정정서는 아예 느끼지 않도록 진화해왔을 것이었다. 수업에서는 이에 대해 진화론적 관점에서 부정정서가 하는 역할도 배울 수 있었다. 움직이며 뇌에 정보를 축적하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을 수집해나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불안함, 우울함, 슬픔 등의 바로 이 부정정서였다. 이들은 생존 차원에서 마치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 쪽으로 더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단맛이 좋더라도 삶에 다



른 맛들,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진화론적 차원에서 큰 약점을 갖게 된다. 생존에 위험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미각이 발휘되어 우리는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삶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부정적인 정서들에도 다 생존 차원의 필수 역할과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의 단맛만 느끼고 싶던 편협한 사고에서 탈피해, 이제 삶의 쓴맛과 신맛에도 나만의 미뢰를 이용해 그 나름의 맛을 음미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세 번째, 행복은 강도(intensity)가 아니라 빈도(frequency)다: 어떤 이들은 성공 또는 '한 방'을 위해 평생의 인생을 참고 버티며 살아가기도 한다. 교수님은 이러한 삶을 Domino Illusion이란 용어로 설명해주셨다. 단 몇 초의 도미노 쇼를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고 애를 쓰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이러한 상황을 현실이 아닌 'illusion', 즉 '환상'이라 지칭한 이유는, 순간적인 쾌의 강도가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있던 행복의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아무리 큰 강도라 할지라도 결코 강도 그 자체가 그동안의 절대 빈도를 보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행복에 있어서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어떤

대단한 목표에 속아 매일의 불행과 불편함을 오랫동안 합리화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에는 그것을 달성하기까지의 절대적인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진리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목표를 너무 쉽게 남용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목표가 진짜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채, 그저 경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못할 시간들을 낭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덮어두고 믿어온 것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needs)은 내 곁의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도미노 세우기(wants)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곁의 많은 행복을 놓치고 살았었다.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는다는 성질이 있다. 행복도 이와 같아서 어떠한 경험이나 자국이 나에게 영원한 쾌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어떠한 거창한 환상 없이도 지속해나갈 수 있는 목표가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곳으로 가는 길부터 행복하고, 매일 세우는 도미노 하나하나가 행복한 목표야말로 내가 찾아야 할 목표였던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확장되어 배운 사실이 행복은 '양'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의 고질적인 문제인 돈과 행복의 관계에 이를 적용해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 돈은 기본적 임계 이상이 되면 행복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결국 돈 외에도 사회적으로 행복의 보장조건으로 여겨지는 조건들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었다. '그 날'이 온다면, 혹은 '그 것'이 내게 온다면 행복해질 것이란 가정법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필요하다. 나만의 행복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세계가 정해놓은 기준에 자성없이 따를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나무'들을 세워나갈 힘과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행복한 나'에서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 행복의 본질을 배운 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적 부'가 높은 것이었다. 이 사회적 부는 자유도, 수평적인 사회구조, 상호신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라는 요인이 중요했는데, 모호하고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사회 안 구성원들이 즐기고 감내할 수 있어야 사회적 행복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자유를 누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개인이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행복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곤 할 수 있었다.

흔히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력 때문에, 혹은 복지구조 때문에 행복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를 매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게 되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제대로 던졌어야 하는 질문은 결국 '얼마나 부유한가'가 아니라, '나는 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혹은 '나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확장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4. 과제와 나, 나와 과제: 주체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기회

■ 첫 번째 과제, 나만의 쾌의 나무 세우기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교수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3가지 이벤트를 예측해보라고 하셨다. 미래로 앞서나갈 준비에 바쁜 수업들 사이에서 그건 단비와도 같은 질문이었다. 내가 적은 것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 책을 쓰는 것,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세 가지였다. 그러나 정말 이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지는 쓰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학기 말이 되자, 이 질문의 진가가 드러났다. 학기말 과제가 학기 초 예측했던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스스로 재평가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제는 '나만의 나무(쾌의 경험) 세우기'에 관한 과제였다. 단순히 학습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이용하고 스스로 연구 자료들을 더 찾아보며 사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다.

내가 미국 유학과 관련되어 찾은 논문은, 유학 경험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었다. 유학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 실험 대상이었는데 유학 경험이 없는 집단은 다시 유학 계획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유학 계획을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유학 경험만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책이 팔린 권수에 따라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논문을 찾아보았다. 책이 0권에서 N권으로 처음으로 팔릴 때, 개인은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행복도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권수별 증가, 즉 양적인 변화를 겪을 때에는 예측값만큼 실제 행복감이 증가하지 못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책을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면 행복을 얻겠지만, 그것이 팔린 권수와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을 것이란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논문은 '관계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의 효용에 대한 논문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 역시 관계 지향적 사고의 일부로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내향적인 사람이 '관계 지향적 사고'를 지니고 산다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효용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서은국 교수님도 저자로 참여하신 이 논문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는 논문이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 배운 내용 중 하나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외향성'이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였다. 그러나 이 외향성은 많은 부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데, 나와 같이 내향적인 사람은 행복에 불리한 것이었다. 금수저, 은수저, 이제는 '행복수저'까지 있다 싶은 생각에 참 절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저서에서 이런 내향성을 유전적 '짐' 정도로 해석해주셨다. 즉 등에 진 짐이 남들보다 무거워도 '사람'이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극이니 외향적인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또 논문 결과처럼 관계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이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으로 나의 사고를 직접 수정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하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나의 사고를 직시하고 수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이것이 학업의 순기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두 번째 과제, 질문의 늪

한 학기 내내 진행되었던 질의응답 방식도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께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다. 질문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날에는 이 과제가 참 부담스러웠기도 했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될수록 실시간 수업마다 마치 라디오 DJ처럼 우리의 질문을 읽고 답변해 주시는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이 새롭고 재밌게 느껴졌다. 몇십 년 동안의 연구 내공으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소해주는 답변들을 들으며 없던 지적 호기심도 자라나는 기분이었다. 매번 몇백 개가 넘는 질문 중에서도 주요한 질문들이 추려졌는데, 그 질문 안에 내가 쓴 질문도 간택될 수 있을지 점점 기대하게 됐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매 수업마다 궁금한 마음을 만들어 내고, 또 질문을 찾아내게 해주었다. 어느새 매주 고심해서 질문을 적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세 번째 과제, 학습자에서 참여자로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측정도구들(ex. 페이스 스케일, 사다리 스케일 등)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작동원리도 맛볼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와 정서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기 위해 그간 학계에서 진행된 노력들을 보면서 나의 사고가 얼마나 좁았었는지 느꼈다.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세상은 정말 넓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파헤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노력들이 너무 인상 깊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문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내가 직접 심리학 연구의 실험대상자가 되어 설문에 참여하는 과제들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도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적인 나의 성장

■ 첫 번째, 전공수업의 한계 뛰어넘기

사회과학 분과의 수업을 들으며 경영학 전공수업에서 다루던 개념들을 학문 간 경계 너머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옵션'에 대해 배웠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재무학에서는 '옵션'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으로 본다. 어떤 옵션이든 가지고 있으면 기업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때문이다. 재무강의에서 옵션에 대해 배웠던 날, 나 스스로도 내 인생에 많은 옵션, 즉 선택권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행복학이 정의하고 있는 옵션은 그것과 달랐다. 각 옵션, 선택 상황별로 행복의 예측값과 실제값을 측정한 실험에서 실험대상자들의 예측값과 실제값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행복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옵션의 존재는 인간의 판단을 오히려 흐리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몸이 한 개이기에 비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 가지 상황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을 과대평가하거나, 정말 중요한 요소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행복학에서의 옵션은 다다익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재평가하며 한 가지 개념과 정의를 여러 상황과 맥락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세상은 단순히 기업과 돈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 유기체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체계를 익히게 되면서 나는 인간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또 한 심리학 논문들을 다수 접하며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스스로 읽어내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어떤 상황이나 의사결정 시에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 지적 연결 지평을 넓혀, 새롭게 배우는 어떤 개념이든 열린 태도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두 번째, 나의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마지막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본인의 삶에 큰 즐거움이 될만한 경험들을 추구해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었다. 이 시대의 강박과도 같은 행복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라고 나는 해석했다. 행복의 본질은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경험들을 진취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제일 잘 알 듯, 자기 삶에도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일궈나가는 태도를 수업을 통해 가지게

되었다. 서은국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삶의 곳곳에 '쾌감폭탄을 설치하라'¹⁾는 조언을 하신 바가 있다. 어차피 인간의 뇌는 어떤 자극이든 결국 적응하기 마련이기에, 어떤 것이 영원히 나의 행복을 보장해줄 거란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매일 매일의 곳곳마다 그런 쾌의 경험들을 심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삶이 마치 방이 달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곰팡이 핀 방이 있을 수도 있고 깨끗하고 별이 잘 드는 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는 것이라곤 배웠다.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책에서도 교수님께서 긍정 정서의 경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다. 긍정정서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마음을 크게 먹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지 만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은 큰 그림을 볼 여유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그러한 긍정 정서들을 통해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되는 것들에 집중해서 큰 기동과 계획을 먼저 세워나가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 세 번째, '행복한 나'에서 '행복한 사회'로

나의 행복을 넘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실질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풍파를 견디며 살아간다. 수렵채집 시대처럼 사자나 곰과의 결투에서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자와 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와 거듭하는 지식과 기술들 사이에서 가끔은 설 자리를 잃고 흔들리기도 한다.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공황으로 자신과 세계의 조화를 이룩해내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²⁾. 그 중 나의 또래인 20대의 우울이 가장 심각했는데, 20대는 4명 중 1명 꼴로 '위험한 우울 수준'을 가지고 있다³⁾고 한다. 나는 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이 주체적으로 행복을 쟁취해나갈 힘을 잃은 것에서 비롯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1) 임동근. (2016.11.10.). 서은국 "삶 곳곳에 쾌감의 폭탄을 설치하라",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39>

2) 유수인. (2021.09.09.). "살고싶지 않았다"...청년들의 사연,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070111>

3) 김지은. (2021.05.05.). 20대 넷 중 한명 '위험한 수준 우울' ...심한 우울은 30대 2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3973.html>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부각하는 사회 분위기⁴⁾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상호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전공수업에서 가장 흥미 있었던 조직 행동론과 인적자원관리 수업들을 이와 연관지어보고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개인이 조직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와 정책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또 조직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집단 안에서도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앞으로 탐구해가고 싶다.



무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한 학기 동안 행복의 과학 수업을 통해 나의 무지를 깨달았고 앞으로 새롭게 배울 모든 것들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고하는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저력을 키울 수 있었다. 냉정과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오신 교수님을 보면서도 한 학기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교수님께서 연구결과들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실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서 나는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그러한 자기인식으로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결국 대학원까지 학업을 이어나가고 또 해외에서도 유학을 하겠다는 목표로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와 세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을 진취적으로 경영해 나가고 싶다.

수업을 통해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재즈연주와도 같다는 것이다. 그전까지 나는 인생이 거창한 오케스트라 연주곡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 연주를 오차 없이 잘 해내는 것.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 내가 깨달은 인생은 여러 가지 악기가 언제든지 즉흥연주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재즈연주에 가까운 것이었다. 비가 온다면 빗속에서, 파도가 온다면 파도를 타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었다. 정해진 연주곡은 없기에 앞으로 내게도 계속 즉흥연주가 필요할 것이다. 폭풍이 올 때도 있을 것이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한 명의 즉흥연주자로 계속 꿈을 향해 두 뼉뼉 살아나가고 싶다.

4) 임동근. (2016.11.10.). 서은국 "살 곳곳에 쾌감의 폭탄을 설치하라",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39>

참 · 고 · 문 · 헌

- 유수인, "살고싶지 않았다" ...청년들의 사연, 쿠키뉴스, 2021년 9월 9일,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070111>
- 김지은, 20대 넷 중 한명 '위험한 수준 우울' ...심한 우울은 30대 2배, 한겨레, 2021년 5월 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3973.html>
- 임동근, 서은국 "살 곳곳에 쾌감의 폭탄을 설치하라", 세이프타임즈, 2016년 11월 10일,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39>
- 조영태 외 공저,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김영사, 2019년 5월 15일,

02

같이의 가치, CLAP

우다현(융합실무법학), 원민지(국어교육과)
이윤채(영어영문학), 차도연(보건행정학)
차지민(신문방송한국문화)

지도교수 : 최건아



1. 겨울이 보낸 편지

1) 이런 교양수업이 있다고?!

이런 강의가 있구나,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교양 강의였다. 일 년간, 여러 전공의 선후배, 동기들과 조를 이루어 활동하는 교양수업. 또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여러 방식의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수업. 교수님께 처음 추천받았을 때 몹시 놀라웠다. 우선 일 년간 여러 전공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장 2학년만 되어도 타과의 친구들과 그룹 활동은커녕 자주 만날 일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위해 '반드시 책을 읽어야만 한다.'는 조건은 독서습관을 잡아주고, 다독가로 태어날 수 있게 해 줄 것만 같았다. 다양한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끌어내 토론하고, 또 이것을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접목하는 활동들이라니, 박수가 절로 나왔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강의라면 좋은 강의임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또한 인문이나 사회, 과학, 예술 중 어느 한 분야를 좋아하더라도 모두를 아우르며 탐구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이 흔치 않는데, 그야말로 융복합을 이해하고 융복합 기반의 토론을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CLAP에 지원하게 되었다.

2) 뭐?! ZOOM에서 처음 만난다고?

수업에 사용될 교재 리스트를 확인하며 어떤 책을 읽게 되는지, 어떤 독후 활동을 진행할지 기대감에 몹시 설레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되었는지, 조 편성표를 확인하면서 다가올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기대감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했다. 팀 활동이고, 여러 방식의 독후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만나서 진행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2020년 1학기 첫 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공지를 전달받았다.

풍선 부풀 듯 커지던 설렘, 긴장과 초조함, 앞으로 마주쳐야 할 과제들에 대한 즐거운 예측과 걱정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평 터지듯 사라졌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화면으로의 첫 만남,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활동을 시작했다. 한 팀으로서 처음으로 함께한 활동은 책에 대한 토의였다.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 진행과 첫 만남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서툴러 생각과 다른 모습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러 강의실에 적은 인원씩 나눠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강의실마다 카메라와 마이크, 거리두기 안내지가 놓인 상황이 어색했지만, 마스크 너머로 진심을 다해 소통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가며 기대하던 모습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2. 책과 함께 펼친 봄

CLAP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독서 중심 전인교육과정이다. CLAP 1은 1학기 과정, CLAP 2는 2학기 과정으로,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전면적으로 조화롭게 육성하는 전인교육을 통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강의의 모든 활동은 '사람, 세상, 미래'를 테마로 하여 인문·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망라한다. 또한, 강연, 독서 토론, 팀 활동이 결합한 종합형 수업으로 수강자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깊이 있게 천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담임 교수님(국어교육과 최건아 교수님), 운영 교수님(교양학부 김영균 교수님)의 노력이 있었다. CLAP은 주 담당 지도교수님을 두고 있지만 주차별로 다양한 강연자가 참여하는 특색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최건아 교수님은 CLAP의 전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조를 편성하고 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셨고, 토론, 독서의 방법 등을 지도하는 데 열성을 쏟으셨다. 김영균 교수님 역시 전체 교육과정 기획과 학생 평가에 참여하시며, 인문, 철학 방면의 도서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힘쓰셨다. 두 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연자들에게 매주 색다른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우리는 한 과목에서 참으로 많은 멘토들을 만나게 된 셈이다.

1) 넓어지기

CLAP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양 수업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 영역의 외부 강연자를 만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학습 목표에 따라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지만 수박 겉핥는 식이 아닌 깊이 있는 강연이 진행되고, 도서와 팀 활동이 연계되어 강연에서 습득한 지식을 팀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 문제, 고대 철학으로부터 배우는 도덕,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아동 인권 문제,

미래 사회에 갖추어야 할 능력,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자와 더불어 삶과 세상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2) 깊어지기

CLAP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인문, 사회, 과학 등 여러 주제의 독서 토론을 통해 독해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주 책을 읽은 뒤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학, 사회, 철학, 과학, 역사 등 분야를 막론한 도서를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했다. 책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책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조별 활동을 진행하거나 독서 토론을 진행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독서 골든벨을 통해 강의에서 다뤘던 책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을 막연하게 느꼈던 우리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토론을 이어가곤 했던 것은 분명 놀라운 변화였다.

3) 같이하기

CLAP은 학생 주도 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아이디어 개발 및 실천하기를 중요한 목표로 둔 강의이다. 조별로 진행한 여러 활동 중 지역탐방 활동 주간에 기억에 남는다. 이 주간에는 충청북도 내에서 낙후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찾아가 그곳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추후 보고서 작성이나 PPT 제작을 통해 청주 고인쇄박물관, 청주 내수 운보의 집,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찾아가 지역 홍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팀워크와 리더십은 직접 참여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3. 여름을 맺다

책과 함께 봄을 펼치고, 새 학기에 적응하다 보니 벌써 우리는 여름을 맺어가는 시점에 도달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열매가 맺힘을 의미한다. 이렇듯 우리는 여름(果)을 맺었고, 또 여름(夏)을 맺어간다.

1) Essay So Easy

학기를 종강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데, CLAP은 이 중간, 기말 시험을 에세이 작성으로 대체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CLAP 수강생들은 매 수업 진행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에세이를

작성한다. 이 특별한 방식은 한국 교육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주입식 또는 주문식 교육과 달리 학생의 능동성이 반영되어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일정한 점수를 넘기면 좋은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평가방식이 그 과정에서도 학생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CLAP을 수강하기 전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지만, 학생 대부분은 글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지레 겁을 먹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CLAP을 수강하는 동안 에세이 과제를 통해 글쓰기에 자주 노출되면서 우리는 작문을 통한 소통 방식에 점차 친숙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친숙함은 글쓰기에 대한 즐거움으로 변화되었다. 글쓰기에 대한 즐거움은 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지적체를 갖춘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2) 이상(理想)한 독서, 이상(以上)할 우리

평소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흥미와 관심이 기반되지 않은 책은 하기 싫은 과제를 하듯 억지로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CLAP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었다. 소설이나 개인의 생각을 담은 수필 등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호하기에 과학이나 철학 등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은 수업하기 며칠 전부터 나를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가! 혼자서는 읽기 힘들었던 도서를 함께 읽으니 전혀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산을 넘고 나니, CLAP의 강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CLAP의 큰 강점은,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읽음으로써 독서 편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수업은 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개인의 독서 편식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환경' 주제를 맞이하여 진행된 수업은 그동안 비주류라고 여겼던 도서를 접하는 첫 발판이 되었다. 해당 주차에는 조마다 환경 관련 도서를 직접 선정하여 읽어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조절 능력은 화학약품에 흠뻑 젖은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살충제가 해충뿐 아니라 그 천적인 새들도 함께 죽이기 때문이다.”¹⁾

1) 레이철 카슨(2011),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138

“벌레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결국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부드러운 날개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²⁾

라는 구절이 나왔던 『침묵의 봄』이 크게 기억에 남는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원시적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끔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³⁾을 깨달으며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에게 돌아옴을 통감했다. 이후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지워지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깊게 고민하였다.

『침묵의 봄』을 읽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 자연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지구가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임을 인지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대한 환경 관련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생명 존중과 과학’ 주간에는 과학과 철학 이슈를 함께 다룬 『완벽에 대한 반론』을 기반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 이후 조별 토론을 통해 과학을 바탕으로 생명을 대하는 철학적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책 한 권으로 과학과 철학,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학생들이 어려워하여 김영균 교수님께서 강연과 토론에 앞서 영화 <가타카>를 시청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셨다. <가타카>는 우월한 유전자에 의해 사회적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공 빈센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영화는 우월한 유전자 제롬으로 변한 빈센트를 보여주면서 과학의 발전이 완벽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최고의 수단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전자에 의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세상이지만 결국 꿈을 위한 노력과 전력이 유전자와 과학을 이길 수 있음을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 윤리의 불편함, 유전적 특성 조작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더라도 생명공학, 과학의 발전에 손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생명 존중과 과학의 발전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할까?

생명 존중, 윤리 그리고 과학의 발전, 생명공학. 그 사이의 갈등과 수많은 질문, 다양한 의견, 사례 등을 『완벽에 대한 반론』에서 읽어 볼 수 있었다. 과학과 공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었

2) 레이첼 카슨(2011),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154

3) 레이첼 카슨(2011),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325

지만, 동시에 과학이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조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두 입장 모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책 내용 중 토론에서 주제가 된 내용은 ‘자녀를 가질 때 유전자 선택’에 관련된 것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를 갖기 위한 유전자 선택을 한 커플이 나온다. 이 커플은 둘 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청각장애인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자녀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선택을 하게 된다. 이와 비슷하면서 반대의 사례로 우월한 유전자의 자녀를 갖기 위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여성의 난자를 받기 원하는 불임부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쌍의 커플 모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녀를 갖길 원한다. 이 두 사례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다르다면 그것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든 생각은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이지만 이 이유만으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학과 생명공학이 발전되는 사회에서도 생명과 인간에 대한 윤리, 존엄성이 먼저 생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의료가 발전하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윤리와 존엄성이 무시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인문, 사회,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흥미 위주의 독서뿐 아니라, 생각을 키우고 관점을 넓혀주는 독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어릴 적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크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CLAP에서의 다양한 독서를 골고루 읽는 습관은 우리의 관점을 넓혀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었다. 우리는 이상(理想)한 독서를 통해 이상(以上)할 것이다.

4. 여름이 남긴 발자국

1) 열정의 발걸음

앞서 말한 듯 우리는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독서기반 수업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 사고 등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견을 없애는 등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 변화 속에서 깊게 영향을 받은 두 가지 수업이 있다. 첫째는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도서를 기반으로 사람을 테마로 했던 강의이다. 둘째는 『넛지』도서와 함께 두들아트를 통한 비주얼 씽킹 활동 및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주제로 세상을 테마로 했던 시간이다. 이 두 가지의 강의로 우리는 이후에 지역 아동을 위한 독서교육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된다. 그리고 독서를 바탕으로 수업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껴 독서교육으로 봉사하고자 했다.

CLAP의 여러 주간 중 인권에 초점을 둔 수업 시간에, 우리는 가족, 차별과 훈육, 동반자살 등의 이슈를 담은 『이상한 정상가족』 도서를 읽게 되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 김희경이 가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풀어낸 책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가족'을 비판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과 가족주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기점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 사회적 문제를 기반으로 작성된 책 등에 대한 나의 관점이 변화했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 나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 책 안의 '나'의 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게 된 도서였다. 이 도서는 봉사의 대상이 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독서 교육 봉사의 밑거름이 되었다.

책의 초반에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 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고 차별하며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⁴⁾ 라고 설명한다. 책을 읽기 전 이처럼 가족의 형태를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구절과 함께 책을 읽어나가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런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 입양, 동반자살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책을 읽기 전에는 동반자살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이 자살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보니 아이와 부모가 동반자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저자는 아이와 부모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내용은 아동 인권이 가정에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앞서 말한 아동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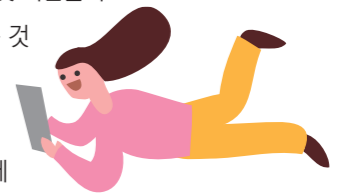
이 외에도 아동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을 위한 복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더불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느낀 것과 어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마을이 되어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대상자를 아이들로 선정했다. 또한, 전자매체에 접근성은 높아지고, 아이들은 독서와 멀어진다. 그에 따라 아이들의 집중력, 사고력, 상상력 등이 저하되는 등

4) 김희경(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사이아, 10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했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과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접목해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세상을 테마로 한 『넛지』와 함께 두들아트를 통한 비주얼 씽킹 활동 및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활용하여 교육 봉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신경순 작가님과 함께 했던 활동도 교육 봉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CLAP의 후반부에 만화 작가 신경순 선생님과 비주얼씽킹 활동을 하고, 생각을 낙서처럼 자유롭게 옮겨 그리는 두들아트를 경험하였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라는 말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강사님의 '낙서처럼 부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씀 덕분에 금방 적응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의 첫 시간을 두들아트로 진행했다. 아이들을 생각의 틀에 가두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에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들아트를 교육봉사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첫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긴장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



넛지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한다.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2009), 『넛지』, 리더스북, 21

우리는 강의에서 배운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봉사를 운영했다.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두 번째 수업 이후, 우리는 독서를 아이들 곁에 부드럽게 개입시키기 위해 넛지를 활용했다. 그 예로 독서 교육에 놀이를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독서를 해야만 놀이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재치 있게 넛지를 활용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아동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봉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2) 소담 : Book적Book적 여름 독서 캠프

위와 같이 열정의 발걸음으로 나아간 독서 교육봉사 내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는 CLAP에서 독서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고자 독서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소담'을 결성했다. '소담'은 소소한 이야기의 줄임말로 독서란 어렵지 않고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소담은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독서와의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미비하거나 대학생이 시행하는 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을 고르고 최종적으로는 옥산을 봉사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 소담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첫 번째 봉사를 시작했다. 첫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듯 CLAP 수업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두들아트 수업을 바탕으로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 첫 번째 봉사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금방 위기를 맞이했다. 두 번째 수업부터 책과 연계한 수업들을 준비해갔으나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이를 없애기 위해 두 번의 봉사를 통해 파악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놀이, 그림 그리기 등을 접목한 독후 활동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그렇게 프로그램은 책의 결말 예상하기, 책 속 한국사 인물로 빙고하기, 이전에 수업했던 책들로 독서 골든벨 하기 등 흥미를 갖도록 프로그램들을 수정했다.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시간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우리와 우리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조건 즐겁다고만 할 수 없었던 봉사이지만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때로는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웃을 수 있었고, 봉사가 진행될수록 더 열심히 참여해주는 덕분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에서 소담 봉사자 총 15명의 이름을 외워주는 아이들에게 감동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는 배움을 통해 얻은 것을 나누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기획한 활동에서 보람, 성취, 감동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5. 가을하다: 말(言)이 살피는 계절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즉,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CLAP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배움이 가치롭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한 활동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CLAP은 교육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강의라고 생각된다. 가장 교육다운 강의를 수강한 지금 우리는, CLAP을 통해 여전히 성장중이고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고자 한다.

1) 장독대: 장기적으로 독서하는 대학생들

팀 '소담'으로 진행한 북적북적했던 여름 캠프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독서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동의 독서습관을 형성해 주고, 돕는 활동을 진행해 보며,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이인 대학생들의 독서습관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의 독서와 관련된 여러 통계자료와 보도 자료를 찾아보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독서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아동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지속해서 독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담의 뒤를 이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기로 했다.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을 위해 '장독대(장기적으로 독서 하는 대학생)팀'을 결성했다. 대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원하는 책을 선정하여 매일 30분씩 같은 시간에 읽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진행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장소 선정 문제와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자 ZOOM을 이용하기로 했다. 비록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행되었지만, 기획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실제 독서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고, 독서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독서에 꼭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점, 즉 독서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면 대학생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2) 지금, 우리는

[우다현] 누군가가 4년간의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CLAP 수업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만큼 CLAP 수업은 나의 대학 생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양 수업이었다.

우선 CLAP 수업을 통해 넓은 대인관계를 구축함에 감사하다. 우리 강의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후 이들과 교내 및 교외 활동을 함께 하며 단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예로 과거에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새로운 것에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도하는 것을 꺼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췄었다. 그러나 CLAP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육 봉사,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에 따른 성취를 얻는 과정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후 나는 교내 공모전, 장학 사업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 교양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였고 더 큰 꿈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CLAP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나에게 자극이 되었다. 도전해서 배우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였고 더 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CLAP을 통해 나는 성장하였고,

CLAP을 통해 여전히 나는 성장 중이다.

[원민지] CLAP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CLAP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혐오차별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그 중 특히, 업선희 변호사님의 수용자 자녀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지금까지 수용자의 죄목과 형량만 생각했었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수용자 자녀의 처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수용자 자녀가 양육자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뿐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비롯한 심리적·정서적 학대상황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 없는 문제라서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에서만 생각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CLAP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아동이 아동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윤채] 누군가와 '같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개인주의'의 힘이 세지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협동심'은 여전히 강조되는 교양이다. 나는 그 '같이'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 년간의 CLAP 수업을 통해 배웠다. 대학 생활 중 가장 힘든 일은 조별 과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와 함께 긍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CLAP 활동에서 '같이'한 활동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는 그 이유가 존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흔한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내고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저 그 의견 자체로만 판단하여 존중할 것, 개인적인 감정과 그 의견의 가치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는 일 년간의 수업에서 몸소 배웠다. '같이'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시행할 줄 알게 된 것은 앞으로 내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차도연]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참여해본다는 조별 활동을 나는 CLAP을 통해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CLAP 속 만난 조별 활동은 꿈꿔왔던 이상적인 활동 그 자체였다. CLAP 수업과 수업에서 다룬 도서를 통해 살아가면서 필요할 여러 덕목을 배운 조원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

다. 우리는 같은 목표 아래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그의 결과물을 책임져가는 과정을 거쳤고, 나는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소통의 과정 속 조원들의 경청과 존중해주는 태도 덕분에 나는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나는 수업을 통해 차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그 여정에 이제는 팀장으로 조원들을 존중해가며, 조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닌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워나가고 있다. 이 과정 속 생기는 어려움의 경우 역시 수업 중 다뤘던 도서, 만났던 강연자분들을 통해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시련을 헤쳐나가고 있다. 나는 CLAP을 계기로 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고, 사회의 문제들을 인식하기도 했다. 이렇게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천하고 나누고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잊은 채, 도전하고 부딪혀나가고 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나만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차지민] CLAP 수강 이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시야의 확장'이다. 2020년도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는 것으로 시작했다. 약간의 우울함 속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고, 내가 가야 할 진로나 정확한 목표 없이 CLAP 수업이 시작됐다. 새로운 사람들이 주는 약간의 어색함도 없이 조원들과 어울리고 독서하고,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나 있었고 지나간 시간만큼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1년을 바탕으로 현재의 '나'를 돌이켜보자면 한 가지 진로에만 매달리지 않는 나를 찾을 수 있었다. 하나의 진로만 깊이 파고들어 수년간 그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찾아가고 있다. 한 가지씩 경험해 보며 여러 분야로의 성장을 위해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 CLAP을 통해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있다면 공동체, 팀의 중요성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채워줄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책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다.

03

어린 시절 간직했던 수수께끼가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까지

이원정(응용수학과)



1. 어린 시절 간직했던 막연한 수수께끼

〈질병의 진화적 이해: 우리는 왜 아픈 걸까〉. 처음 이 강의에 눈길을 사로잡은 건 제목이 길어서였습니다. 질병의 진화적 이해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아픈 걸까 까지 덧붙인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계획서를 읽었습니다.

“암은 왜 생기는 걸까? 감기는 왜 걸리나? 질문의 가장 인기 있는 대답은 의학적 암세포의 세세한 병리적 ‘상태’를 설명하거나 암이 생기게 된 개인/환경적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왜’ 암에 걸리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지는 못한다.”

질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질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질병은 인생의 선택에 분명한 제약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현재까지는 어떻게 치료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의학프로그램을 시청하여 시각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질병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생명과학 뉴스 구독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적 시사점을 배웠습니다. 나날이 업데이트되는 저널과 논문들 과도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의계획서처럼 질병의 병리적 상태나 환경적 원인에 저는 줄곧 집중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질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화적 측면에서는 접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속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과학’, ‘실험관찰’이라는 교과서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고 ‘왜 인간이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세기가 거듭될수록 인간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건데 왜 아직 질병에 시달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상상했던 미래의 휘황찬란한 발명품들과는 대비되는 인체의 모습 같았습니다.

참 · 고 · 문 · 헌

- 김희경(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 우영진 외 3인(2018), 『디자인 씹킹 수업』, 아이스크림 미디어
- 레이첼 카슨(2011),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2009), 『넛지』, 리더스북

〈별첨자료〉

- ‘소담’ 활동 보고 ppt

학창 시절에 배웠던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 수없이 읽었던 과학책들. 이들이 그 의문에 답을 주기도 했고,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왜 꼭 죽어야만 하는지, 죽음으로써 끝이 날 수밖에 없는지, 그냥 계속 살 수는 없는지 의문의 꼬리표가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잠재있던 호기심을 애써 외면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강의계획서 속 물음을 보는 순간, 풀리지 않았던 저의 수수께끼의 해답 그리고 앞으로 저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출발점이 이 강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첫 번째 강의 때 '왜 인간은 질병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나 그리고 못했나.'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간직했던 의문을 풀기 위해 한 학기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수수께끼의 소스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2. 인생 교양 강의 '질병의 진화적 이해: 우리는 왜 아픈 걸까'

제가 선택한 인생 교양강의의 명칭은 '질병의 진화적 이해: 우리는 왜 아픈 걸까'입니다. 담당 교수님은 한의학박사로 우리 대학교 생체의공학과에 재직 중인 박경모 교수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는 하지 못하였지만, 실시간 화상 수업 속 채팅을 통해 쌍방향 소통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중에 수강생마다 다른 인터넷 환경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수님께서 직접 녹화하신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모든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답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참고될만한 책을 알려 주시으로써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왜 감기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물음을 화두 삼아, 진화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감기를 예시로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가져야 할 질병의 진화적 접근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질병의 흐름에 대해 배우고 그렇게 진화한 현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질병의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그 방향성을 이어나갔습니다. DNA나 유전자와 같은 기초적인 생물 지식에서, 호흡 과정이나 시각 시스템과 같은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체 지식 거기에 중간중간 추가된 심화된 지식까지. 원래 알고 있었거나 수업을 통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된 새로운 정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들의 진화적 원인을 배웠습니다. 유전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질병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유전형질을 가지게 되

었는지를 생각하는 방법을 체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된 비만, 당뇨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증상과 팬데믹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강의의 근본적인 최종 목표는 수강생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질병에 대해 기존과 다른 관점을 가져보고 좀 더 현명하게 그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진화적 역사가 인간의 질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질병의 생물학적, 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그 질병들이 어떤 진화생물학적 함축을 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은 교수님의 체계적인 다양한 흐름을 따라 이러한 강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여러 번의 회수를 통해 수업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 정도를 평가받았습니다. 총 16주차로 진행되는 수업 중에 3번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번의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보고서는 제시된 '부교재'나 '참고문헌' 중에서 보고서마다 각각 1권씩 도서를 정하여 정독하고 그와 관련된 자기의 생각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책의 요약은 적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이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을 써야 합니다. 책마다 책의 두께는 다르겠지만,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대부분의 책 내용이 한 학기 재학 중 틈틈이 시간을 쪼개 읽지 않으면 결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책의 내용을 옮겨 적을 수 있는 보고서보다 직접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으로 강의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보고서 활동은 지혜의 힘을 기른다는 강의 목표 특성상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이 모두 끝나면 제출하는 3차 보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질환 보고서'입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자주 앓거나 가진 질환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질환의 특징을 보고하고 한 학기 동안 배운 진화론적 관점을 통해서 그 질환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신의 논리를 펼쳐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사실상 강의 목표와 딱 맞는 평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책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질병의 사례들을 제외하고 현재 직접 관심 있는 질병을 수업 시간에 배운 사고방식을 접목한 나만의 사고 논리를 통해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보고서 점수를 통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의를 통해 질병의 진화적인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의료화'와 '탈의료화', 담배 속 니코틴과 같은 알칼로이드가 중추신경계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 유성생식에서 비롯된 막대한 손실과 그러나 기꺼이 감수하는 개체들, 인간의 성적 생애사, 인수공통감염증의 메커니즘 등. 이들에 대한 이해력도 강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였고 답을 수기로 적음으로써 이 교양 강의의 특색이 잘 드러났고, 강의 목표와도 부합한 것 같습니다.

3. 새로 배운 사고의 주안점

이 교양 수업을 통해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즉, 인간의 질병을 생물학적 그리고 역학적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더불어 진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사람은 화상을 입을까요?'라는 질문에,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지식을 덧붙인다면, '뜨거운 것 때문에 세포가 견디지 못해서 단백질이 손상되고 변형되면서 세포막이 터지고 그러면서 화상이 생긴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생명 지식을 배우면, 응용은 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화적인 관점을 덧붙인다면, 우리는 '왜 인간은 화상이라는 것을 입게 되었나?'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들의 행동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 외 다른 동물에도 화상이 자주 있을까?'라고 의문이 든다면, '아마 산불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고, 또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해서 진화했다면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과도했을 거야.'라고 생각의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불을 다루고 뜨거운 공정들을 다루기 이전에는 아마 화상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상은 유독 다른 상처에 비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낫지 않았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그럼 인간 스스로는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하더라? 그레 딱지를 떼잖아.'처럼 현재의 치료 방법의 이유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딱지를 긁고 안의 죽은 부분을 떨어내면, 표피가 살아있는 층이 나타나고 그 층에서 어떻게든 몸이 치유하기 위해 활동을 함으로써 화상이 치유되겠지.' 좀 더 진화된 인간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진화적으로 많은 화상 경험이 있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면, 현대의 화상 치료법은 완전히 뒤바뀌어있겠다.'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화상도 자연스레 낫게 되어있어. 하지만, 현대의 치료법은 화상 딱지는 떼라 하지. 이걸 우리 인간이

그 질병에 대해 잘 안다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다. 딱지를 떼어 내주는 인간의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아직 이 방향으로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다'

4. 그 새로운 사고법, 나에게 적용하기 (수면장애(Sleep disorder))

최근 들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 생각이 생각을 불러올 때면 쉽게 잠이 들지 못함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수면장애(Sleep disorder)'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수면무호흡, 불면증, 기면증이 있다는 것. 실제 행동과 착각에서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감각은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는 증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환자의 수면 특징을 파악해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수면의 길이보다 수면의 깊이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한다는 것. 무엇보다 원인 제거가 우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쉽게 떠올렸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유전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수면장애라는 질병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먼저 파악했던 겁니다. 수면장애에 대해서 '그 질병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How' 질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 새롭게 배운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근접 원인뿐만 아니라 진화적 원인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장애에 대해 '왜 수면장애라는 유전형질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Why'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화는 돌연변이의 축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 환자의 유전자는 수면장애라는 질병의 형태로 돌연변이가 생겼는지', '그 돌연변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연 선택 속에서 그 유전자 형질이 살아남았는지', '그 유전자가 질병을 유발하긴 하지만 그 개체에 주는 이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건지, 맞는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등 질병에 끊임없는 'Why'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잠자는 것과 활동하는 것 중에 단순히 '나'라는 '개체' 입장에서 잠자는 것을 선호했겠지만, 지금은 '현대 인류'라는 '종'의 입장에서 번식을 위한 투자로써 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Longest time without sleep' 최대 기록도 약 264시간, 11일 정도뿐이라는 사실은 그저 놀라운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잠을 자야 한다는 근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¹⁾.

플라크 축적을 예방할 수 있는 '글림핑 시스템(Glyphatic system)'이라는 생물학적 지식은 정보

1) <Guinness World> 1964, Records Randy Gardner 11 days and 25 minutes (264.4 hours)

써 저장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면에 장점이 있다면 12시간씩, 18시간씩 자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권장 수면시간은 7~9시간인 걸까?'이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한 종에서만 현상을 바라보기보다 포유류(포유강) 사이에서 비교해본다든지, 포유류와 조류를 비교하는 등 분류도를 활용하였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음을 이 강의를 통해 직접 찾아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쥐의 경우 인간 수면시간의 2배가 넘는 대략 20시간을 자지만, 기린은 약 2시간 정도 잔다는 정보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의해 한 종에게 적절한 수면시간이 변화되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 박쥐는 동굴의 천창 속에서 천적의 눈을 피해 수면을 취할 수 있었지만, 드넓은 초원에 서식하는 기린은 수면이라는 무방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초기 인류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딱딱한 바닥에서 느껴지는 땅의 진동을 신경 쓴 것과 유사함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인류라는 같은 과(Hominidae) 내에서 현생 인류도 현대인과 수면시간은 유사했다는 연구 결과²⁾와 과거 사람들의 수면 상태에 대한 분분한 설 중 그들에게 불면증은 흔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견해, 이 두 개의 정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접목해 현생인류와 현대인의 생활환경이 달랐던 것이 수면의 '상태'를 좌우했을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현대인의 생활환경 속 전기에 주목했고, 일상생활 속 항상 접하는 전기가 비로소 확장된 사고의 단서로 남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전기의 발명으로 빛을 조절하기 시작한 현대인을 떠올리면서 '햇빛에 의해 결정되는 생체리듬'과 '자신의 실제 생체리듬', '사회가 요구하는 생체리듬'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 도입한 저만의 개념으로 현대인에게 이 3개의 생체리듬은 모두 뒤틀렸음을 판단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멜라토닌' 지식을 이용하여, 아직은 규칙성을 요구하는 멜라토닌 시스템이 날마다 달라지는 생체 리듬 속에서 망가지고 우리는 수면장애 질환을 겪게 되었음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제 생체리듬', '사회가 요구하는 생체리듬'을 '햇빛에 의해 결정되는 생체리듬'으로 맞춰줄 때, 비로소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혁명으로 만든 문명의 시대(전기)로 질병(수면장애)을 야기했고, 이미 위험을 감수해야 할 선택을

한 인류는 현대의 산업으로 생긴 질병을 또 다른 혁명(멜라토닌 시스템에 적합한 인공햇빛 발명)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의 최종 도착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멜라토닌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생화학적 지식으로 나아갈 수도, 활발하게 연구 중인 뇌과학 분야를 이끄는 생물학적 지식의 연장선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시스템에 적합한 인공햇빛을 직접 발명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야간근무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나의 삶에 미친 영향

1)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질병의 진화적 이해: 우리는 왜 아픈 걸까' 강의를 통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점은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학적 사실을 배우면 그것을 이해하고 원리를 파악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교양 수업을 통해 질병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왜 나오게 되었고, 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알면 이 과학적 사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의 선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선들이 모여 생각의 면이 된 적이 있으며 이는 바로 앞서 제시한 '수면장애' 사고 흐름입니다. 그저 불면증을 겪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에서 시작한 사고가 'How'에서 그치지 않고 'Why'로 이어졌고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시킬 가능성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내면 질문들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새로 알게 된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을 통해 이 생각하는 힘의 원천이 될 소스들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2) 책을 더욱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이 강의는 책을 더욱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도중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책을 추천함으로써 그 대답을 대신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지금껏 인터넷에서 대부분 찾았지만, 이번 교양 수업은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덕분에,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수님과 대면 질문이 힘든 상황에서 질문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는 사고의 좀 더 다양한 소스들을 찾기 충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속 진행되는 여러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 <Natural Sleep and Its Seasonal Variations in Three Pre-industrial Societies> 2015, Sleep time in the Hadza, San, and Tsimane groups was similar, between 5.7 and 7.1 hr.

예를 들어, 『우리 몸 오류 보고서』라는 부교재 중 '5장. 신이 의사를 만든 이유'라는 챕터를 통해 강의 중 배운 수많은 질병과 인간의 욕심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3) 진로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통해 진로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인간이 아직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느냐는 어릴 적 막연한 궁금증이, 이 수업을 계기로 마음 깊숙이 더욱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 잡힌 것 같았습니다. '수리 모델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정책 분석'이라는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수업에서 배운 여러 생물학적, 진화적 지식을 이용한다면, 아직 밝혀내야 할 과제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감염병 예측 모델을 비롯하여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COVID-19 Surge, WHO(세계보건기구)의 CovidSIM 등을 알아보며 저의 전공,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세상에 도움 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 · 고 · 문 · 헌

- Guinness World(1964)
- Gandhi Yetish, H. Kaplan, M. Gurven, B. Wood, H. Pontzer, P. Manger, Charles L. Wilson, R. McGregor, J. Siegel(2015), Natural Sleep and Its Seasonal Variations in Three Pre-industrial Societies

04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변화, GPS101

이선환(글로벌리더십학부), 박혜진(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유지인(ICT창업학부), 이예인(글로벌리더십학부)

지도교수 : 박대혁



1. GPS를 만나기 전 우리

1) 혜진의 이야기

■ “나 졸업하고 뭐 하고 살지?”

뭐든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어린 시절의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 그러던 중 상담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심리상담사들을 보며 ‘우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귀찮은 마음을 한쪽에 묻어두고 청소년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시작했던 봉사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친해진 후, 각자의 어려움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럼 내가 상담심리사가 되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진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꿈을 좇다 보니, 지금 나는 대학교 3학년 심리학과 학생이 되어있었다. 취준생 혹은 예비대학생, 우리가 달고 있는 꼬리표이다. 막상 대학교 3학년이 되어 공부하다 보니 상담심리사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은 직업이었다. ‘정말 이 길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 질문은 나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슬럼프가 온 것이다.

그러던 중, 박대혁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교수님은 GPS 101 수업에 관해 설명해주셨고, 나의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속는 셈 치고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2) 지인의 이야기

■ “뭘? 비대면 수업이라고?”

대학 입학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의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됐다. 기대했던 대학의 시작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실망감과 동시에 홀로 수업 시간표를 짜야 한다는 막막함이 나를 덮어왔다. 첫 대학 생활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야 했던 첫 수업 시간표는 혼란 그 자체였다. 학교에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부터, 다 같은 수업 같아 보이는데 ‘전공 선택’이랑 ‘전공 선택 필수’는 또 무슨 차이인지 너무 헷갈렸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커뮤니티에 가면 수강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엄청난 정보를 얻었다. 수강 신청을 하기 하루 전, 급하게 들어간 에브리타임에서 GPS 101 수업에 대한 카드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카드뉴스의 첫 페이지에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학생, 인생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기 원하는 학생은 꼭 이 수업을 수강하라!’라고 적혀있었다. 그 문구를 본 나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대학에 들어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목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자던 나의 1학기 목표와 똑 닮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카드뉴스를 보자마자 GPS 101 수업에 빠져들었고, 무조건 수강해야겠다고 결심했다.

3) 예인의 이야기

■ “첫 대학교, 설레는 첫 시작!”

‘첫 학기 무슨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설렘과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수많은 책자를 펼쳐보며 어떤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수업의 홍보 포스터의 문구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학생에게 이 수업을 추천해요.’

이 문구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반, ‘정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을 가진 채 강의계획서를 읽어봤다. 강의계획서를 통해 GPS 101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난 후, ‘이 수업을 듣는다면 내 정체성과 인생 목적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만의 인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Life Roadmap, 인생 계획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도 솔깃했다.

초등학교 6학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좋았던 나는 자연스레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자연스럽게 심리학과를 가기 위한 과정이 되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막상 대학을 오니, 내가 너무 한 길만 파서 다른 곳을 둘러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우울한 기분이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는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정할 수 있었다. 새내기인 지금, 1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전공을 탐색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나에게 필요한 수업이었다. 이 수업을 수강하면, 전공 선택과 비전 탐색을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4) 전환의 이야기

■ “두 번째 시작, 이번엔 꿈을 찾을 수 있을까?”

긴장 어린 마음으로 첫발을 들인 지금의 대학교는 나의 두 번째 대학이다. 나는 이전 대학에서 4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으로 재입학했다. 몇 년 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해진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이전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막상 그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 꿈이 사라지게 되었다. 목표했던 전공에 대한 꿈이 사라지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꿈을 찾고, 공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 대학에 입학하였다.

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난 학교에서 한 수업 문구를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이 문구를 본 순간, 나는 바로 ‘나를 위한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수업이라면 나의 비전을 정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업을 수강하기로 마음먹었다.

2.“GPS, 그게 뭐야?”

기대 반, 걱정 반.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였다. 첫 시간인 만큼, 교수님은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본인이 누구인지 말씀해주셨다. 사전에 수업계획서를 읽고 와서 대략적인 수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GPS 프로그램은 Global Problem Solver의 약자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수업에 대해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교수님은 우리 학교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언급하시며, "GPS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함께 찾아갈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고, 바로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 또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너희가 해결할 세상의 문제를 찾기 위해선 우선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또 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 학기 동안 너희 스스로에 관해서 탐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같은 문제를 공유한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너희가 직접 문제에 도전해보렴!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는 너희의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은 수업을 처음 들으러 간 우리에게 큰 인상을 안겨주었다. 개인의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에는 나와 내 주위 사람의 행복밖에는 없었던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내 비전도 성취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현실에 부딪혀 접었던 꿈과 비전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기대가 샘솟기 시작했다.

GPS 101 수업은 화, 금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었다. 첫 수업 날이었던 화요일은 대면 수업으로 교수님의 강의와 활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금요일은 비대면 수업으로 줌을 통해 토론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셨다. 화요일 첫 수업이 끝나고, 금요일 수업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영상을 보고 오라고 하셨다. '무슨 영상을 보라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공지를 끝까지 읽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금요일 수업은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진행되어, 금요일 수업 전에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수업에 참여하면 각 소그룹을 나눠 팀끼리 토론과 나눔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셨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동료에게 배우는 peer to peer Learning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론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금요일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셨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비싼 학비 들인 수업시간에 겨우 토론을 한다고?'라는 생각과 함께 별 기대 없이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러 들어갔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나답게 사는 법, 창직: 나만의

직업 만들기, 4차 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토론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른 수강생들의 의견, 생각을 함께 들으니 내가 영상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배가 되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교수님과 조교들이 토론 중인 소그룹들을 돌아다니며 어색한 것을 풀어주시고, 다양한 측면의 질문을 통해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다.

토론의 끝에는 소그룹에서 나와 교수님과 학생들 다 같이 토론한 것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수업이었다. 종종 다른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정한 답을 맞히는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면, 박대혁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답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처음 토론을 할 때, 우리 팀은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계속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어떨니?"라며 개인의 의견을 물으셨다. 그리고 깊이 있는 교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영상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꼭 챙기세요!"라며 항상 토론에 참여하시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셨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정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수용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오고 많은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보다는 단점들로 인해 좀 수업에 싫증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이 수업을 통해 줌(Zoom) 수업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 적절한 소그룹 활용과 교수님, 조교님들의 개입을 통해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덕분에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수업의 경우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학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생기면서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것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항상 GPS 101 수업이 있는 화,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GPS 101 수업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이 해결할 문제 찾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만의 문제를 찾아야 하기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 GPS 101 수업에서는 아래 5가지 module로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찾도록 돕는다.



Who am I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Can I change the world?

Find my gap

Build my roadmap

가장 먼저 'Who am I?' 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에서는 앞에서 확립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Can I change the world?'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며 소극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Agent 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너희가 책임자야!"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Find my gap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 사이의 격차(GAP)를 통해, 지금의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어떤 능력들을 함양해야 하는지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Build my roadmap 파트에서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하고, 활동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운다.



이 5가지 module을 워크북으로 제작한 책을 우리는 '인생 로드맵'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우리가 수업을 수강하는 동안 개인의 손으로 쌓아 올린 각자의 인생 계획서인 셈이다. 수업에서는 중간, 기말 시험이 없는 대신 로드맵을 제출한다. 그만큼 이 수업에서 로드맵은 중요한 요소이다. GPS 101 수업의 5가지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든 수강생은 개인의 인생 로드맵을 하나씩 갖게 된다. 이 로드맵은 그저 수업 제출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수업이 끝나고도 본인의 로드맵을 따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GPS 역할을 한다.

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자신의 문제와 격차(Gap)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수업에서 그 능력을 GPS Requirements라고 합니다. 이 역량들은 글로벌문제해결사(GPS)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간략히 나열하자면 5 Traits(Vision, Faith, Perseverance, Service, Sacrifice)와 Core competencies(Empathy, Creativity, Agency, Courage, Wisdom), 그리고 General skill sets(Problem solving skill, Entrepreneurial literacy, Research skill, Digit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GPS 101 수업에서는 이 GPS Requirements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하지만 문제를 찾고, 갭을 찾아 해결할 역량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에게 "언제든 어려움이 있고, 문제나 갭을 찾는 게 어렵다면 저와 조교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와 갭을 찾기를 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언제든 찾아주세요!"라고 말해주셨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교수님과 조교분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니시며 개개인 면담을 통해 수업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에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도 계속 이 역량들을 채워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필요하면 찾아주세요."라고 하신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수업은 그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소비하고 능력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가는 능력을 심어주었다.

GPS 수업의 또 다른 큰 특징은 학생들에게 커닝하라며 장려하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애들아, 서로 커닝해. 서로의 강의 노트를 참고하며 도움을 얻어!"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른 수강생을 이기지 말고, 반대로 다른 수강생을 도우라고 하셨다. 다른 수강생을 도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내가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수업 중 모든 과제나 발표자료 혹은 심지어 로드맵까지 수강생 전원에게 공유가 된 상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우리는 다른 수강생들의 과제를 보며 참고하여 우리의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다! GPS 101 수업의 수강생들끼리는 서로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를 맺게 된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없애고 협력하여 서로를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수업이었다. 지금껏 많은 다양한 수업을 들어왔지만, 이러한 수업은 처음이어서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 충격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더욱 커졌다.

3. 우리가 만난 "GPS"

■ 나를 찾아가다(Who am I? &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나에 대해 아는 것, 내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몰랐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고, 항상 '난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했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고민은 대학교를 와서도 계속됐다. 본격적인 GPS 101 수업의 시작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께서 “우리의 몸은 Body-Soul-Spirit으로 이루어져 있어. Body는 여러분의 몸이 좋아하는 것을 말해. Soul은 영이 좋아하는 것, Spirit은 혼이 좋아하는 것이지.”라며, 내가 Body-Soul-Spirit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다. 내 몸, 혼, 그리고 영혼이 각각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 셋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 또 친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활동이 있었다. 활동하면서 한꺼번에 칭찬을 이렇게 많이 듣는다는 것이 조금은 쑥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활동을 통해 나의 시각이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와 나의 강점들을 알게 되었다. 만약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나에 대해 찾았다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을 텐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하고 난 후, 나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과거의 나와 달리,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강점과 역량, 자질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자신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는 우리가 찾은 자신을 바탕으로 각자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넘어갔다. 교수님께서는 ‘인간은 의미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의미는 가치가 있어야 하고, 가치는 문제가 해결될 때 창조된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남의 문제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열쇠이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찾아내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해주셨다.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 행복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내 행복은 내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고민하는 사이, 수업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바로, ‘행복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처음 만난 조원들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직접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다. 처음 만나 어색한 상태의 조원들이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조는 현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개인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행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응원과 진심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실행한 일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생회관 게시판에 ‘이

름에게’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만들어 부착했다. 이 게시판에 학생들이 서로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응원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지나다니며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많은 학생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었고 이 게시판을 통해 한 번 더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에게 응원의 말을 찾으며 학생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진행한 일은 학생들의 사연을 받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름에게’ 게시판 옆에 사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폼을 만들어 자신이나 친구, 선후배를 응원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구글폼에 개인 사정을 일일이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사연이 많이 모일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무려 30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받은 사연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사연 중간중간에 과제와 시험 등으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교수님들과 전공 선배들의 편지를 읽어주며 진심을 전달하였다. 사연과 편지를 읽어주며 우리 또한 사연의 주인공이 된 듯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행복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던 이유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2주라는 단기 프로젝트였지만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전하고 밝게 웃으시던 많은 분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미소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우리가 2주 동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를 통해 많은 분이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 기억은 나의 가치관의 중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의 가치관인 행복은 ‘나의 행복’으로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인의 행복’을 중점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가치관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시 들었던 교수님의 강의는 새로움 그 자체였다. 사실 나도 항상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야 하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기에 ‘돈이 인생의 의미가 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였다.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고,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를 각각 상상해보았다. 그 결과, 내가 생각하는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부자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일반인은 밥을 먹고, 부자가 주택에 살 때 일반인은 아파트에 사는 그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저 나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인생을 살기엔 너무 재미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미 있는 인생이란 뭘까’, 항상 생각했었지만, 답

은 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GPS 101 수업은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남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어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GPS 101 수업을 통해, 우리는 Empathy와 Anger를 통해 각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배웠다. 'Empathy와 Anger? 그걸로 어떻게 각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는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Empathy는 나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진짜로 안타깝게 느끼고 심지어 가슴이 아프기까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문제를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너를 가장 화나게 했거나 짜증나게 했던 문제들을 찾아봐. 그게 Anger야. 이 두 가지를 통해 너희가 공감하고 분노를 느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너희 각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어."라고 말씀해주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분노나 공감을 했던 문제를 찾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자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기록부를 채우고, 수능을 보고 고등학교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렸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항상 이 말을 반복했다. "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해도 안 될 것 같아." 친구들 모두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없이 되묻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하여 불가능을 전제하며 체념한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Empathy를 느꼈던 대상은 바로 내 친구들, 수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안타깝고, 현재 교육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히 어른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 "학창시절은 금방 끝나,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주위 어른들은 이 문제를 그저 어린아이들의 푸념 정도로만 치부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껴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지레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가 그런 부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기에 교육 분야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GPS 101 수업이 나의 어렸을 때 꿈을 다시 생각나게 했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 문제가 맞다는 확신을 주었다.



■ 나를 새롭게 하다(Can I change the world?)

청소년들이 현재 교육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는 확신은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교수님이 강의 도중 하신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뇌리에 꽂히게 된다. "네가 찾은 문제는 네가 직접 해결한다."라는 말씀이었다. 이 문장을 곰곰이 되뇌다 문득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라는 의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불가능이라고만 생각했던 꿈을 누군가가 꿀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리고 도전을 망설이고 있던 와중에 '성공하면 지위가 올라가지만 실패하면 레벨이 높아진다.'라는 교수님의 강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실패는 패배와 같다.' 내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항상 도전할 때, 성공 가능성을 따지고 실패 확률이 높은 일에는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은 실패,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GPS 101 수업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용기는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수업에서 과제의 두 유형 중 선택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을 가진 수업이 있었다. 한 유형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다른 한 유형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었다. 전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과제를 선택하여 과제를 통해 무엇을 얻기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미숙하지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두 번째 유형의 과제를 선택하였다. 처음 선택했을 때는 불안한 마음도 크고 내가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았지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더욱더 흥미를 느꼈고 더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확신도 하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착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진정한 문제해결을 통한

사랑 실천이라고 알려주셨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실제로 문제해결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GPS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구체화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팀들도 많기 때문이다. GPS 101 수업에서는 이렇게 도전하는 팀들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학생들이 이 도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중 '차칸차(CKC)팀'이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차칸차팀은 케냐의 티피커들이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공정무역이나 사회적기업이란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티피커'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차칸차팀의 차별화된 부분인 것 같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의 케냐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Tea Picker (티피커)'라고 불리는데, 종일 차밭을 따는 티피커 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기에 기본적인 주거나 청결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차밭을 따는 과정에서 티피커 들의 머릿기름이나 카레 가루, 음식물 조각 등이 때때로 발견된다고 한다. 차칸차 팀은 이러한 부분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티피커들이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받도록 도와서 그들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소비자들도 덩달아 착하고 청결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소비자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물건을 구매한다. 선한 가치를 가진 상품들을 좋아하고 소비하는 추세이다. 차칸차는 티피커들의 이야기를 브랜드화시켜 소비자들이 선한 상품을 사는 것에 동참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차칸차 팀은 3학기 동안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고, 현재 CKC Korea 회사의 법인을 세웠으며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 차칸차팀의 이야기를 들으며, GPS 101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화되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와 동갑이거나, 고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 주 팀원으로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내가 찾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선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 나를 계획하다(Find my gap&Build my roadmap)

GPS 101 수업을 통해 우리가 찾은 문제를 정의한다면, '꿈과 목적이 없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청년, 청소년들'이다. 수많은 시험과 평가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교육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GPS 101 수업을 들은 후에,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선택한 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각자에게 얼마나 놀랍고 멋진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찾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현재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 GPS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한다면 이들이 꿈과 목적을 되찾고, 방향성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수님, 조교님을 찾아가 우리의 생각과 비전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

다. 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도 현재 대학교육이 직장을 위한 준비단계로 전략해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셨고, 학생들이 각자의 인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하려고 GPS Program 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조교님께서서는 GPS 교육을 알리고 세상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GPS PD(GPS Program Development)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모임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면담 시간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되었다. 면담하기 전에는 교육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막막한 마음도 있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나의 비전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수업을 수강하며 얻게 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물을 하나 뽑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 없이 'Life Roadmap'을 선택할 것이다. 로드맵은 두리몽실하고 어려웠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내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한 삶의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 인생 로드맵은 크게 다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체성 찾기

내가 해결할 문제 찾기

본인의 problem statement 작성하기

문제해결에 이르기 위한 현재의 Gap을 분석하고, 채워갈 계획 세우기

My vision을 그려내기

우리는 로드맵을 통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작성한다. 로드맵을 작성할 때, "이 문제를 위해 평생을 투자하기에는 제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든지 잘 모르겠어요..."라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로드맵을 설명해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로드맵은 여러분이 평생 앞으로 살아갈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전과 계획을 찾게 되는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비전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다고 로드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든 진로가 바뀌고 새로운 비전이 생겼을 때 작성하고 수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이라는 문제를 정한 우리에게 로드맵은 우리가 흔들릴 때

초심을 찾게 해주는 도구이자, 앞으로의 삶의 지침서이자 계획서이고, 문제를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아직 좀 더 고민해보고 채워 넣어야 할 것이다. 로드맵은 이 수업을 수강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큰 자산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 이제, 꿈이 생긴 우리(GPS PD, WAH)

현재 우리는 GPS PD팀(GPS Program Development)과 WAH 팀에 속하여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PS PD팀은 박대혁 교수님의 지도로 GPS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수강 경험과 후기를 바탕으로 GPS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수업보조자료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GPS를 알고 참여하여 함께 세상을 바꾸는 데 동참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있다. 우선 학기 방학마다 우리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시행 중인 GPS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다음 학기 학생들이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있고, 개강한 현재는 GPS 101 수업의 TA(학부 조교)로 일하며, 수강생들이 더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WAH는 'We Are Heroes'의 줄임말이다. GPS PD팀의 프로젝트 목적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캠프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시험과 성적을 중요시하며, 단순 암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문에서 많은 실력과 지식을 체화시키지 못하고, 본인의 적성과 꿈에 확신이 없는 채로 성적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간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꿈을 찾도록 하며, 그들의 자존감과 행복감도 동시에 높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목적 없는 삶, 꿈이 없는 삶, 성적에 치우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에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학창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세대는 이제 메타버스에 열광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메타버스(Metaverse)를 이용하여 개최하고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캠프개최를 21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캠프 기획 및 운영 단계에 착수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 팀원들은 GPS 101 수업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함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가며 성장하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 모두의 Problem Statement가 같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서로 조금은 다른 Problem Statement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 모두가 서로 다양한 수강 동기를 가지고 이 수업을 수강했었지만, 결국 교육과 관련된 문제해결이라는 하

나의 문제로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다양한 꿈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우리가 GPS를 만나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이다.

4. 우리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 "GPS"

1) 혜진의 이야기

■ '배움의 의미를 찾다'

"내가 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지...?" 대학 수업을 들으며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다. GPS 수업을 듣기 전, 나에게 대학 수업은 그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수업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원 갈 때 필요하니까, 그냥 성적이나 잘 받아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한 사람을 살았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며, 내가 현재 하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내 전공의 가치를 알려줬다. 나는 수업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여 정서적 지원과 복지를 통한 재정, 주거, 교육 지원을 통해 아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GPS 교육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복수전공을 하여 두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GPS PD, WAH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종종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나긴 하지만, 무기력했던 과거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직 내가 이루려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멀었지만, 함께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GPS 101은 나에게 공부의 의미와 열정을 되찾아준 수업이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수업을 듣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이 수업을 수강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2) 지인의 이야기

■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GPS 프로그램을 만나기 1년 전의 이야기이다. 대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나는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던 중에 나는 GPS 101 수업을 듣게 되었다. 사실 평소와 같이, 아무 생

각 없이 졸음 켜고 수업에 접속해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신 후에 나의 태도는 180% 달라졌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가 정말로 복 받은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니?”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었다.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지?’, ‘선배들 사이에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다는 거지?’

교수님께서 말씀 계속 이어가셨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해 발 빠른 대응과 대처를 했던 한국인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단다. 너희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에 나갔을 때 그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을 테니까! 너희는 정말 복 받고 행운이 가득한 20학번들 이란다! 너희는 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열심히 준비되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면 돼!”

내 마음이 웅장해졌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문제를 문제가 아닌 감사로, 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멋있다. 닳고 싶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대학교 생활이 교수님과 함께라면, GPS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GPS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을 확실히 깨닫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순간이 의미 있고 나에게 소중한 기억될 것 같다. 내 삶의 전환점이었던 GPS가 더욱더 많은 친구에게 퍼져서 많은 친구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야, 너도 GPS 할래?

3) 예인의 이야기

■ ‘행복을 향한 첫걸음’

GPS 101 수업을 듣는 내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너희도 행복해진다.”라고 수업마다 말씀해주셨고, 이러한 가치관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하며 “세상에 정말 많은 경쟁자가 있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경쟁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는 했었다. 그때는 마냥 어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GPS 101 수업을 통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어른이 있구나!’를 발견했고, 잠시 잊고 있었던 내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펼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뻐다. 교수님의 가치관이 담긴 강의를 듣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 멘토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 수업 TA(조교) 하고 있어”, “나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어!”

이는 내가 요즘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것들이다. GPS 101 수업을 통해 나의 대학 생활은 통째로 바뀌었다. 고작 새내기인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인아,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요즘 나를 만나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보며 하는 말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내 표정, 말투, 분위기 등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이 정말 신기했다. 나의 한 학기를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나는 WAH 팀에서 가장 막내지만, 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처음에는 힘든 점도 많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팀원들이 있기에 내가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4) 전환의 이야기

■ ‘새로운 꿈을 향한 도약’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목표해왔던 꿈이 사라진 채, 새로운 꿈을 찾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 대학에 들어왔고,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수강했지만, 진정 내게 도움이 되는 수업은 없었다. 그러다 들은 GPS 101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꿈은 나처럼 꿈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는 현재 내가 GPS PD팀과 WAH 팀에 속하여 있는 이유이다. GPS PD팀에서 팀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열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WAH 팀에서 GP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비전을 찾아주기 위한 ‘GOOD START’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꿈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발견하게 된 나의 또 다른 꿈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아토피를 겪으며 힘들어했으며, 지금도 종종 아토피 환자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나는 지금껏 이 아토피 문제를 단순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며 고생해왔지, 내가 이를 해결하고 싶거나 해결할 수 있겠거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하여 이 문제가 내가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토피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 일으킨다. 특히 청소년에게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은 특히 자존감이 낮고,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자살 등으로 이어지며, 이것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나는 이 아토피 문제를 직접 겪어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를 해결해주고, 특히, 청소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역량을 쌓아야 하는지 고민했고,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의 전공을 융복합하여 공부하기로 다짐했다. 경영학과 상담심리 그리고 생명과학과 AI를 융합하여 공부하여 나의 두 가지 꿈에 모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공계열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나에게 이 다짐은 엄청난게 큰 도전이다. 이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성공할 것이다. GPS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 도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하여 앞으로도 여러 활동과 공부를 하며 필수역량들을 채워나갈 것이다. 나의 인생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다.

참 · 고 · 문 · 헌

- 김정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지식공동체, 2017
- Hashiro M, Okumura M, 「Anxiety,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comparison with normal controls and among groups of different degrees of severity」, J Dermatol Sci, 1997, 14(1):63-7.
- Postolache TT, Komarow H, Tonelli LH, 「Allergy: a risk factor for suicide?」, Curr Treat Options Neurol, 2008, 10(5):363-76.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개발 2021년 9월 통권 220호』, 4-27
-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7),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05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김연재(수학과)



1. 대학 로망을 대신할 무언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 생활은 참 낭만적이다. 대학에서는 동기들과 청춘을 이야기하고 자신만을 위한 꿈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물론 현실은 이와는 많이 달랐다. 여전히 이론적인 강의를 수강하고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입력되었는지를 시험했다.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잘 이해했는지 증명해 내는 것을 최고 미덕으로 여기는 수학과라서 더욱 그랬다. 꿈이나 청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였기에 가능했던 것일까?

현실적인 대학 생활은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내용을 토대로 동기들과 함께 철학적인 탐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교수님은 교단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바라보고 입을 꼭 다문 채 그 흐름을 쫓았다. 이러한 형식의 수업은 나의 로망을 철저히 부수었다. 강의를 누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를 판단하는 일 방향의 시험으로 한 학기의 일방적인 배움은 끝이 났다. 이것이 현실 대학 생활이었다.

대학에 가면 원하던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기대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 로망을 채워줄 것이 필요했다. 그런 나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준 인생 교양이라는 수강 후기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수강하기 전과 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익명의 수강 후기 글은 내가 사회학개론 수업을 수강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이 후기 글을 작성해 준 익명의 학우에게, 아무 고민 없이 이 수업을 수강한 과거의 나에게 매우 감사하다.

2. 나에게 없는 무언가

사회학개론의 수업 목표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학 및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과 현 사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학은 개인 간 관계와 사회 구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의 심층 원인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의 생활 전략을 공공성 확장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족, 세대, 산업, 노동, 종교, 불평등, 세계화 등의 주제가 있다. 각 세부 관점에서 현대 한국인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핵심 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결국 개인의 일상 경험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이다.

수업은 약 3시간으로 가장 처음 2시간은 사회 이론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배운다. 이론이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론의 진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배운다. 마지막 1시간은 당일 수업에 나온 주제에 관련된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교수님과 수강생 모두가 자유롭게 토의를 나눈다. 교수님이 제시한 주제 혹은 수강생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누구도 강제하는 이가 없었고 말하기 편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토의의 장, 바로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대학 수업의 모습이였다. 수업에서 배운 학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학우들과 토의하며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완벽한 이상향 그 자체였다.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수업 첫 토의 시간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보냈다.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다음 수업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 수업에서도, 그다음 수업에서도 나는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회적 이슈인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의문만 품은 상태로 수업 시간은 끝이 나 버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 답은 [사회학 개론] 수업에서 찾을 수 있었다.

3. 수업이 알려준 나에게 없는 것: 주관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동 형태의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는 바로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다. 테일러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분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등장한다. 분업은 인간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노동의 형태이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작업장에 적용한 것이 테일러리즘이다. 이론적으로 한 명의 노동자는 하루에 머리핀을 20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작업을 분업으로 역할을 나누게 되면 한 명의 노동자가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포드는 이 개

념을 이용하여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모두 공통된 물품을 소비하게 되며 대중소비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한 동일한 물품을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포디즘이라고 한다.

분업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노동 형태에서 노동자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발휘하면 불량품이 생기기 때문에 기계처럼 똑같이 일해야 한다. 그림시는 이러한 포디즘을 비판한다. 포디즘에서 노동자는 단순 반복 노동을 해야 한다. 단순 반복 노동을 계속하면 비창조적이고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수동적이고 자동적으로 물건이 생산되는 사회에서 대중은 자연스럽게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문화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동적이고 비창조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의 대량 생산 방식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개발도상국들은 대량생산 시스템 방식에 자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성장시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이면에는 1970년대 공순이, 공돌이로 불렸던 한국의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그 중심에 있다.

그림시에 의하면 70년대 포디즘의 대량 생산 방식을 활용한 공장에서 일하던 공돌이 공순이는 수동적인 태도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수동적인 사람은 수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또, 수동적인 사회는 수동적인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사람과 사회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점차 서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갔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수동적인 교육정책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수동적인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재수생활 1년 꽤 긴 기간 동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했다. 학문을 통해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얻는 것보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했다.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바랐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비법은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히 국어와 같은 과목에서는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했다. 글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이 아닌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 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이었기에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완전한 오해였다. 나는 수동적인 사회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업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만을 기억하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만 추려서 공부

하던 습관은 내가 살고 있는 수동적인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형성된 것이었다. 나는 수동적인 사회와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었다. 너무 가까워서 내가 수동적인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매 순간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토의 수업 시간에 의견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이었다. 모든 것에 수동적이었기에 나만의 뚜렷한 관점, 주관이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가 주어져도 나만의 생각과 의견이 없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4. 함께여서 더욱 수월했던 나만의 주관 만들기

나에게 없는 것, 주관을 가지고자 토의 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토의 시간에 한 번이라도 말을 한다면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수업에 임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한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수업 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수업 내용을 더욱 깊게 공부하고자 추가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스터디그룹에 참여했다.

스터디에서는 가장 먼저 수업과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수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의 대량 생산 방식이 한국에도 도입되었다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했다.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효율적인 분업 시스템의 도입도 있었지만 과도한 노동착취도 있었다. 1970년대 공장에 투입된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바로 그들이다. 한정된 시간에 더욱 많은 물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 공원들은 온전한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공장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식사 배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에 관한 처우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자 법이 제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명시한 최저임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업을 수강했던 2019년 당시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상승했다. 2018년 7,530원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최저 임금의 상승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학생과 아르바이트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 임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이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니까 좋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었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만 같은 최저임금에도 문제점이 존재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상승은 고정 인건비 지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최저 임금 상승 발표 이후 직원 수, 근무 시간을 줄이고 무임금 가족 경영을 하거나 대부분을 사장이 해결하는 '나 홀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인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 임금 상승은 좋은 정책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줄여준다는 장점은 다른 문제점에 비해 크게 느껴졌다. 최저 임금을 상승시키는 대신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시행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안해 보는 등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보며 토의를 마쳤다.

스터디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업내용과 수업 중 나누었던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수업 중에는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 넓은 주제를 다루었다면 스터디 토의 시간에는 그중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명으로 구성된 스터디였기에 매 토의에서 모두가 한 번 이상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터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은 단일한 개념 위에 겹겹이 쌓였고 이는 수업내용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토의에서 서로의 주장에 의견을 붙여 말하며 자연스럽게 주관을 만들 수 있었다. 혼자보다 함께였기에 더욱 수월하게 주관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입장 차이와도 연결되었다. 각 구성원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관을 키울 수 있었다.

5.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수업 중 프로젝트

사회학개론 강의에는 프로젝트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학의 다양한 소분류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 팀끼리 토의하여 학기말에 세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다. 매번 다른 주제에 대해 다루고 다수의 인원이 참가했던 수업 시간의 토의와는 달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의는 하나의 주제, 소수의 인원으로 꾸러졌다. 스터디에서 진행한 것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스터디에서는 단지 이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그쳤지만 프로젝트는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활동까지 이어졌다.

프로젝트는 노동자 계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논제를 좁혔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 개념에서 배제되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였다. 기본적인 권리인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조차 설립이 불가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의 법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프로젝트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시위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회에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위는 기사화되어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로의 외침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현대 사회에 오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많이 거쳤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처우가 좋아지게 된 것은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소리를 내며 노력해왔기 때문에 현재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6. 진정한 배움의 시작: 종강

사회학 개론 수업이 종강을 맞이했다. 종강이란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종강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학기 중에는 하지 못했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다. 한 학기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지금 당장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대학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은평 대전'에 지원할 대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은평 대전이란 '은근히 평범한 대학생들의 전공 이야기'라는 뜻이다.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설명하며 진로 멘토링을 해주어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사이다. 고등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생활에 익숙해져가는 시기에 딱 적기인 프로그램이었다. 대학 진학을 어느 학과로 가야 할지 막막한 고등학생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대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 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과 일대일로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이 끝나고 감사하다며 환하게 미소 짓는 학생들의 모습은 나를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현재 성적이 좋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 역시 고등학생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지 눈앞의 성적과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위로하는 것 뿐이었다.

사실 이 고민에는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영향이 있다. 과거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자식이 성공하게 되면 경제적 계급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대학 진학은 곧 계급의 상승을 의미했다. 교육은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망이 컸다. 하지만 최근 교육은 계급 재생산 수단이 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계급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상층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사교육 때문이다. 가계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올라간다. 가계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 문제는 사교육 참여율은 성적과 비례한다는 것이다. 결국 돈이 많으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된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어렵고 고소득층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얻기 쉽다.

내가 고등학생 때 힘들어했던 것을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대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문제의 원인이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그 고등학생의 후배들도 같은 문제를 겪으며 힘들어할 것이다. 정부

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과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회 속 대학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었다. 지금 당장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았으나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의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사회학 개론의 종강은 나에게서는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었다. 학기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것을 결심했다. 방학에 진행한 활동은 내용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스터디와 프로젝트에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토의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학우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해하는 것과 사회적 지위가 다른 고등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수업 내용을 상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구체화를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은평 대전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것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이 아닌 문제 해결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7. 단순하지만 최고의 방법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는 것일지를 고민하던 나에게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소셜 스타터 : 문제 정의 워크숍」이라는 문구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워크숍에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성공 사례 중 중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히 어질러진 쓰레기를 제자리로 치우는 것이 아니었다. 쓰레기를 치운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또 쓰레기를 지정되지 않은 버리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 그 쓰레기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해결안으로 등장했다. 쓰레기의 내용물을 헤집어 쓰레기의 주인을 찾아내고 그에게 쓰레기를 다시 다져다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쓰레기의 주인을 찾는 것이 번거롭겠지만 이러한 일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모두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었다.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도적인 개선이 아닌 다른 방안을 이용한 해결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분류였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 워크숍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었다. 게다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문제 해결에는 추가적인 비용도 수반되지 않았다. 쓰레기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결국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의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 개의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당장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바로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찾아보았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다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사회에 더욱 이로울지를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에서 시작한 활동은 즐거웠고 몰입도 잘 되었다. 사회 문제 해결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며 현재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인 착한 셔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8.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줄 것이라던 사회학개론 수업이 끝났다.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린 나이인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굵직한 원인 중 하나인 그 수강 평에 대한 후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강한 후 인생이 바뀌었다는 수강 후기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자.'하는 마음이 컸다. 솔직히 한 학기 총 열다섯 번의 강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내용은 그리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학생은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작성해 준 것이었다. 한 학기 수업을 모두 수강한 지금은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작성해 준 그 익명의 학우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수업을 수강한 과거의 나 자신에게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 그렇다. 그 수업으로 인해 나 역시 인생이 바뀌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회학개론 이론 강의에서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 이론이 한국 사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보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거대한 사회의 흐름에 몸을 맡긴 사람이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다녔었다. 주관 없이 누군가 선동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수동적인 사회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사회학개론 수업은 그렇게 팔랑거리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멈춰 있는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의 모습을 알게 된 후에는 가고 싶은 목적지가 생겼을 때 행동 매뉴얼을 스스로에게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수업 토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무엇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었기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강의 내용을 통해 수동적인 사회 문화에 아주 잘 적응한,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수동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했다. 수업내용을 더욱 깊게 공부하고자 들어간 스터디는 자신만의 주관을 만들고 의견을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팔랑거리는 나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고 함께 근육을 키워갈 수 있었다.

학기말에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갓 근육을 만들고 키운 나에게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사람들이 위치한 곳에 따라 바람의 세기는 달랐다.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이 바람을 막고자 구조물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모습은 나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 아주 적은 양의 근육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는 않았다. 공사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소셜 스타터 : 문제 정의 워크숍」은 공사가 아닌 천막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큰 흥미를 느끼고 바람막이 천을 가지고 사회의 이곳저곳을 살피는 중이다. 앞으로 한동안 계속 사회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들로 근육을 키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참 · 고 · 문 · 헌

- 이정연, 사회학개론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 이학준, "특수형태 노동자, '근로자'에 포함시켜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뉴스핌, 2019.11.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128001030>

06

희곡을 읽다, 세상을 읽다 : 세상과 소통하는 힘

이소정(호텔경영학과)

지도교수 김문주



비대면 시대에 마주한 인생 교양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대학생이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다. 앞서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교양수업 가운데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강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길라잡이 없이 고등교육 배움의 출발선에 선 대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수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수업방식, 과제와 시험 외의 다양한 평가 요소 등 그 고려사항이 너무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여느 대학생과 다를 것 없이 나 또한 그런 고민을 하던 중, 김문주 교수님의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라는 과목을 보게 되었다. 이 강의는 이미 그 명성이 자자했을뿐더러 교수님의 공정한 평가방식, 퀴즈와 토론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으로 유명했다. 인기 과목이니만큼 수강신청 성공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강의를 통해 얻게 될 배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또한, 수업 때 다뤘던 여러 주제들은 나의 가치관 설립과 미래의 진로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순히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변화했고 나 스스로가 사회의 한 일원임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5주간의 짧은 한 학기 수업이었지만, 수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걸맞은 자세가 무엇인지 일깨워준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는 나의 인생 교양과목이 되었다.

희곡 속 다양한 세상

처음에는 명성 높은 교수님의 유명한 수업이라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나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라는 과목명 자체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문학 작품, 즉 고전소설이나 역사서 등을 벗어나 색다른 장르 중 하나인 희곡(口曲, drama)을 접하는 교양수업은 내게 매우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더불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고전 희곡 작품 속

에서 나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 교양수업은 그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기에 나는 수업 내용과 진행 방식에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내가 만나게 된 다섯 개의 희곡 작품은 순서대로 『인형의 집』, 『사소한 것들』, 『동물원 이야기』, 『고도를 기다리며』와 『우리 읍내』였다. 이 수업의 첫 번째 목표는 "문학 작품의 재해석"이다. 모든 문학 작품이 그러하듯 희곡 또한 다양한 해석을 가지는데,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장르이니만큼 희곡은 특정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강조하거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무대를 구성할 수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나는 바로 그것이 희곡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재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합, 그 전체인 공동체 안에서도 뚜렷한 본인만의 고유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표현하기"이다. 작품 속 인물이 되어보는 것과 작품 속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걸어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주제를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사회 문제 등에 몰입하며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고전 작품의 보편성을 통한 현 사회 현상 읽기"가 있다. 고전 작품은 시대를 막론하고 독자로 하여금 개인과 사회를 좀 더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이는 현재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수업에서 다룬 작품들은 소위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권의 도서'와 같은 추천 목록에 포함되는 작품들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희곡이라는 장르였기에 처음에는 낯설어 어떻게 작품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그 염려도 잠시, 새로움을 경험하는 재미만큼 즐거운 배움은 없었고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이라는 프레임

나는 졸업 후 사회에 나갈 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 속 성차별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남녀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와는 별개로 차별은 분명한 문제라고 본다. 남녀평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녀의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남녀의 사회적 지위 및 이에 근거한 권리·의무·대우 등에 있어 평등한 것을 말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녀평등을 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직도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우리 주위에 한 둘이 아니다. 성차별에 대해 생각하면서 대선에서 패배 후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담긴 말을 했던 것이 떠오르기도 했다. 여성차별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여성만을 위한 주차장

이 그 예이다.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운전자의 자격을 가졌지만,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을 향한 여성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뿌리내려왔다. 육아를 위해 '여성'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으며 농경사회에서 남성이 우월 시 되었던 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오고 자리 잡은 것이 우리 문화이다. 따라서 이것이 사회 문제라고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아직 불편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고 사회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가 여성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 수업에서 다룬 여성주의 극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이어진 여성 역할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시대를 앞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화두를 던진 작품들은 곧 사회에 나갈 나에게 깊은 사색의 시간을 주었다.

■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을 찾아야 해요.”

『인형의 집』 노래의 대사 中

수업시간에 다룬 『인형의 집』과 『사소한 것들』은 여성주의 작품이다. 여성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킨다. 19세기에 들어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흐름은 크게 1세대(여성의 참정권)·2세대(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과 성적 해방 추구)·3세대(계급, 인종 문제 등으로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형의 집』은 여성해방 문제를 최초로 다룬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이다. 여성의 참다운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여성주의 희곡이며, 기존의 남성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린 작품이다. 본 작품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던 노라가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고자 했던 노라는 여성에게만 부여된 책임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사회 현실을 타파한다. 특히 성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던 결혼과 남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한편 기만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여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썼다는 것에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노라는 초반에 절대적인 수동의 태도를 취한다. 불평등한 사회 속 여성의 모습을 당연시하게 보고 자라온 노라의 생각과 말, 행동의 제약이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하고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노라의 모습은 내게 감동과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특히 “나는 모든 일

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을 찾아야 해요”라고 말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용기 있게 집을 떠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본 노라와 같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희생과 봉사 등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을 위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인생에 있어 결혼생활을 마치 동화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느꼈다.

■ “여자들이란 원래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 마련이지요”

『사소한 것들』 헤일의 대사 中

두 번째 작품은 1900년대 초반 당시 가부장제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여성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때에 미국의 극작가 수잔 글라스펠이 쓴 『사소한 것들』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극인데 특이한 점은 제 3자들이 그 사건을 추리하고 재구성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건의 결과보다 어떤 이유로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혀내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바느질 바구니, 부서진 빈 새장같이 사소한 것들로 남편을 죽인 부인의 동기를 알게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관심을 비웃은 보안관과 검사는 범행의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로 현장을 떠나게 된다. 자신들이 여성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신에 찬 남성들의 태도를 보며 결국 두 여인은 사건의 단서를 감춘다. 왜냐하면 냉혹하고 비정한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그녀의 살해 동기 또한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의 거만함을 한껏 조롱함과 동시에 남성 지배에 간접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진보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며 기존사회에 반격한다. 또한 여성들의 연대 의식, 범죄에 대한 흑백논리의 모호해진 경계, 자아 탐색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극 형태로 혼합시켰다. 극의 형식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주제와 형식을 자유롭게 통합시킬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결말을 유보한 채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석을 유도해내는 작품이다. 사실 1900년 초반과 다를 거 없이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학벌주의, 기성세대와의 불화 등 현재까지 잘못된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사상과 관념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온 사회 현실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문제를 모른 채 지나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고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답을 찾았던 극 속 인물들을 보면서 이들과처럼 사소한 것들의 가치를 알고 비주류까지 수용하며 이를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군대에서 애를 때리고 괴롭혀서, 그래서 탈영을 했던 건데
아니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나요?”

『D.P.』 준목 어머니의 대사 中

‘현실이 더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강한 충격으로 와 닿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2021년 여름, 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병영드라마 <D.P.>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드라마 장면 속 진실과 거짓의 구분조차 어려웠고 특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물론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꽤 많은 부분이 비슷하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며 자신이 겪은 군대 내 부조리의 현상이 떠올랐다고 했다. 사실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많은 부조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렵듯이 예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쩌서 아직 이런 문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습이 끊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했다. 나는 크게 화두가 되었던 군대 뉴스를 떠올리며 해결 여부가 궁금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정신적인 폭력도 심하게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느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았고 가해자는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집단생활 속 그 상황에서 곁에 방관자는 없었는지,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고 나아가 2차 피해로 커지지 않게 마련된 대처방안의 유무와 차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었는지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보며 고민해보았다. 슬프게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군대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바뀌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개인의 대처보다는 다수의 관심의 필요와 나아가 사회와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D.P.>를 보면서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 강의 시간에서 만난 작품, 『동물원 이야기』와 『고도를 기다리며』가 떠올랐다.

소통의 부재와 부조리한 사회

부조리극이란 말 그대로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극’을 나타낸다. 구성이나 성격 묘사가 불합리하고 기이하여 전통적인 기법을 거부하고 인간 실존의 환상과 몽상적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불합리 속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수업 시작 전, 나는 수업계획서를 보고 희곡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설레는 마음으로 작품을 미리 읽었다. 그런데 어쩌서인지 『동물원 이야기』와 『고도를 기다리며』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 ‘내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게 맞나?’, ‘책 페이지가 잘못 인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줄거리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대체 왜 『동물원 이야기』와 『고도를 기다리며』가 오늘날에도 읽어야 하는 최고

의 작품에 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서야 부조리극에 대해 수업을 듣고 난 후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다치게도 하지 않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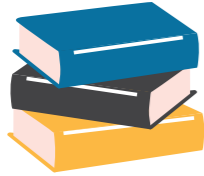
『동물원 이야기』 제리의 대사 中

먼저 『동물원 이야기』라는 작품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출판사 간부사원 피터와 가난하고 소외 청년인 제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이다. 작품은 현대인의 소외되고 고독한 삶, 거대한 도시 속 인간관계의 단절을 묘사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의사소통 부재는 결국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작품 중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다치게도 하지 않지”라는 것이었다. 많은 대학생과 현대인들은 이 대사에 공감할 것 같다. 내게 좋은 사람만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사람들 중 일부는 깊은 관계보다 두루 멍실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사실 나 또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타인과 표면적으로 모나지 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선호했다. 애초에 깊은 사이가 아니라면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거나 피해를 받을 일이 드물 것이라고 단정 지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 속 주인공은 저 대사를 통해 혼자 고립된 삶을 살기보다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타인과 소통하는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상대방과 교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질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이 가히 와 닿는 대목이었다.

■ “제 발이 잘못됐는데도 구두 탓만 하니 그게 바로 인간인 거지.”

『고도를 기다리며』 블라디미르 대사 中

『고도를 기다리며』는 2막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부조리극이다.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인간의 삶을 단순한 ‘기다림’으로 정의 내리고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두 주인공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계속해서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대상인 ‘고도’가 인물인지, 사물인지를 떠나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조차 모른 채 오랜 시간 기다린다. 주인공들이 나는 이상한 대화 속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들 또한 다뤄진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조차 고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고도를 신이나 미래, 꿈, 돈 등 개인마다 각기 다른 고도를 상상하며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고도’는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목적이고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부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주인공들이 서로 '고고'와 '디디'라는 애칭으로만 부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극이 마칠 때까지 주인공의 진짜 이름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고고'라는 이름이 더 명확히 각인되는 것 같다. 마지막 장면 중,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려는 주인공의 모습. 그러나 그것마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절한 목적을 향해 쉽 없이 나아가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잃었을 경우 얼마나 큰 상실감과 무력감이 동반되는지에 대한 슬픈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소통의 부재로 생긴 문제와 부조리한 상황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으로 화두 되기 전까지는 끝내 모르는 척하거나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사건 이라면 쉬이 외면하는 씩씩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사실 나도 수업을 듣기 전까지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나 부조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슬프고 화나는 격정적인 감정만 잠시,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고작 나 혼자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개개인 이 먼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외면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마주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조리한 사회 현상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야지만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조리함과 불평등은 개방적인 환경보다 폐쇄적인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이런 슬프고 서글픈 이야기 중에 걸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에 안타깝기만 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무섭다. 하지만 그런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지 스스로 답을 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것이 발전했다. 인식의 변화와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 한류 등으로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미디어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주는 편리함과 정보는 많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도 많아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 악성 댓글 등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이 도모되거나 잘못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일방적이거나 잘못된 소통이 아닌 올바른 의사소통, 관계의 진정성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더 끓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개인임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부조리함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미래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우리의 몫 중 하나는 소외된 이웃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허울과 낭만적인 꿈을

쫓는 것으로만 매듭지으면 안 된다. 궁금함만 자아냈던 부조리극을 접한 것, 그것은 차가운 현실을 외면하던 내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따뜻한 관심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카르페디엠 (Carpe diem)

-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우리 읍내』 에밀리 대사 中

마지막으로 공부한 작품인 『우리 읍내』는 극장주의 작품으로 미국 북동부 한 가상의 마을에서 1901년에서 1913년까지 13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의사 김스 선생과 지방 신문의 편집장 웹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 김스의 아들 조지와 웹의 딸 에밀리의 성장과 사랑, 결혼과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이 작품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은 '일상생활', 2막은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극이 진행되고 3막은 '죽음'으로 공동묘지를 배경으로 한다. 이 극의 큰 특징은 전통극과는 다르게 무대감독이 무대에 등장해 관객들에게 극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고 극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가끔 실제 등장인물의 연기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빈 무대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필요한 소품을 놓거나 배우들이 상징적인 마임 연기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현재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어 극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극을 관찰하게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3막에서 에밀리가 죽고 나서 무대감독과 대화하는 부분이다. 에밀리는 죽고 나서 무대감독에게 자신이 살았던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청한다. 무대감독은 결국 하루, 딱 하루를 선택하라고 하고 에밀리는 여러 날 중 12살 생일날을 선택한다. 에밀리가 선택한 날은 생일날이라는 것을 빼면 여러 날 중 하나와 다름없이 변함없게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였다. 에밀리는 그날로 돌아가 부모님을 애타게 부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에밀리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다. 에밀리는 그저 가족의 일상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소소한 일상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무덤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을 대비시키고 에밀리의 죽음과 절규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우리 읍내』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하루하루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면서 한정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 예상되는 내일과 같이 일상에 큰 변화가 없어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접하면서 '만약 내가 죽어서 에밀리처럼 된다면 나는 어느 날을 고를까? 만약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하루에서 다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 떠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특히 『우리 읍내』는 강의 마지막에 다룬 작품으로, 수업을 마치며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본 시간이라 그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그 찰나도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기로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세상은 그 누구보다 이 하루가 간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일상의 하루가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매일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루를 잇는 삶. 그 자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감사하며 살 것이다.

세상을 관통하는 교양수업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는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수업이었다.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 라면 접하기 어려웠을 고전 희곡 작품들은 나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사실 처음에는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희곡 작품을 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수제작 동영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4년 대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인생 교양수업이다. 김문주 교수님께서 수업 전에 작품을 읽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주셨는데 책의 줄거리를 읽고 설명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더 잊지 못할 수업이었다. 작품 분석과 연관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세상의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셨다. 그리고 수업 중간마다 '생각해 보기'라는 이름으로 작품 주제와 이론적인 수업 내용, 더 나아가 세상의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혼자서 생각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

다른 인문학 수업은 교수님의 주관적인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이 수업은 비대면이라는 전례 없는 특수 상황에서도 매주 실시하는 퀴즈 등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평한 성적반영을 해주셨다. 또한 매주 녹화강의를 준비하셔야 했기에 분명 힘든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매 강의마다 알차게 수업준비를 해주셨다. 수업시간마다 진행되는 퀴즈를 통해 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점검할 수 있었는데 퀴즈를 통해 교수님과 피드백을 주고받은 상호작용의 경험은 대개 일방적인 대학교 강의 방식에 익숙했던 내게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균형 있게 출제되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색으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형식으로 풀어내는 논술형 문제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나의 인문학적 사고 역시 담아낼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수업은 스스로 적극적 참여를 함으로써 작품을 해석하는 인문학적 관점을 능동적인 자세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도 없는 인생 교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학 작품들을 접하고 해석할 때 그냥 표면적인 줄거리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 상징하는 것들, 현재 사회와의 접목 등과 같이 의식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정리할지, 문제가 있을 시 어떻게 접근해야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오래전에 쓰인 이 다섯 희곡 작품은 그 세월의 유구함 속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하며 비교해봤을 때 참으로 흥미로웠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고전이 갖는 보편성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관점에서 마주해야 하는 사회, 부조리하고 단절된 사회, 일상생활에서의 소중함과 감사함의 주제 등을 배우며 나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인생 교양을 넘어선 인생수업이었다.



배움의 끝: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그린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배우고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사실 교양수업을 통해 나의 가치관과 미래 계획이 달라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다른 교양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그저 수업 자체에 대해 '좋았다' 또는 '조금 나와 맞지 않았다'라는 단편적인 느낌뿐이었는데 이 교양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이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즐거운 재미와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수업이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고전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참 색다르고 좋았다. 단일 작품이 아닌 다섯 작품을 만나보면서 개인의 인권, 부조리한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용기를 배웠다.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회 문제를 인식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체적으로 내 태도를 결정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런 과정에서 내 부족함을 직시하게 되었고 아직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는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진중하게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

여성주의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희생하고 포기하며 사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역차별의 영역에서 내가 갖춰야 하는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성찰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차별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사

실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 도사리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제 사정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무리를 나눈다는 기사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 어스름한 슬픔과 더불어 미래의 걱정까지 안겨준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지만 이런 현실과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지금에서야 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도 그들의 편에서 외쳐주지 않았는지 후회가 됐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외면한 어른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머지않아 곧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즉 가진 게 젊음밖에 없어 정의가 넘쳐나야 하는 젊은 지식인에 대한 책임감에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는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회피만 있는지. 부패된 사회가 뿜어내는 부조리함에 무기력함이 엄습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부터라도 진실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한 작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닦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면해서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주제를 다루면서 쉽게 지나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평범한 일상의 사소함도 감사하게 되었다. 특히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이유로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하기 쉬운 가족이 생각났다. 가장 가까운 내 편에서 나를 위해주는 감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잊고 진심을 표현하지 못해 놓친 아쉬운 추억들이 떠올랐다. 나아가서는 친구들과의 추억까지 포함하여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철나가 지닌 매길 수 없는 값어치에 매 순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해준 교양수업인 <무대 위에서 세상 읽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기르는 힘' 그 자체였다.

이 수업을 통해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졌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배움을 얻었다. 대면이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쉬워하면서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나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과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일러준 교양수업이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다섯 희곡 작품이 주는 주제들은 오래도록 나를 울림이었고, 삶의 철학이 되었고 최대한 오래 머금고 싶은 기억이다.

참 · 고 · 문 · 헌

- Albee, Edward(1988), The Zoo Story and The Sandbox, New York: Dramatist Play Service, 32-40
- Trifles 의 setting 분석에 관하여...,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4153766/>
- 사무엘 베케트, Waiting for Godot (Eng Rev) Grove Press, 2011.04.12.
- 강선자, 이동일(2013),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아일랜드 문학, 위키미디어 커먼즈
- 강선자, 이동일(2013). "동물원 이야기 [The Zoo Story]",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영미문학, 위키미디어 커먼즈
- 김태훈(2021), "[만물상] '신영복체'라는 부조리극", 朝鮮日報, 7월 16일. <https://news.v.daum.net/v/20210716031813718>
- 남녀평등 [男女平等],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053&cid=51088&categoryId=51088>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 넷플릭스 DP 어디까지 실화일까, <https://blog.naver.com/iibodii00/222515653391>
- 동물원 이야기 [The Zoo Story, 動物園—],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4209&cid=40942&categoryId=32941>
- 오희룡(2016), "[카드뉴스]주공아파트 아이들과 놀면 안돼!!", 5월 4일.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60504000003396>
- 우리 읍내 [Our Town],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6202&cid=41773&categoryId=44395>
- 유민혜(2003). 「수잔 글라스펠의 극작법 연구: 『사소한 것들』, 『바깥』,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페미니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15802&cid=43667&categoryId=43667>
- 표준국어대사전, 부조리극,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헨리크 입센(2010), 『인형의 집』, 안미란 옮김, 서울: 민음사

07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아이를 위한 나라도 없었다

엄성현, 이창재(경제학과)



인생 교양으로 꼽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남은 '초고령사회와 미래사회 혁신'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한 편의 영화에서부터 이어진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수업을 함께 수강하던 도중 마주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코맥 매카시 작가의 2005년작 소설과 그를 원작으로 한 코엔 형제 감독의 2007년 미국 영화입니다. 1980년 여름의 미국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연쇄 살인범과 그를 쫓는 주인공 일행을 다루는 이 영화는 사실 나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제목은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의 첫 구절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¹⁾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노인'이란 오래된 지혜를 가진 현명한 생각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만약 노인의 경험과 지혜대로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사회라면 그 곳에서 노인들은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혜로운 노인이 예측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연을 통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누군가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곧 악몽이 되어 찾아오며, 시시때때로 문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매일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영화는 노인이 살아갈 만한 땅이 없다는 제목을 통해 빠르게, 그리고 혹독하게 변해가는 세상을 조명한 셈입니다.

한국은 여러 의미로 노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저희의 증조부 세대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기억하며 조부모 세대는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부모님 세대는 민주화 및 몇 차례의 경제 위기들을 버텨 온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뒤돌아보면 50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산업 경쟁력은 폭발했고, 인구학적 변혁은 진전의 연속이었으며, 국가와 국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의식은 성숙해진 덕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게 되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 이러한 변화가 마냥 포근하게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인터페이스가

전자화된 무인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지 못해 곤란해 하시는 분들, 연금이나 보험에 관련된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연장자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약해졌으며, 부모님을 부양하기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양원이라는 손쉬운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노후에 자식을 위해 손을 벌리는 일이 일종의 민폐로 규정되는 한편, 초고령화에 대처할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한국은 코맥의 관점으로도,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노인을 위한'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셈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틀니딱딱충, 줄여 틀딱충이라는 노인 비하 단어까지 생겨버린 시대에,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노인 인구와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의 단위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급했던 한편, 빠르게 진전하는 인구학적 변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여파는 각종 산업, 경제적 침체 우려를 낳고 있고, 개인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하고 국가의 복지비용 증가와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문제를 겪게 되고 해결해야 하는 미래 인력이 스스로 이에 대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국가와 산학은 제공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와 미래사회혁신을 수강하며 초고령 사회의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하는 창의적 발상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층 더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이끌어 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으로 거듭나는데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주된 내용은 초고령 사회로 인한 문제를 이해하는 내용과, 문제를 경감 혹은 해결하기 위한 기존 노력의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과 혁신적 시도를 선도하고 있는 도전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내용에 다뤘습니다. 수업의 활동으로는 첫째 강의를 통해서 초고령 사회와 미래 기술에 대한 강의 및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학습과 토론, 둘째, 강의실 외 수업을 통해서 노화에 대한 체험, 초고령화 현장과 고민 그리고 이를 도전한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을 지도하신 이연숙 교수님께서서는 우리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학과 주거환경 및 실내디자인 전공 명예특임교수이시며 환경심리행태학 및 공간디자인학 연구실 지도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BK21을 포함한 여러 정부 주도 사업과 산학협력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현대사회는 중대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세대는 새로운 주거와 거주형태의 대한 갈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세계 최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으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기점으로 역대 최고치의 노년층 비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연숙 교수님께서 초청하신 여러 사회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초고령 사회에 다가가고 있는 우리 사회

1) Yeats, William. Sailing to Byzantium in The Tower, ed. (1928)

의 현실과 기술적 발전, 지자체 정책, 거주지의 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분야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SOS 20XX 초고령사회 행동요령

1. 강병근 교수님 (00대학교), 박영숙 대표님 (유엔미래포럼) 특강

1) 장애물 없는 거주지

우선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주거 형태와 실버산업의 중요성을 교수님과 대표님께 전해 듣고 성남종합고령체험관을 견학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저부터 전용 샤워기까지 실버산업의 발전을 체험관에서 목도했습니다. IOT 산업이 노년층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실제로 기구들을 만져보고 작동해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컵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생활도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들이 나이가 들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고령층이 많아짐에 따라 각 연령층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이 생활 전반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보청기를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디자인하여 귀가 어두워진 노인이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품은 소비자의 고충을 심각하며 고민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여러 무선 이어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이 단지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재 장애물 없는 주거형태는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지문인식, 카드 키 등등 실제로 많은 필요한 작업들을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도구의 개발로 우리 사회는 노년층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2) 주거생활지원제도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로봇, AI를 활용한 새로운 주거생활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주거생활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각 연령층에 알맞은 건축구조를 고민하고 실제 주택에 적용해야 합니다.

3) 요양원과 간호주거

수업 시간에 KB 골드라이프케어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요양원과 실버홈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설이었습니다. 단지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실버홈 밖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실버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골드라이프케어는 삶의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라고 느껴지기 보다는 할 일을 다 끝내고 편안히 쉬며 몸이 조금 불편하여 밖에서 겪었던 불이익을 오히려 상쇄할 수 있는 "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와 정부, 실버홈 기업들은 요양원과 간호주거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김수동 이사장님 (더함플러스협동조합) 특강

1인 가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세대 갈등과 주거권을 둘러싼 논쟁이 만연한 지금 사회적 공간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이 아닌 주거를 통한 삶의 전환과 인간관계의 발전 그리고 창조적인 주거 형태를 현 정부와 사회는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미래사회혁신 과목을 수강하며 주거공동체와 생활공동체에 관한 많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공동체 주택 설립을 통해 사회적 조합을 이룰 수 있고 비슷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 공동체 주택 형태가 존재함에 따라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거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 지루하지 않은 삶을 이어 나가는 것이 현 노년층에게는 절실합니다. 또한 공동체주택의 한 형태로 공동 공간 즉 공동주방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서로 공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는 원시 부족사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독립된 공간, 사생활이 보장되고, 공유 공간이 개인적 공간과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장점과 공유 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등 노년층을 위한 실버 서비스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런 서비스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다가오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요양 주거 공동체 및 생활 공동체를 이런 서비스와 함께 접목시켜 주거 환경의 변화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3. 민지선 과장님 (성북구), 정정숙 국장님 (동작구), 권윤희 팀장님 (서초구) 특강

성북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동작구 베이비캐슬, 서초구 느티나무센터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인 보조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실현방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자체가 정부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단체와 자치단체들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북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동작구는 베이비캐슬이라는 주거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받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초구는 느티나무쉼터라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여 노년층이 여가를 편안히 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국가소멸의 위기와 초고령사회의 파도를 이야기해도 큰 관심이 생기거나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 저는 공무원분들의 강의를 듣고 난 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세대로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입니다²⁾.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는 국민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못한 사회적 제도와 복지 정책이 존재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주어진 예산으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고령사회 정책과 육아정책을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가 불러올 경제적 여파

출산율은 결국 GDP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Expenditure, Net Export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의 약 50%는 가계소비³⁾가 차지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대체할 AI와 로봇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중심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GDP에서 소비의 비율은 다른 요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AI와 로봇들은 생산을 할 수는 있을지 언정 소비는 주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구감소로 인해 소비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복지국가를 떠올리게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이 정착된 한국에서 과연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국가부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은 재정건정성이 불안할 경우 국가 경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가계부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3) 한국은행,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인구 역학적 문제를 다루는 강의에서 경제 성장에 큰 무게를 뒀던 이유는 성장이 곧 세수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의 속도가 행정 예산에 추월당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지적되어오던 국민연금의 고갈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국은 2008년과 2018년 국제 금융 위기 당시 환율 및 주식 시장 방어를 위해 막대한 양의 연기금을 쏟아 부은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국민연금은 기존의 지급 계획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연금 수령 연령 기준은 60세에서 63세로 미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 활동에서 은퇴한 노인 인구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할애할 노동 인구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분명 1997년의 한국과 비교해서 외환보유액, GDP, 1인당 명목 GDP (PPP), GNI, KOSPI KOSDAQ 시가 총액 등 모든 지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가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디플레이션을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증명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재정 확보와 부채 탕감을 위한 해결책은 앞으로 학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성장 추구라는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또한 임금 피크제와 같은 대안을 통해 고령 인구의 경제적 자립성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발 다가가는 방향이 옳을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 종말을 막을 최후의 보루

1.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2017년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구절벽을 막는 일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출산율과 혼인율,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초고령사회와 미래사회혁신 수업을 수강하며 그래도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많은 강연을 들었지만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문득 생겼습니다. 성적 공지가 끝나고 문득 올해 사촌동생이 입학한 비수도권 초등학교에 학년 당 반이 3개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골벽적인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기억, 운동회에서 운동장을 가득 메운 부모님과 초등학교 친구들과, 큰 버스를 빌려 다 함께 역사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던 10년 전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어쩌면 10년 뒤에는 아예 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2005년 출범한 초기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보다는 수지에 치중하며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고 고학력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서 저출산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하며 여론과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동 떨어진 조사와 출산유도정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해당 국가들이 일과 과정의 양립을 이루어 낸 사실은 무시한 채 다른 선진국 대비해 뚜렷하게 어떤 이유로 인해 출산율이 극도로 낮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6년에 설정한 제3차 기본계획이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민간 고용 직간접 개입, 신혼부부 행복주택 할당 등 고용과 주거 문제에 있어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일부가 출산율이 1도 안 미치는 상황에서 두자녀 이상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 남성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5%로 목표 설정), 보육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할 현금성 지원이 아님), 아동수당 (7세까지 매달 10만원) 등 실질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미흡했습니다⁴⁾.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원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뺀 순수 직접 지원 예산은 18조 2814억원에 불과하고 세제지원을 합쳐도 28조 260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GDP 대비 1.48% 수준이며 OECD와 비교해보면 평균인 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공적인 저출산정책을 이끌어오던 독일과 프랑스의 3~5%의 지출율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⁵⁾. 또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대와 30대의 자리는 거의 없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각 부처에 위임되어 있



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현상유지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근 5년간의 출산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0.08명씩 하락했으며 단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습니다⁶⁾. 다만 희망적인 소식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차 기본계획에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고 현금성 지원 액수도 모든 분야에서 2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⁷⁾. 앞으로 위원회가 보육서비스와 현금성 지원에 대한 확대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 정부,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39-13.
5) 이윤재, 우성덕, 김유태, 김연주, 임형준, 이진한, 10.04.2020, "150조 썼지만출산에 쓴돈은 절반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13683/>, 11.18, 2021 방문
6)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사용 설명서_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L. 헌법적 해석 및 국가의 역할

2021년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수의 40%를 차지합니다. 2인 가구 수 또한 28%를 차지하며 3인 미만 가구 수는 총 인구의 70%에 육박합니다⁸⁾. 단순한 수학 계산만으로도 현재 출산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인구가 5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기에 국가가 출산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⁹⁾." 국가가 지닌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¹⁰⁾." 사회유지와 복지제도를 추진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 34조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¹¹⁾."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제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¹²⁾."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제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¹³⁾." 국가가 국민이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¹⁴⁾. 물론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운명결정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임신과 출산의 자유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¹⁵⁾. 하지만 국가는 인구소멸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의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보다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국가라는 단체의 유지를 위해 정책을 통한 새로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8) 매일경제, 10.06.2021, 주민등록상 '1인 세대' 936만으로 최다사상 첫 비중 40% 돌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46361/>, 11.18.2021 방문
9) 대한민국헌법 제7조 1항
10) 대한민국헌법 제34조 2항
1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4항
12) 대한민국헌법 제34조 6항
13) 대한민국헌법 제36조 2항
14) 이장희(2015), 「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79(0), 85-128
15) 상계서

2.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도중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남녀분담이 잘 되어 있고 이민자에 비교적 관대하며 보육 제도가 직접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주도되거나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반전됐거나 OECD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모두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¹⁶⁾. 현재 유럽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인구 문제를 국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항상 포함시키며 60년 넘게 각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유럽의 출산율 증가는 이민자로부터 비롯된 왜곡된 통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이와 관련해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가 출산율이 프랑스 태생 여성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내이고 실제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부분은 여성 1명 당 0.1명에 불과합니다¹⁷⁾. 결국 프랑스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민자의 영향보다는 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프랑스의 출산장려주의 가족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국가주도로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아동기의 대부분에 걸쳐 실행됩니다. 또한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가족이라면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보다 더 큰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¹⁸⁾. 우리나라처럼 보육료 지급 카드를 활용하기보다는 프랑스는 집단보육 또는 개별보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각 가정에 맞는 현금성 지원과 보육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¹⁹⁾. 또한 크레쉬와 에콜 마테르넬과 같은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을 국가 보육기관에서 책임지고 있기에 사회가 공동으로 아이를 기른다는 인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생깁니다. 초등 돌봄 시스템도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모든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프랑스가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은 근본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정책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6) 안기훈(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67-69

17) 김상용. 12.05.2019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프랑스 안정적 출산율이 이민자 덕이라는 것은 오해,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XZTYLOG>, 11.18.2021 방문.

18) 황성원(20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정책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8(5): 251-278

19) 상계서

또한 프랑스는 혼외 출산 비율이 높아 프랑스 정부는 이들 부부에게도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들과 같이 가족수당과 보육비를 제공합니다²⁰⁾. 이들은 PACS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결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육아와 출산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를 논하기에는 이미 인구소멸은 현실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 폐쇄적인 문화와 돈과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만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출산을 하면 자녀의 양육은 부모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저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은 적극적인 면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물론 기존의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쩌면 전 지구 역사상 유래 없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정책은 유지하되 매우 혁신적이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3. 선택과 집중 (현금성 지원,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1명 떨어질 때 마다 국가의 존속이 위협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 또한 지금이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경제와 밀접한 정책입니다.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면 항상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생경제에 관한 공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막대한 양적완화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지원받으며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큰 반발을 불러왔던 기본소득제를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약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서의 현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늘린다면 확실한 가시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처럼 한 가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집이 가장 문제라며 정부는 아이가 있는 가족일 경우 집에 대한 걱정이 아이가 없는 가정보다 훨씬 없게 막대한 세제혜택과 청약혜택을 주어 지지 국민들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출산율로 인한 국가의 존립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생활면에서 더 이득이 되고 오히려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혼을 유도하는 전월세 지원금, 신혼부부 청약 우선

20) 추인영. 03.30.2017, 「저출산 시대,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했나...머리 맞댄 한불클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23263#home>, 11.18.2021 방문

제도 등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차별 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고 국가가 결혼을 강제하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출산율이 0에 수렴해가는 현 상황은 범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그 시각을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되고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와 노년층에 대한 연금복지를 생각한다면 인구 소멸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모두 책임을 조금씩 가진다고 생각하면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노후, 더 나아가 나의 이웃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혼, 비출산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하나 사회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국가 재정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복지의 미래: 기본 소득에 관한 논의

2019년, 해당 수업 당시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 논의되던 시기였고, 그마저도 현금 지급이라는 매력적인 공약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이후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본 소득은 정계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 번씩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신 논의들을 재차 종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기본 소득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정의가 나뉘곤 하지만,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최근의 사례로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제안되었던 자유 배당금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양은 전 국민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매달 천 달러, 즉 연간 12,000달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입니다. 이 제도를 앤드류는 Freedom Dividend, 즉 자유 배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항상 강조해왔던 부분은 4차 기술 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콜센터 직원들을 대체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트럭 운전기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미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IT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모든 시민들에게 매달 천 달러를 지급해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공약의 취지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제시한 자유 배당금은 선택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 개인이 배당금을 받기를 선택하면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선택한 국민은 소비목적이나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현금 천 달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반대로 천 달러 이상의 효용을 발휘하는 복지 정책들을 통해 다중 수혜를 받고 있다면 굳이 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앤드

류는 이를 통해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126개의 상이한 복지 프로그램들의 짐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만족도가 낮고 구조적 문제가 많은 선택적 복지 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현재의 복지에 유감스러운 인센티브들이 붙어있으며, 실적을 잘 낼수록 돈을 덜 받는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과장하여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기록하는 등 의존적으로 변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한국의 복지 예산이 정부 총 예산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선진국들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배경과 일맥상통합니다. (2021년 집행 예산, 2022년 공개 예산 기준)²¹⁾

앤드류가 주장하는 자유 배당금의 모델이 되는 것은 실제로도 37년간 비슷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는 알래스카가 천연 자원을 재원으로 삼아 매년 1,000~2,000 달러 규모의 현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으며,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개선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래스카 주민들이 연방 정부에 복지를 맡겨 중간 과정에서 세금이 새는 것보다, 차라리 지출 내역 관리도 감독도 불필요한 현금 지급을 선호했다는 사실에서 찾습니다²²⁾.

자유 배당금 제도와 비슷한 정책이 한국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반론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천 달러에 준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과, 단순한 돈의 지급은 사람들의 노동 의지를 저하시켜 정부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 자원 마련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함과 동시에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점에서 자유 배당금 모델과 유사하지만, 그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계층에 무관하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미국 모델의 목표가 월 평균 소득이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부족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보충한다는 한국 모델의 목표와 상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분기당 50만원이라는 돈이 복수의 복지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취약 계층(가령, 독거 노인임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할 것이 명확합니다²³⁾.

21) Yang, Andrew(2020), Freedom Dividend, <https://2020.yang2020.com/policies/the-freedom-dividend/>, 11.18, 2021 방문

22) Ibid.

23) "기본 소득 도입해야 할까...?", 2021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iSiPutXqjxY&t=7s>, 11.18, 2021 방문

또한 한국의 경우 공공복지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의 도입이 이들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부자 증세의 부분을 살펴봐도, 막대한 가치 창출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GDP 이상을 연간 벌어들이는 미국의 소위 '공룡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연방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 구조의 깊은 부분까지 자리잡아 있어 재원으로 삼기에는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창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소위 부자 증세를 명목으로 이들의 경제 활동 인센티브를 빼앗아 간다면 대기업은 투자 이민을 떠나고, 고급 인력을 또한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됨으로써 국부 유출 및 경제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기본 소득제의 구조적 한계는 지속 불가능성에 있다. 이는 보편 복지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임과 동시에,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같다는 것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는 이 중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소득" 또한 아닙니다. 소득이란 무언가를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기본소득제는 단지 각 경제 주체 간에 세금이 왕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현금을 시장에 붓기 때문에 기본 소득제는 정부 지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지출은 GDP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생산과 그 대가를 동반해야 합니다. 가령 국가가 경찰 공무원 100명을 선발하였다고 가정할 때, 그 경찰 공무원 100명이 범인을 체포하고 만취자들을 집으로 귀가시키고, 도시를 순회하며 공공 치안을 향상시키는 것이 생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경찰관 1명마다 연봉 5000만원을 주게 됩니다. 가치가 창출되었고, 그 대가가 정부에 의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부 지출로 분류되며, GDP의 증가로 이어집니다²⁴⁾.

케인즈 학파가 말하는 총수요이론이 이 사이클에서 비롯됩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생산이 일어나고, 그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지급해주면 해당 노동자들은 소득이 증대하고, 소득이 증대한 만큼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가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대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무언가를 생산한 대가를 정부가 지출한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주체들의 세금을 거둬 다시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적으로

24) 최하얀, 10.11, 2021, 지속성장, 공정 앞세운 이재명...기본소득 본격 검증대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4594.html#csidx872fbffa235edba9a58e4850a71406b>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며, 정부 지출이 아닙니다²⁵⁾.

이는 분배구조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새로운 가치 생산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경기부양책이나 정부 지출의 효과를 결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목표로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의 승수 효과는 0.3~0.4 정도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⁶⁾.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현금이 시장을 돌아 다시 정부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기본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재분배 과정에서 저축되거나 손실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본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로부터 보편 복지를 철회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는 무리한 예산 집행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복지의 함정에 빠진 나라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때 준-무정부 상태까지 일어났던 나우루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존하는 모든 기본 소득 모델들이 각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여 국민들이 실업률이 30~6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자본주의의 대전제인 "노동을 통한 가치 창출"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본 소득의 도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만큼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인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 소득 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2019년도에 수강한 강의를 재방문하며 한가지 느낀 점은, 한국인들의 외국에 대한 환상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으면 돈을 모아 외국에 이민을 가버리겠다는 식의 분위기는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있으며,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은 집값과 양육비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소소한 삶을 사는 것마저 한국에서는 힘들어 보이니, 노동 시간 대비 임금, 잉여 소득 대비 집값 등의 통계 수치가 나은 외국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비단 현재의 20대, 30대가 유독 철이 없어서 물정을 모르고 하는 말로 치부

25) 정갑영(2017), 『정갑영의 첫 경제학』, 박영사, 173-177

26) 김익환, 08.30, 2020. 재난지원금 실효성 논란... "현금 1조 풀어봤자 GDP 2000억 늘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01843i>, 11.18, 2021 방문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또한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면서까지 가족들을 미국에 보내는가 하면, 뉴스에서 한국의 통계를 소개할 때는 북유럽 복지 국가 및 OECD에서의 순위 비교를 빼놓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모든 국제적 분류 기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매우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나라입니다. 후진국에서 개도국, 개도국에서 선진국까지 한 세기가 안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은 환호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꼭 보물섬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딘가 내가 꿈꾸는 완벽한 장소가 존재할 것만 같은 절실하고 아름다운 오해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노력들을 살펴보면 발견한 점은, 결과적으로 완벽한 성공이란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가 가정에 개입하여 인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계획적인 인구 정책이 국가적인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담론은 인류사를 통틀어 봤을 때 꽤나 생소한 문제이며, 필연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들은 실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위에 예시로 제시한 프랑스도 올해부터 금전성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10년간의 정책은 기존의 기초를 유지할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국가를 추종하며 갈팡질팡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만의 방안을 확립해 비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택, 양육, 의료, 경제 등 강의에서 다룬 전문 분야는 도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이 인구 역학적 문제를 만병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학문적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내려고 하는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 미래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 고 · 문 · 헌

- Yang, Andrew(2020), Freedom Dividend, <https://2020.yang2020.com/policies/the-freedom-dividend/>, 11.18,2021 방문
- Yeats, William. "Sailing to Byzantium" in The Tower, ed. (1928)
- 김상용, 12.05.2019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프랑스 안정적 출산율이 이민자 덕이 라는 것은 오해",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XZTYLOG>, 11.18.2021 방문
- 김익환, 08.30, 2020. 재난지원금 실효성 논란... "현금 1조 풀어봤자 GDP 2000억 늘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01843i>, 11.18, 2021 방문.
- "기본 소득 도입해야할까...?", 2021,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iSiPutXqjxY&t=7s>, 11.18, 2021 방문
- 대한민국 정부,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39-13.
- 대한민국헌법
- 매일경제, 10.06.2021, "주민등록상 '1인 세대' 936만으로 최다...사상 첫 비중 40% 돌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46361/>, 11.18.2021 방문
- 안기훈(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67-69
- 이윤재, 우성덕, 김유태, 김연주, 임형준, 이진한 기자 10.04.2020 "150조 썼지만...출산에 쓴돈은 절반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13683/>, 11.18, 2021 방문
- 이장희(2015), 「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79(0), 85-12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사용 설명서_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정갑영(2017), 『정갑영의 첫 경제학』, 박영사, 173~177
- 추인영, 03.30.2017 "저출산 시대,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했나...머리 맞댄 한불클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23263#home>, 11.18.2021 방문
- 최하얀, 10.11, 2021. 지속성장, 공정 앞세운 이재명...기본소득 본격 검증대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4594.html#csidx872fbffa235edba9a58e4850a71406b>
-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 한국은행, 『2018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 (잠정)』
- 황성원(20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정책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8(5): 251-278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나의 길을 찾는
나의 인생 교양



교양으로
미래를 열다



01. 종교와 과학의 만남, 인간됨을 사유하다 · 임서우·이가영
02.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 김미소
03. 과학을 바라보는 사회학적 상상력 · 이힘
04.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다 · 선문수
05. 과학 소설은 현실 속 과학이 된다 · 이주예·이찬영



신 인간 과학

종교와 과학의 만남, 인간됨을 사유하다

신 인간 과학
종교와 과학의 만남, 인간됨을 사유하다
임서우, 이가영 (법학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다독의 경험

비판적 사고력 함양의 기회

한가지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이론
ex) '진짜' → 정황기록 / 생물은 없다
•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질문에 답하여 자신의 의견 정리
ex) '우주는 신이 창조하였는가'의 의미

3. 수업을 통한 변화, 새로운 자식과 달라진 태도

종교 | 믿음 과학 | 논증, 경험

정서적 지지 자연현상에 대한
도덕 체계 종교한 이해

종교가 과학을,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수 없다

3. 수업을 통한 변화, 진로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사용해야하는가?

법조인: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는가?
→ 시지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부터
타인을 배척하지 않고
조치로운 사회를 만드는 정의

4. 인생 교양 교과목으로 선정한 배경

교양

- ✓ 이질적인 학문들을 가로지르며 보다 깊이 있고 새로운 생각을 도출
- ✓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 ✓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

4. 인생 교양 교과목으로 선정한 배경

무엇 종교의 논리에서 뛰어난 디테일은 시작 과학의 한계를 깨닫는 성찰

삶의 길잡이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01

종교와 과학의 만남, 인간됨을 사유하다

임서우, 이가영(법학부)

지도교수 : 이광모



1. 수강 동기: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선택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무종교자이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수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왜 친한 사이일수록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겠는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화석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치료한다며 병을 키우거나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 방언과 입사체험을 통해 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삶에서 경험하는 종교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사회와 끊임없이 불화한다. 서우와 가영은 어릴 적의 경험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의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접한 신·인간·과학. 쉽게 묶을 수 없는 분야를 무려 셋이나 넣어둔 강의 제목은 호기심 많은 우리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졸업 전에 듣지 않으면 손해'라고 느낀 서우가 강력히 권고해 가영도 함께하게 되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동기로 참여했고, 공통되면서도 각자 다른 경험을 얻었다.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모아 앞으로의 글을 꾸려 나가자 한다.

[서우] 나는 제사보다 젓밥에 정신이 있던 초등학생이었다. 동네 교회들의 신도 모셔오기 경쟁에 적극 참여해서 교회마다 다른 사은품을 비교해가며 교회를 골랐다. 성경책을 외우면 주는 달란트를 받으려고 이해도 안 가는 책을 열심히 외웠다. 당연히 믿음 같은 것이 생길 리가 없었고 의문만 계속해서 생겨났다. 왜 선물을 부러가면서까지 사람을 모으려는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자신을 믿지 않았던 이유로 사람을 불지옥에 보내버리는 존재를 선택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결국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싫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뒀다.

교회를 나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비이성적이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곤 했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과학이라는 명쾌한 답이 있는데 불구하고 느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신이 어떻게 세상을 설명할까? 노아의 방주에 만 종류가 넘어가는 개미들이 각각 한 쌍씩 짝지어 탑승해 현재의 개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배우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과학이 '진리'인가라는 물음에는 쉽게 그렇다고 할 수 없었다. 과학을 정말 좋아하던 친구 한 명은 "과학이 언젠가는 인류의 모든 것을 설명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한다"라며 단언하고는 했다. 하지만 내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 찝찝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천동설이 진리였던 적이 있었는데 과학을 완벽한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과학이라고 완벽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호기심이 일었다. 과학은 과연 종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새로운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의 의식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까지도 과학으로 밝혀내고 재현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을 강의에서 찾고 싶었다.

[가영]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미션스쿨로 다녔으며 몇 년은 친구 따라 성당까지 다녀본 경험이 있었다. 친척과 친구 중에서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찬송가를 열심히 따라 부르고 성당에서 주기도문을 읊어도 당최 신앙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다.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궁금했다. 신이 이끄는 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까.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평화를 건네면서도 사람 사이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종교 간 갈등이 점차 번져 전쟁까지 발발하는 경우는 역사책이 다루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이기도 했다. 가까이로는 불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는 외할머니와 기독교를 믿는 외숙모가 꽤 오랫동안 종교 문제로 부딪혔더라.

살면서 신이 인간의 삶을 관통하며 사회에서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는 순간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에 신은 과거만큼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논증할 수 있는 과학과 믿음에 기반한 종교는 뚜렷하게 대립했고 가끔은 사회 문제로 두드러지기도 했다. 나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으라 하는 종교를 경시하게 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번뇌와 고통에 가득 찬 속세에서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지침이 되어왔던 신에 대해 예전과는 다르게 접근해보고 싶었다. 과학과 이성이 우선시되는 시대에도 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했다. 이성을 가

지고 있다는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명료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종교를 다양한 방향으로 다뤄보고 싶었지만 내가 믿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래서 오래된 의심에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자 신·인간·과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2.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신·인간·과학은 정말 '이름값'을 하는 수업이다. 세계의 탄생부터 인간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교와 과학의 시선에서 탐구한다. 동시에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이질적인 두 존재가 어떻게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며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왔는지를 논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과학이론을 배운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이야기를 하듯 설명이 이루어져 부담 없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논쟁과 토론이 이어진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립하는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고, 이에 대한 질문을 수강생들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이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된다. 먼저, 우주와 지구의 생성, 생명의 시작과 진화, 나아가 진화론과 목적론을 배우면서 세계의 탄생과 현대 인류의 도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는 과학자와 신학자, 과학자와 과학자 간의 첨예한 갈등을 다룬다. 전반부에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갈등을 다뤘다면, 후반부터는 인간의 내부이자 핵심적 구성물인 의식과 의지의 문제를 다룬다. 인간 다음과 그러한 인간성에서 발휘되는 종교적 감정이 과학적 논증과 증명의 대상인지 뇌 과학을 비롯한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독특한 수업을 시작하신 이광모 교수님은 수업만큼이나 특이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 첫 수업에 그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 흥미로웠던 나머지 교수님의 인생을 주제로 강의 한 회차를 나가고 싶을 정도였다. 교수님은 '자신은 모태신앙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종교와 자신의 과학적 상식이 자꾸만 충돌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화론은 과학이다"를 말씀하셔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주체 못할 웃음이 터졌다. 교수님께서서는 헤겔 철학을 전공하며 이러한 의문을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본격적으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를 바탕으로 신·인간·과학 수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신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곳들에서 강의를 진행해오셨다.

3. 신·인간·과학만의 특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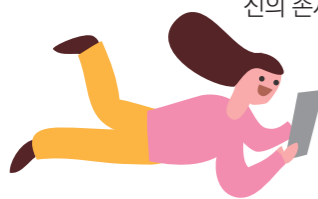
신·인간·과학이라는 조합만으로도 끌릴 수밖에 없었지만 수업을 들으니 여러 장점이 한층 더 의미 있

게 다가왔다. 첫째, 기초적 과학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이 세대를 이어나가며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삼중고돈 등 과학 지식을 귀담아 들으며 개념만 분절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주의 오래된 역사를 거슬러가다 보면 우주의 시작점에 도달하게 된다.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우주가 탄생된 순간은 빅뱅이며, 빅뱅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신학자는 빅뱅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우주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방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을 과학 지식과 더불어 논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신과 인간을 형이상학적으로 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도 밀도 있게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이다.

둘째, 어려운 텍스트들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접해볼 수 있었다. 평소에는 전공책 이외의 책은 들여다보지 않는 편인데, 수업만 들어도 다채로운 텍스트를 두루 접할 수 있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곁들이니 지식을 흡수하는 과정이 부담감 없이 즐거워졌다. 이전에는 종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었지만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신자들에게 풀어놓은 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떤 책을 고를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신·인간·과학 교과목은 교수님께서 종교 자체를 심도 깊게 탐구해볼 수 있는 텍스트를 엄선하여 풀어 주시던 수업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텍스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읽으면 좋을 책들의 제목을 알려주시기도 하며 지적 호기심을 북돋아주셨다. 강독 영상과 함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영상도 올려주셨기에 텍스트를 보다 풍부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었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 정보가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시각을 길러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이 부재하다면 권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가짜 정보에 의해 시각이 왜곡되어 나만의 의견을 제대로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인간·과학은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수업이다. 수업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학자들의 대립되는 의견을 촘촘하게 다룬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과학의 진보가 끝내 신의 부존재까지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학자들에게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비판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역으로 신의 부존재 역시 증명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과학과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도 다루기도 한다. 논거를 살펴보면서 한 쪽의 입장에 설득되었다가도 반대되는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졌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글로 적어보며 갈무리하는 과정은 어떤 의견이든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는 능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넷째,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었다. 과학과 종교 간 첨예한 대립을 넘어 서로가 융합되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텍스트들을 많이 읽었다. 뇌과학을 통해 뇌에서 신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연구한 텍스트는 신을 논하는 일이 믿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신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과학으로 추론해보는 과정 역시 흥미로웠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기독교의 경우 사후의 구원이 교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다. 텍스트에는 임사체험을 얘기하며 완전한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지만 임사체험 시 겪는 현상들은 조종사들도 압력을 받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등의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배일을 한 꺼풀 벗겨내는 과정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들을 과학의 눈으로 읽고, 과학에서 종교의 씨앗을 찾아내는 텍스트는 우리의 사고를 수강 이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한 것이다.

수업 진행 방식으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삶과 연결하여 지식을 풀어주실 때도 있었다. 그러한 가르침을 듣다보면 신을 논증하고 과학의 한계를 묻는 지식이 우리와도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를 우리보다 앞서 지나왔던 교수님의 삶을 반추하며 우리의 삶이 만드는 궤적을 더듬어 볼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다만,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소통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강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다. 시험은 배운 내용을 암기 위주의 객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강의마다 쓰신 질문에 답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수님은 '기계도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홀크 크루제의 답변과 그의 논의를 서술하기,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바이제커의 주장을 토대로 그가 말하는 종교의 의미를 설명하기 등의 질문을 던져주셨다. 질문들은 텍스트를 충분히 읽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녹여 내야 좋은 점수를 받았다.

4. 수업을 통한 변화

■ 서우: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과 다름을 마주하다

신·인간·과학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과학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문과생치고는 상대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다닐때도 1등급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평소에도 과학도서나 프로그램을 찾아보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내 알팍한 지식과 믿음은 손쉽게 무너졌다.

예를 들어, 먼 과거에 우주 대폭발이 시작되어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그 후로부터 이뤄진 생명 창조와 진화의 과정에 신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말은 내게 너무나 당연했다. 우주 대폭발과 적색 편이, 염기서열과 같은 기초적인 중학교 수준의 개념만으로도 논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빅뱅은 ‘왜’ 발생했는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과학이었는데, 빅뱅에는 왜 원인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나의 당연하다는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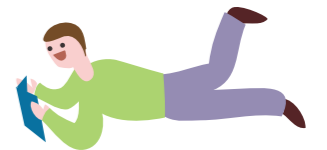
이는 자유의지에 관한 뇌과학계의 논쟁을 배우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종종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유의지라고 말한다.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자유를 누리고,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을 비롯한 사회체계가 의제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의에서 다룬 학자인 샘 해리스의 『자유의지는 없다』를 읽으며 이러한 믿음조차 완벽한 진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그 결정 과정도 이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과연 자유의지인가? 그저 뇌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아닌가?”라는 질문과 같이, 사람들이 간단히 ‘나의 순수한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자신하는 것들 역시도 뇌의 연산작용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은 충격적인 동시에 신선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남겨둔 물음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며 좀 더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며 만족하지 않고, 질문으로 이어가려는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얕이 질문으로 계속 이어질 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통해 얻은 사실을 그저 저장장치에 저장하듯 기억에 새기는 것을 넘어 이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며,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나만의 질문과 대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었다.

강의를 통해 기존의 과학지식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과 다른 시선에서 조망하는 일의 필요성을 느끼자 자연스럽게 과학철학과 과학기술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부 학자를 강의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에 흥미가 생겨서 관련 분야의 독서를 시작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홍상욱이 엮은 브뤼노 라투르의 『인간, 사물, 동맹』 등을 읽으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이라도 사회의 가치 판단과 분리되어 종속될 수 없다고

신·인간·과학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다’라고 말해버리는 지식들에 균열을 내고, 그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고민이 자라날 수 있었다. 고민과 성찰은 더 나아가, 나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다. 강의를 듣기 전에 나는 종교와 종교인에게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의 시대에서 종교는 비이성적인 유사과학이자 불필요한 구시대의 잔재로 머물 뿐이라고 단정 짓듯 판단하고는 했다. 그러나 내가 ‘반증 가능성 이론’을 배우면서 얻은 교훈은 그러한 편견을 버리라고 말해주었다. 지적설계론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이론 중 하나인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이론은 과학적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그 핵심이 반증 가능성에 있다는 이론이다. ‘반증 가능성’이란 모든 과학에 대해 반증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래야 바람직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반증을 통해 기존 과학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 과정이 반복되며 과학은 진보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이를 “언제나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명심하자”라고 받아들였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어떠한 의견과 이론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의 배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말이다. 열린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자 나의 사고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과 종교는 대체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어느 한쪽이 우수하거나 열등한 관계도 아니다.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뿐이며, 모두 인간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과학이 인간의 갈 수 있는 길을 샅샅이 밝히고 분석해준다면, 종교는 ‘선택’을 고민하며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영역을 신을 통해 설명하며 과학과 종교 모두가 양립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을 무한 경쟁의 관계로, 모 아니면 도의 관계로 단정하고는 한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만이 절대적이라고 굳게 믿으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열린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는 법학과 인문학을 전공하고,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흔히들 법학과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정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법과 이를 이용하여 주장하고 판단하는 법조인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오만한 판단을 경계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우리 법의 원칙 속에서도 드러나는 태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법정에서 찾은 진실이 참된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언제나 반론과 반증을 염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내가 종교와 종교인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편견은 우리도 모르게 자신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



는 말처럼,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그 죄 자체이지 그 사람의 속성이 아닐 것이다. 무의식적인 편견은 그 사람의 속성으로 하여금 더 무거운 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피부색에 따라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온다는 사례만 보아도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다. 무언가에 '당연하다'라는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것, 열린 사고로 편견을 배제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것. 이는 내가 강의를 통해 내가 얻은 가장 값진 배움이자, 앞으로의 나의 삶의 태도가 될 것이다.

■ 가영: 불완전한 존재만이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하다

수업 들을 무렵에는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데 빈 한글 문서에는 화려한 이력 대신 막막함만이 백백하게 채워졌다. 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움과 불안 뒤에 질문이 꼬리표처럼 붙었다. 그러던 중 버나드 헤이시의 신이론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신이론은 신과 우리가 하나라고 전제하지만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 즉 우주의 무한한 의식과 지성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이다. 왜 살아야 할까 묻는다면 신이론의 헤이시는 삶을 통해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삶에 완벽한 정답은 없으며 어떤 경험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덧붙일 것 같다.

실수를 하나 더 하면 눈치가 보이는 나이와 그래도 실수해도 되는 나이, 같은 나이 속에서 다르게 규정되는 순간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고, 완벽하지 못했기에 나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어떻게 나를 아끼며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도 강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이론과 함께 교수님은 금강경이 말하는 우주 속의 나를 설명하신 적이 있다. 금강경은 우주 속에서 나는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나와 타인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금강경의 구절은 타인들 사이에서 정작 나를 돌보지 않았던 순간을 위로했다. 한편으로는 나만을 생각하며 타인의 삶을 알파하게 생각했던 순간을 곱씹어보게 됐다.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조건들은 더욱 많아질 테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 놓여있어도 수업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며 현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나를 잘 돌보면서도 함께 사는 사람들과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불안한 인생만큼이나 사회도 불안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대의 가치는 희미해지고 고립된 사람들이 저마다 파편화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을 찾게 됐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코로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자주 보도된 적이 있었다. 기도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대면 예배

만을 고집하는 종교인들은 종교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켰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역 시스템과 백신 접종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에 종교와의 대비는 더욱 극명하게 보였다.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강해지던 나에게 근대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했다. 근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는 등 성경 속 이야기 구성 자체는 신화로 읽으며 성경이 담고 있는 본질과 가치에 주목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고¹⁾, 무엇이 참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서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만 매이지 않고 신앙의 영역 바깥에서 진리를 찾는 시각이 새로웠다.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했기에 종교를 다르게 볼 수 있었다. 어떤 분야든 비판의 여지를 없애고 성찰하지 않는 주체는 결국 변질됐다. 종교의 반이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사례들도 특정 종교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속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신·인간·과학을 들으며 내가 신에 대해서 넓은 듯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종교를 믿게 되었는지, 지금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이었다. 증명할 수 있는 것,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만 집중된 시야를 잠시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인생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었다. 어쩌면 나와 같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완벽한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다. 결핍과 불완전함에서 만인을 포용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과거처럼 종교가 강력한 권위로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대는 지났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는 신을 다각적으로 사유하며 경계를 허무는 것이 종교가 사람을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경계 없는 믿음 위에서 진정한 사유가 싹트고 평가가 무르익는 광경을 상상해본다.

수업에서 다룬 텍스트 중에서 의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생겼다. 인간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인식에서 나아가 지능을 가진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알파고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즐기던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기기도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나 새로운 것을 온전히 창조하는 상황에는 오지 못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는 의식을 지닌 존재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뇌환원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뇌를 똑같이 물리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면 기계도 의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결론까지 도달한다. 이

1)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 『위대한 두 진리』, 동연출판사, 2010

와는 반대로 두뇌환원주의를 거부하는 알바노에는 뇌가 뇌, 몸, 세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²⁾. 그는 뇌 자체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이 아니라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의식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인간의 뇌를 복제하더라도 그 안의 신경활동은 재현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아직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지 못하기에 어떤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흥미진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로 갈수록 사이보그나 트랜스 휴먼같은 존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도 인공 심장이나 의수 등 기계로 인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기술은 존재하고 있다. 재밌게도 기계는 인간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기계와 인간의 간극은 점차 줄어들고 인간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만약 모든 신체는 다 기계로 바뀌고 뇌만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기계로 바뀌기 이전과 동일한 사람일까? 알바 노에는 만약 사람이 통속의 뇌가 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인식할 것이라고 서술한다.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것은 단순히 뇌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읽다보면 기계를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인류의 윤곽선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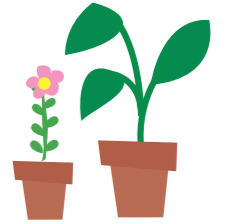
5. 신·인간·과학: 우리의 삶에 파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다

■ 현재를 읽고 변화를 마주하게 하는 힘, 교양

삶을 살아 가다보면 답을 내놓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진다. 어떻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지금 배운 지식은 언제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십여 년 전에 플로피 디스크 사용하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은 광대한 용량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제는 손 안에서 작은 컴퓨터를 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석유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가 도로를 활보한다. 시의 등장은 앞으로 많은 직업들을 사라지게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에는 절대적이었던 가치관들도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여 정년까지 회사에 충실하던 삶은 사라졌다. 하나의 가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사회는 자리를 감추고 있다. 지금의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

아졌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히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선택의 영역은 넓어졌고 그에 따른 고민들도 깊어진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 삶인가? 남들처럼 살겠다는 말을 하기엔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너도 나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할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를 읽고 변화를 마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질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은 오직 교양만이 가능하다. 10년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통틀어 휘발되지 않는 지식을 전달한다. 지식을 달달 외우며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고를 확립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교양에서 얻는 지식들은 이질적인 영역을 넘나들며 깊이 있고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사람이 되게끔 한다. 똑같은 지식도 어떤 분야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제 모습을 바꾼다.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상상하고 당연한 것에서 균열을 찾는 일은 교양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일 테다.

■ 삶의 길잡이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신·인간·과학을 인생 교양 강의로 선정했다. 각자 배우는 전공지식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인간·과학이라는 교양 수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종교인에게는 개별 종교의 논리에서 떠나 다채로운 사고를 갖게 해줄 것이다.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과학의 한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다. 확고하게 진리라고 믿었던 지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식의 축적이면서도 태도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아예 새로운 것은 아닐테다. 동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밤을 꼬박 새본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소하게는 떡볶이를 받으면서도 이런 걸 나눠주는 교회의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지 정도는 생각해봤으리라 생각한다. 도를 믿으십니까? 길에서 묻는 종교인의 말에도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괜찮다.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강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신을 믿지 않아도 사회문화 곳곳에 신을 믿는 자들의 발자취들이 스며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서 과학기술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감 넘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돌아봤을 테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발붙이는 세계는 신

2) 알바 노에, 『뇌 과학의 함정』, 갤리온, 2009

과 과학이 공존하며 삶의 파열음을 내는 세계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과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듣기를 권한다.

참 · 고 · 문 · 헌

- 알바 노에, 『뇌 과학의 함정』, 갤리온, 2009
-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 『위대한 두 진리』, 동연출판사, 2010
- 김기중, 편견... 무의식 속 '흑인=범죄자' 날 바뀌야 세상이 바뀐다, 서울신문, 20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9020023>
- 최승, 개신교 인구 17%, 호감도 6%...무종교인 82% "종교, 사회에 도움 안 돼", 뉴스앤조이, 2021,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80>

02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김미소(중국어학과)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세계와 시민〉은 ‘후마니타스’ 교육 중 하나이다. 후마니타스(Humanitas)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로,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있다. 우리 대학교는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재발명하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으로 재정의하였다. 즉,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은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안내하는 교육이다. 그 중 〈세계와 시민〉은 대학 및 지역 사회의 당면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등 글로벌 난제를 포괄하는 교과이다. 〈세계와 시민〉은 말 그대로 ‘세계시민’을 지향하는데, 이는 근현대 문명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각성된 주체인 동시에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문명을 건설해나가는 실천적 주체를 뜻한다. 〈세계와 시민〉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연대와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모색’이라는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여러 교수님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나는 상종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 본 수업에서는 교재를 통해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등 시민으로서 한 번쯤은 깊게 고민 해보아야 할 주제를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8편의 에세이를 쓰고, 이에 대한 토의, 토론을 진행한 다음, 다른 학생들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였다. 현장 활동의 주제, 활동 방식은 모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3~5명이 팀을 이뤄 사회적, 지구적 이슈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생태환경 문제, 빈곤,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 등 시대적 난제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여 윤리의식을 갖춘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수업의 목표였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본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지만, 3~5명의 소수로 진행된 실천 활동은 직접 만나서 지구적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2. 수강 동기

2020년은 내가 대학생이 된 해이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해이다¹⁾. 공식 용어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 괴질은 워낙 강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왕관의 돌기 모양과 비슷하여 왕관을 뜻하는 스페인어 ‘코로나(Corona)’가 명칭으로 붙었으며, 2019년 말에 생겨 ‘19’가 붙어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코로나19이다. 인류는 작년 초, 본격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여러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자택격리, 이동제한, 봉쇄, 국경폐쇄, 외국인 입국금지, 일시 업무중지, 휴교령, 재택근무 등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인류 생존을 위해 본성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타인과 어울리기’를 잠시 중단한 것이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인류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는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대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 그 중 나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2년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이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질 때 입학하여, 학교에 한 번도 못 온 학생들을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학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중 한 명인 것이다²⁾.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 4월 10일 온라인 개학 상황실에서 “온라인 개학이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레 찾아온 ‘미래’는 학생, 교수 모두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로망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불확실로 가득한 2020년은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대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다 보니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뉴스를 매일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 이후의 국내외적인 이슈들은 나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 현대 문명과 지구 생태계와의 관계를 새삼 고민하게 하였다. ‘과학 기술과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빈곤과 불평등은 늘어만 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일까?’ 등 머릿속에서 생겨난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전공이 어문계열이라 현장 활동이나 다른 이들과 토론, 토의를 할 기회가 적었기에 이러한 바람은 더욱 간절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문제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토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게 되었다.

1)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 취재팀,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한국경제신문, 2020

2)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 취재팀,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한국경제신문, 2020

3. 해당 교과목이 “인생 교양”인 이유

내가 이 수업을 나의 ‘인생 교양’으로 꼽은 이유는 본 수업은 대학의 교양 교육의 정의관에 가장 근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³⁾. 대학의 교양 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성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성을 맞아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 교육의 일종인 <세계와 시민> 강의의 목적은 이러한 교양 교육의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상종열 교수님의 수업 커리큘럼은 대학생에 걸맞은 사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들으며, 설득하고, 설득되며,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수업에서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유 능력’이었다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보다 잘 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을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그중에서 ‘사유하는 존재’라는 규정이 가장 일반적이다. ‘사유가 자유를 가능케 한다’는 가브리엘 마르셀의 진술은 사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인간을 위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는 자연법칙이나 본성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물은 0도 이상에서는 결코 얼어 법이 없고, 표범은 결코 하늘을 날고자 하지 않으며, 사자는 결코 불쌍한 영양을 위해 배고픔을 인내하는 법이 없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물을 열게 하고, 두 다리로 걷는 존재이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고 바닷속을 다니고자 한다.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양식을 나누기도 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도 한다. 이것이 곧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며, 이 인간의 자유는 곧 사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떻게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가를 깊이 사유하지 않았다면 결코 비행기를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며, 왜 사과가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중력이나 만류 인력의 법칙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일과 같은 도덕적인 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깊은 사유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보다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보다 많이 사유를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발견하고 보다 큰 정신을 가진다.

3) 교양 교육의 고전적 전형과 현대적 변용, 손동현 부총장, <https://youtu.be/OTLcpqudwYo>

4) 이명곤,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 세창출판사, 2014



이렇게 '사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유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초중고 시절, 배움의 수동자로 살아왔던 학생들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다면, 사유의 틀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 수업은 이러한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깊이 사유하는 사람의 정신을 가져 풍성한 잎과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또한 항상 적당히 생각하고 사유의 틀이 작은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 수업을 통해 사유의 틀을 점점 확장시켜가고 있다. 그렇다면 상종열 교수님의 <세계와 시민> 교양 수업은 어떻게 사유 능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대학은 진리 탐구의 공간으로 대학생은 진리 탐구를 위한 사유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것을 도우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교수님은 누구이 말씀하셨다. 수업을 수강하는 첫날, 교수님은 “저희는 앞으로 8주간 8편의 3장으로 이루어진 에세이를 매주 쓸 것입니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쓰고, 수업시간에 이를 다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비판적 사유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초반에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글을 작문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주 하다 보면 점점 작문하는 속도도 붙고, 자신의 사고 또한 확장되는 경험 또한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수업 방식은 먼저 책을 읽고, 그와 관련된 주제로 에세이를 쓴 다음, 수업시간에 그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다른 학생들과 각자 에세이를 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통해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조별 활동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곧 프로네시스(Phronesis),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실천적인 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프로네시스를 가졌다는 말은 곧 덕을 가졌다는 의미로, 프로네시스를 가진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행동하면서, 지행합일(知行合一)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본 수업의 최종적 목적이었다.

첫 번째 에세이의 주제는 '교육'이었다. 어떤 형식도 주어지지 않고, 교육에 대해 온전한 내 생각을 담기란 쉽지 않았기에, 내 경험에 빚대어 교육에 대해 충분히 사고 한 다음에서야 글을 쓸 수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모두 한국에서 재학한 나는 학창시절을 회고하여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며,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내 생각을 적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교육을 어떤 자세로 받았던가?', '한국 교육의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은 어떤 사고를 유발할까?', '경쟁 교육이 과연 정당한 시스템일까?' 등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 생각의 복합체를 형성하였다. 이런 생각의 다발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표현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자극과 반응을, 옳고 그름을 따져 근본에 다가서려는 일련의 과정, 즉 사유를 유발하였다. 내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에 관련된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 읽고, 이상적인 교육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

고의 방법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저 지식을 수용하는 배움의 수동자가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응용하고자 하는 배움의 주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쓰기는 자신의 지난 흔적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책을 읽고, 교육을 비롯하여 직업, 자유, 정의, 세금, 국가, 미래 등 세계시민으로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이 수업의 첫 번째 단계였다.

다음 단계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쓴 에세이를 바탕으로 토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것이었다. 수업이 시작하기 이전에 나는 이러한 수업 커리큘럼 순서 대해 의문이 들었다. 수업시간에 먼저 이 개념에 대해 배우고, 다른 학생들과 초기에 생기는 생각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확립하여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내 의문은 깨달음의 느낌표로 바뀌었다. 스스로 주제에 대해 깊이 숙고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내 생각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을 때,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생생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일주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교육, 정의, 자유 등에 대해 깊이 사유하여 글을 쓴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립한⁵⁾ 아마추어 전문가였다. 비록 아마추어지만 우리는 수업시간 토의, 토론 활동을 통해 말이 통하는 상대와 소통할 때의 즐거움을 느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이 이미 많은 것을 함께 알고 있어 기초적인 사안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열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던 것은 교수님의 이러한 커리큘럼의 순서 덕분이었다. 첫 번째 수업을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셨다. “여러분 대부분은 초중고 시절을 비롯하여 12년 이상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경쟁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의견에 확장된 질문을 던지셨다. “한국 경쟁 교육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많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고, 무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에게 과연 발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었다. 나는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생각을 펼쳤다. “독일은 경쟁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⁵⁾. 경쟁을 당연시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경쟁을 부정적인 원리로 봅니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극대화되면 또다시 나치즘 같은 야만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는 대학 입시가 없습

5)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냄출판사, 2020

니다. 독일의 대학은 제 1대학, 제 2대학 등으로 서열도 없죠. 이런 무경쟁 교육 시스템을 가진 독일은 여전히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쟁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만이 발전을 일으키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독일의 선례는 아직까지 한국에게는 이상적인 꿈에 불과하며, 경쟁을 아예 없애버리는 무경쟁 시스템보다는 현재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조금 더 공정한 경쟁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공감하여 내가 생각했던 독일의 선례가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해보며 조금은 극단적 해결책을 내놓은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한 학생들은 풍부한 지적, 도덕적 토론을 벌여 이렇게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당하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수정하며, 사고의 틀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본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강의실을 벗어나 더 큰 강의실인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가 모듬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자율성과 창의성, 소통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3~5명이 팀을 이뤄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사회적, 지극적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고들었는데, 내가 속한 조는 2021년 초 국제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삼았다⁶⁾. 당시 미얀마 국민들은 2021년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미얀마 군부의 강경 진압과 쿠데타 이후 900여명이 넘는 시위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가는 와중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늘고 있었다. 우리 조는 5월 광주의 아픔과 닮은 미얀마를 연대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우리는 먼저 당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미얀마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가 50.5%, ‘없다’가 49.5%로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설문 조사 이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본인의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관심 있음’이 9.9%, ‘관심 있음’이 29.7%, ‘보통’이 28.7%, ‘관심 없음’이 23.8%, ‘관심 전혀 없음’이 7.9%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유사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80.2%가 ‘동의한다’에 응답하였으며, 19.8%가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하였다. 우리는 이 설문 조사를 토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과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유사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조는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얀마의 현재 상황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세계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우리가 수많은 아픔을 딛고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였다. 첫

6)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위해 연대를, 불교신문. <http://naver.me/FEZi9eVr>

번째는 미얀마의 아픔을 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앞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의 미얀마 분들을 찾아가 군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지 상황과 그들의 심정을 인터뷰했다. ○○대학교 유학생 한 명과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미얀마 분 3명, 총 4명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자신의 주변인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이분들을 실제로 뵈기 전까지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미얀마 소식을 접했는데, 그때까지는 미얀마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안타까움으로 인해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그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감정에 서서히 동화되었다. 그들이 느끼는 슬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타지에서 가족들의 연락만 기다리는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었다.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나도, 조원들도 더욱 열정적으로 조별 활동에 임했다. 우리 조는 미얀마와 같이 민주주의의 피 흘린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을 답사하기도 했다⁷⁾. 그곳에서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자 평화적으로 행해졌던 5월 16일 햇볕 대행진을 소개하는 코너, 5월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게 학살된 165명의 희생자와 계승, 투쟁 과정 중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코너, 계엄군의 언론 검열에 의해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하여 시민 스스로 탄생시켰던 시민언론인 투사회보를 소개하는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시 광주 시민이 쓴 일기였다. 그들이 느꼈던 총소리의 공포와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진솔하게 담아냈기에 더욱 와닿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간직한 아픔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아픔이 미얀마의 현재가 되어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러 활동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의 광주와 현재 미얀마를 비교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였다. 미얀마 분들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혼란을 낳고, 혼란은 평화를 위협한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바란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 매주 월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모듬 활동을 수행하며 공감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기록관소개 > 인사말 <http://naver.me/xRQg1LhY>

정리하자면, 내가 이 수업을 '인생 교양'으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수업은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교양을 다루고, 이에 대해 비판적 글쓰기를 하고, 토론하며 자신만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 능력을 함양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업시간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며,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지구적 난제를 다루고, 실천하는 조별 활동을 통해 윤리의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며,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성장 스토리

1) 인류의 기적적 발명인 '독서'를 거부했던 나의 성장 일기⁸⁾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며, 인류의 뇌는 독서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있지 않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것은 고작 8,000년 전의 일이고, 점토에 새긴 문자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불과 6,000년 전의 일이다. 독서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다. 나는 이전까지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답게 본성에 어긋나는 독서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다. 상종열 교수님은 사유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이셨고,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독서라는 읽는 행위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독서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워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 수업 과제로 에세이를 쓸 때 독서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온전히 드러났다. 교육, 미래, 정의 등 단어로만 주어진 주제로 3장이라는 막대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고수준이 깊이가 있어야 했다. 그러지 못했던 나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방향도 잡히지 않았고, 주제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물론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아도 비판적 사고를 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아니었다. 비판적 사고의 공백을 벼락치기식으로 메꾸기 위해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에세이를 쓰기 위해 서적을 찾아 정보를 얻는 것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독서에 익숙해지며,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새롭게 가공하여 발현하여 나의 사고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이 독서 수업은 아니었지만, 사유의 틀이 한정되어있는 나와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려 독서를 스스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나를 향한 질책이었다. 글을 쓰면서 '왜 나는 이 맥락에 어울리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지?', '왜 나는 이 주

제에 대해 더 깊이 사고하지 못할까?'라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또한 토론, 토의를 진행할 때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을 생각한 그들이 내심 대단하다고 느꼈다. 더 나은 글을 쓰고,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던 나는 이 수업이 마친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독서라는 습관이 이 수업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서라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과 세상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연결시켜 내 생각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나는 현재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 토론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 토론은 얕은 독서가 아닌 깊게 읽고 사유하는 진정한 독서의 원동력이 된다. 하나의 주제로 탐구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전히 부족한 '나'지만 독서를 하며, 표면적인 글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고의 힘을 키워 더 단단한 '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2) 우물 안의 개구리가 나와 세상을 바라보다

우리는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알고리즘,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우물에 갇혀 사는 것이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은 나의 성향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자신의 성향에 맞게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명 발달의 축복이자, 불행이다. 나는 우물 밖이 어떤 세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의 개구리였다. 국내외적인 여러 이슈들에 관심이 없었고, 문명의 발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다. 이렇게 세상과 나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세계와 시민> 수업을 통해 우물을 벗어나 한발 한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이 수업은 세상을 향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계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그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등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교수님의 질문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가 처음 본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인류사회는 공평, 정의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다.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깨끗한 물이 부족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번 위기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와 시민> 수업을 하면서 나에게 '글로벌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것일까? 모든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현장 활동을 하며 만났던 미안마 분들의 많은 감정이 담겨있던 눈이 잊혀지지

8) 유선경, 『어른의 어휘력』, 앤의서재, 2020

않는다. 그들을 돕고 싶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개구리 한 마리의 생각은 큰 힘이 없었다. 인권에 대한 침해, 불평등, 가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한 후, 글을 쓰고, 토론을 하며, 나를 포함한 학생들은 어떻게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탐구했지만, 제시했던 해결책들이 그저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와 같이 우물 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우물을 벗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세상은 더욱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다. 이 생각은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학교의 교양 수업이 개선되어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알고리즘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우물 속의 개구리를 형성할 것이고, 편협한 시각은 세상의 다수가 되어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것이다. 대학은 이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며,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세상의 원리와 근본도 모르는 개구리에서, 이제는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려고 다짐한 것처럼 대학은 우물 속의 개구리를 꺼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⁹⁾.

유네스코는 평화롭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세계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나, MZ 세대에 극심한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세계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현재 세계시민 교육을 전교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단위로는 우리 대학교가 유일하다¹⁰⁾.

대학은 기계를 길러내지 않고 인간을 길러낸다. '영혼 없는 탁월성'은 무의미하다. 교양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적 균형과 견고성'의 토대를 길러주는데 있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원리와 근본을 아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기획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실천하는 <세계와 시민> 수업은 나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나의 이러한 교양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민 교육이 확대되어 교육계와 사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9) Sam K Son),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이슈와 세계 시민 교육』, 지식공감, 2020

10)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ttps://www.khu.ac.kr/upload/notice/HumanitasCollege_2020.pdf

참 · 고 · 문 · 헌

-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 취재팀,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한국경제신문, 2020
- 교양 교육의 고전적 전형과 현대적 변용, 손동현 부총장, <https://youtu.be/OTLcpqudwYo>
- 이명곤,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 세창출판사, 2014
-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냄출판사, 2020
- 미안마 민주화와 평화위해 연대를, 불교신문, <http://naver.me/FEZi9eVr>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기록관소개 > 인사말 <http://naver.me/xRQg1LhY>
- 유선경, 『어른의 어휘력』, 앤의서재, 2020
- Sam K Son),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이슈와 세계 시민 교육』, 지식공감, 2020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ttps://www.khu.ac.kr/upload/notice/HumanitasCollege_2020.pdf

03

과학을 바라보는 사회학적 상상력

이 힘(사회학과)



1. 수강 동기: 우연히 만나게 된 나의 인생 교양

때는 봄이 오기 전 아직은 추운 늦겨울이었다. 겨울방학을 활용해 강릉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는 일정이 수강신청 날짜와 겹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손가락 다투는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긴장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과목 신청을 눌렀다. 원하는 모든 과목을 신청하던 도중, 아불싸, 버스가 터널로 들어가 버리며 한 과목을 신청하지 못 한 채 인터넷 연결이 끊겨버렸다. 터널 밖으로 나와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보니 원하는 다른 과목들은 이미 수강 정원을 채운 지 오래였다. 들을 수 있는 남은 과목은 단 하나,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이하 역읽테)라는 내 인생 교양은 조금은 우연히 다가왔다.

물론 듣기 싫은 과목을 억지로 수강한 것은 아니다. 수강신청을 준비하는 중 과목의 제목과 강의 계획서 내용을 보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듣고 싶은 강의 리스트에는 올려두었던 과목이다. 나는 나름대로 듣고 싶은 과목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첫 번째로는 얻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수업 내용에서, 아니면 과제를 통해 내가 체득하고 배울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이 소위 말하는 꿀 교양(높은 학점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할 때, 나 홀로 다른 교과목에 관심을 갖고 수강신청을 했다. 두 번째는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기준에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사뭇 결이 다른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사회과학도인 내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언어에 대한 매우 훌륭한 강의를 들어도 얻어갈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과 나의 공부 방식이 다르다면 수업에 좋은 마음으로 임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내가 몰입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찾고, 혹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면 과감하게 다른 과목으로 수강 정정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역읽테 수업을 처음 수강할 때 설레는 동시에 걱정도 있었다. 과학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부터 들었다. 고등학생일 때부터 과학과 담을 쌓았던 내가 과연 이 수업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있고, 몰입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 물론 이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뒤에 설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이 강의를 통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왜 역읽테가 나의 인생 교양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2.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여러분에게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은?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요소로 둘러싸인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통신망 업체 K사의 통신망 먹통 상황이 있을 때 삶의 많은 요소에서 제약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 한 부분에도 통신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막대한 피해를 받은 조직도 있었다. 그러나 이 통신망 기술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은 아무도 갖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기에 이용할 뿐,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심지어 어떤 원리로 통신이 이뤄지는지 잘 알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강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좋은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시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쁜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시는" 사실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기술에 대해 가치판단의 관점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 당시 다른 학우들도 이 질문을 받고 꽤나 오랜 시간 생각을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나는 좋은 과학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특히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꼽았고, 나쁜 과학으로는 전쟁으로 활용되어 많은 이들의 목숨과 건강, 그리고 삶 자체를 앗아간 기술을 예로 들었다. 나의 대답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답이라고 보아도 된다. 누가 보아도 좋은 기술이고 나쁜 기술이지 않은가.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정답이기에 너무나 피상적이다.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했다.

수업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사례를 알아보며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다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넓히는 시각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리고 나쁜 과학의 갈래를 보다 세분화해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나쁜 과학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나쁜 과학이라고 판단하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우선 여러 가지 나쁜 과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흡연과 담배 회사에 대한 관계, 지구 온난화와 오존



홀, 냉전 시대의 우주 개발 상황, 맨하탄 프로젝트와 거대과학,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DDT를 비롯한 화학 약품에 대해, DNA와 공정 과학의 문제, 자본과 당뇨병 치료제, 상온 핵융합 발표 사건,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과 시민과 과학의 관계, 황우석 박사와 연구 진실성 제도 등 다양한 과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배울 수 있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가 보아도 사람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정말 나쁜 과학이 있는 반면, 어떤 사례는 나쁜 과학인가 좋은 과학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는 왜 이 사례가 나쁜 과학에 속하는지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에서는 이런 모호함을 명확한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나쁜 과학을 하나의 키워드로 두고 나쁜 과학이 이루어지는 원인의 차원을 나누어 분류 기준을 세웠다. 사회 구조적 차원, 과학 기술의 본질, 정치적인 차원, 그리고 과학자 개인의 차원 등으로 나누게 되었다. 즉 이 기준을 통해 위의 사례를 간단히 분류해보면, 담배 회사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인 차원과 연관되어 있고, 맨하탄 프로젝트와 거대과학의 경우 해당 과학의 기술적인 본질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개발에 대한 과학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고, 핵융합 사건과 황우석 박사 논란 등에 경의 과학자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나쁜 과학의 사례이다. 이처럼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 하고 오늘날 사회에 있는 기술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깊게 만드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수업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례 분석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과목은 산업 연계 프로젝트 진행 과목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산업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수업 연계를 활용하는 플립 러닝을 통해 수업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산업 연계 형태의 수업 형식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쁜 과학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립한 이후에는 각 사례에 맞게 팀을 구성해서 분석하고, 해결책이나 바라보아야 할 관점을 발표로 제시하였다. 매번 무작위로 조가 만들어지고 해당 조만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준비하는 것도 나쁜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하게 키울 수 있었지만, 다른 조의 발표를 듣는 것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의 첫 우려와 달리 다행히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해당 과학에 대해 지나치게 깊은 과학적 원리와 과학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과학 사례에 대해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현실 세계, 산업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문, 사회 과학적 관점을 더욱 활용했다. 물론 사례의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알고는 있어야 했지만, 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해당 나쁜 과학의 사례가 이루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인문 철학적인 연구 윤리와 사회 과학적인 상호 이해관계

에 대해 융·복합적인 탐구 방식을 요구했다. 다양한 학과에서 모인 학우들과 토론을 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매번 흥미로웠다.

이는 과목의 담당 교수님인 박민아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 또한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다양한 나쁜 과학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당뇨병과 제약 회사의 나쁜 과학 사례의 경우 특강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조별 활동과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 준비에 있어 항상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기에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한 명의 정책 분석가

수업에서 가장 독특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산업 연계 수업의 목적에 따라 문제 해결의 상황에 대해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한 명의 정책 분석가로 상정했다. 이에 나는 정부 정책 연구소에서 "나쁜 과학"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나쁜 과학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의뢰 받은 한 명의 정책 분석가가 되었다. 그렇기에 나쁜 과학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사례가 왜 나쁜 과학인지, 그리고 미래에 그런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분석을 해야 했다. 이는 최종 과제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 되었으며, 한 수업의 학생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분석해야 하는 분석가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업은 매 시간 분석의 연속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별로 나누어져 해당 사례에 대해 더욱 깊게 분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DDT와 살충제에 대한 수업이었다면, 먼저 이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배우게 된다. 침묵의 봄이 쓰인 시기와 그 시대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역사적 차원에서 배운 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화학 약품과 살충제 등의 과학 기술을 마주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조별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렇기에 조별 활동을 할 때는 물론 수업을 들으면서도 오늘날 사회에 위와 같은 나쁜 과학이 적용되는 사례를 나 혼자서 더욱 생각해보고, 그 기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했다. 즉 내가 정책 분석가가 되기 위해 나만의 분석틀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의도치 않아도 내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 자연스럽게 몰입하며 찾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수업 방식을 통해 인상 깊게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주제가 있다. 상온 핵융합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상온 핵융합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확실하지 않은 실험의 성공을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발표한 점에서 비롯된 나쁜 과학의 사례다. 핵융합 반응은 고온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태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고온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을 통해 헬륨과 에너지를 만드

는 것으로 대략 1억 도의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핵융합은 핵분열에 비해 방사능 오염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원료가 수소와 리튬으로 무한정하다고 볼 수 있다. 바닷물 1리터로 300리터의 가솔린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즉 연료 1그램 당 석유 9톤의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이다. 핵융합 발전소의 구조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크고 복잡하다. 그리고 1억 도가 넘는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양의 원료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반 핵융합, Hot Fusion은 경제성이 너무나 낮다. 그렇기에 실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다면 경제성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폰즈(Stanley Pons)와 플라이슈만(Martin Fleischmann)이 상온 핵융합 실험을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비일상적인 경로를 통해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에 공유 하지 않은 채 바로 대중 매체를 통해 실험 성공 발표를 하게 된다. 이에 놀란 과학계는 갑작스럽게 이 실험에 대해 주목하지만 신뢰성 있는 정보 보다는 여러 다른 매체에서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아지며 정확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즉 믿음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 유통은 어느 때보다 빨라져서 문제가 되었다. 원래의 경우 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 조직에 전달하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키워야 한다. 여러 프로토콜과 프리 프린트가 있어야 하고 동료 평가 등의 과학계 내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신력 있는 잡지나 뉴스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과학자의 경우 과학 발견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를 했고, 이는 큰 혼란을 초래했다. 물론 당시 두 과학자가 속한 유다 대학과 영국 브림검 대학의 경쟁 관계에 대해 폰즈와 플라이슈만이 영리하게 대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실험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미국 물리학회와 물리학자 쿠닌과 반즈, 화학자 루이스가 재현 실험을 해서 위 실험이 재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두 과학자는 물론 상온 핵융합 연구 자체가 과학계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나쁜 과학의 분석 관점으로 바라보면, 먼저 과학자 개인이 신뢰성과 검증 절차 등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연구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실험 결과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 되면서 연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더욱 문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과학 발견의 우선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렇게 심화된 것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과학 연구의 상업성이 커지면서 우선권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과학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동료 심사나 저널이 과연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위 사례처럼 이마저도 무시하고 바로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하지만, 과연 동료 심사나 저널이라고 모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도 있었다. 대중매체는 당연히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즉 돈이 되는 내용이고 임팩트가 크다면 방송에 실기 때문이다. 동료 심사와 저널은 이보다는 신뢰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한국의 황우석 박사의 사례를 본다면 동료 심사를 거쳤음에도 조작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융합 사건과 이를 비롯해서 과학계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나쁜 과학의 분류 기준을 보다 다양하게 넓힐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수업들을 통해 나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나쁜 과학 사례를 분석하게 되었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플라스틱과 환경'에 대한 문제였다. 최근 기업들이 ESG정책을 펼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외치는 상황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커졌다.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많은 캠페인과 공익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스틱이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양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나쁘다는 피상적인 관점 이상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정확히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늘날의 대안들이 적절한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고안했다.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3대2 분석틀을 만들었다. 의도에 따라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그리고 나쁜 과학의 영역에 따라 생명과 관련된 나쁜 과학인지, 경제 자본과 결합한 나쁜 과학인지,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나쁜 과학인지로 파악했다. 즉 6개의 분석틀 테이블 안에 플라스틱 문제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찾아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과학은 한 영역에 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듯이 모든 나쁜 과학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서 나쁜 과학이 되는 것이다. 즉 플라스틱은 환경, 즉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플라스틱 처리와 관리의 영역에서 본다면 경제와 자본의 차원에서 나쁜 과학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에세이를 작성하며 확인한 바로는 지금 플라스틱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 그리고 기업에게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적다. 해수면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예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0.1%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빨대로 피해를 받는 거북이 사진을 보며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 한다. 사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플라스틱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대신 다회용 도구를 만드는 것은 비용도, 그리고 심지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클 수 있다. 결국 다회용 도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운영되는 공장에서 환경 문제가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다회용 용기를 폐기할 때 더욱 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플라스틱과 환경 문제만 생각하면 결국 본질적인 플라스틱이 지닌 나쁜 과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 사례가 왜 나쁜 과학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그 원인에 따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작성하며 배울 수 있었다.

수업은 참여 점수를 제외하면 두 번의 기말고사와 한 번의 페이퍼로 평가를 받는다. 물론 그 기준에 따라 미달이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만, 과제를 위한 과제, 시험을 위한 시험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 뜻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억지로 지엽적인 내용을 암기해야 하고, 과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어렵게 글의 내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수업 시간에 듣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분석 방식을 정립하고, 어떤 나쁜 과학의 주제에 대해 접근 한다면 과제와 시험을 처리하는 일은 너무나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다.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평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오픈북 시험에서 나의 생각을 넓게 펼칠 수 있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나만의 분석틀이 명확하다면 결코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배워가는 내용도 많아질 것이다.

4. 성장 스토리: 사회와 과학을 바라보는 렌즈 나쁜 과학의 상상력

나는 한 명의 정책 연구원이 되어 하나의 나쁜 과학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의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사회학을 전공으로 하며 배운 점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여기서 상상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상과 망상을 뜻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이 보지 않는 이면을 보는 힘을 뜻한다. 즉 사회의 사소한 현상일지라도 이 점에서 이어져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이 교양도 그 점에서 방향성을 같이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과학의 요소, 기술의 영역을 다시금 바라보고, 이 과학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관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둘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이 수업은 과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SF같은 공상 과학을 상상하는 것이 아닌 과학의 본질과, 과학과 얽힌 관계를 읽는 방법을 배운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 기술이 등장했는지, 과학자 개인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해, 이 기술과 과학이 사회에 적용될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 수업을 듣기 전, 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의 생각의 틀이 매우 넓어지고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대학에 들어온 직후, 입시 공부만을 하던 때에는 특정 현상과 상황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그저 암기하고 외우는 데에 급급하며, 통시적인, 시·공간적 차원을 아우르며 인식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그렇기에 그런 관점의 필요성도, 관점이 넓어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학 입학 후 수업을 들으며, 전공과목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며 단순 암기의 시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공부하기 위해 암기의 단계는 필요하다. 어떤 교수님은 공부를 4단계에 걸쳐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해, 두 번째는 암기, 세 번째는 정리, 네 번째는 적용이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중요하고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나는 여기서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하고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정리가 필요했고, 또 이를 내가 2차적으로 재생산하며 다른 영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다각적인 시각, 정리와 적용의 단계로 이어지는 사고를 키워왔다. 물론 전공의 특성상 인문, 사회 과학과 관련된 시각을 키우는 데에 중점적으로 힘을 들였다. 그렇기에 역업테라는 과목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의 시각을 키워준 중요한 교양 과목이다. 내가 등한시했던 과학과 공학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환경, 인문, 철학적으로 연관 지어 문제점과 현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또 그 필요성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앞서 많이 설명하였듯이 나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의 과학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데에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 생각한다.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 졸업을 위해 들어야 할 과목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를 넘어 더 큰 사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이런 사회, 과학적 상상력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졸업 이후에는 방송, 언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한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다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현상,

하나의 사물, 하나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측면만 보고 단정 짓는 것이 오히려 나의 주관이 더욱 들어가고, 전달을 받는 청자에게 편향된 가치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 교양 역임테를 통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

역임테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가 더욱 유연과 같았던 점은 안타깝게도 폐강이 될 뻔 했던 과목이라는 점이다. 처음 수강 신청이 끝나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접속한 인원은 교수님을 포함해도 5명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행히 수강신청 정정 기간을 거쳐 인원이 충원되어 강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좋은 과목이 폐강될 뻔 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니 많이 아쉽다.

종합대학을 다닌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은 내 전공 이외의 다양한 수업, 환경, 경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을 전공해도 공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자연과학을 전공하더라도 예술에 대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융, 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본인에게 주어진 졸업 요건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이 아닌 눈앞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석상대 하는 모습이다. 딱 알맞은 사자성어라 생각이 드는 것이,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임기응변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 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의 취업과 진학, 또는 창업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고를 넓히고 생각의 관점을 다양화해야 할 20대 청춘의 시기에 조금은 아쉽게 쓰이고 있지 않은가 싶다.

5. 결론: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 새로운 시각으로 읽는 사회

지금까지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가 왜 나의 인생 교양인지, 수강 신청부터 강의의 내용, 그리고 수강 이후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로 작성해보았다. 내가 이 강의를 인생 교양이라 생각한 이유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과학의 사례를 보며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치부하던 기술과 과학에 대해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융·복합적 관점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즉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으로, 인문, 사회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 좋은 교양 과목이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은 교양 과목을 수강했다.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함도 있고, 듣고 싶었기도 했다.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라는 과목을 조금은 우연히 접했지만 나

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수업을 통해서 배운 분석의 방법과 사고의 폭, 과학적 상상력을 유효하기에 나의 인생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학우들도 나와 같이 하나의 인생 교양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사고의 틀을 뒤바꾸는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인생 교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 경우처럼 우연히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 고 · 문 · 헌

- 윤경준(2020),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정관리학회, 제30권 제4호, p28
- Michael Shellenberger,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부키, 2021, p113-149
- 최수진, 구현모 KT 대표, '먹통 사태' 사과... "보상방안 마련할 것", 한국경제, 2021.10.2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64217g\(2021.10.25\)](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64217g(2021.10.25))

04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다

선문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초학제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초학제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의 목적은 기존의 분과학문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관점의 상호연계를 통해 개별학문을 뛰어넘는 미래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초학제 연구 시대의 역사적 배경, 방법론적 쟁점, 실천적 의미 등을 인문학의 미래와 관련지어 살펴봄. 초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들을 탐색한다. 전체적으로 수업은 초학제와 관련한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역사(경이의 시대), 인간(제 3의 침팬지), 윤리(옳고 그름), 마음(뇌 의식의 탄생), 감정(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질병(면역에 관하여) 등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철학적 주제들을 유명 도서를 통해 탐구하였다.

이 수업은 SMART-F 수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 관련 내용을 예·복습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수강생들끼리 토론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융합교육원(과학철학교육위원회) 소속이자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천미림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강의하시고, 기초필수과목인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강좌를 만드신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의 녹화 강의를 병행하여 듣는 플립 러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수강 동기

"대학 다니면서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하는 책한다는 책 있어?" 작년 말 이런 질문을 친구에게 받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평소 독서 하는 습관이 안 갖춰 있던 것도 이유였겠지만, 달라진 나 자신의 모습에 오는 실망감이 더 큰 이유였다. 대학을 오기 전만 해도 나는 시간을 내서라도 도서관을 방문하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었다. 특

히나 문학을 통해 그 당시 시대상이나 사람들의 생활 및 사고방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를 통해 장학퀴즈 한국문학 편에 나갈 정도로 나에게 독서는 진심이고 즐거운 활동이었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온 뒤로 노는 것 혹은 과제나 알바를 핑계로 책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 정도면 많이 읽었으니까 된 거 아닐까?', '책 읽을 시간에 학점과 관련된 활동이 더 도움 되지 않나?'라는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수업이면 수강하려 하지 않았고, 전공 상 읽어야 하는 경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데 그쳤다. 나는 독서의 즐거움을 잊은 채, 질문을 받기 전까지 진정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인문대로 복수 전공을 택한 것도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갈증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서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친구에게 질문을 받은 일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인문학도로서 과거의 지식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천적인 주제들을 탐색하고 싶었기에 초학제시대의 미래 인문학을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이 단순히 독서만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균형감 있게 습득하고 현실의 문제와 연관 지어 여러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점이나 나의 문제의식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3. 해당 교과목이 "인생 교양"인 이유

인생 교과목으로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정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주요한 주제들을 다룬 도서들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고 초학제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다. 두 번째, '생각 나누기' 작성이다. '생각나누기'는 수업에서 다루는 교재와 강의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 본인의 생각을 2~3쪽으로 쓰는 과제이다. 책의 내용에 대해 단순히 반대를 하기보다는, 책의 구조와 주장, 논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책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비판 의식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다. 세 번째, 발제 활동이다. 생각 나누기를 단순히 과제로 끝내지 않고, 더 논의해보고 싶은 문제를 덧붙여 발표함으로써 학우들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네 번째, 토론 활동이다. 매 수업이 끝난 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토론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와 접목하거나 저자의 주장에 더 깊게 파고들어 나의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플립 러닝 방식이다. <뇌 의식의 탄생>이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같은 과학적인 내용이 담긴 주제의 경우, 미리 녹화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어려운 내용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실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도 복습을 할 수 있기에 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 책을 제대로 읽는 습관을 함양할 수 있었다. 책을 아무리 집중하여 읽어도 책을 오랫동안 제대로 기억하기는 힘들다. 독서에 그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써야 하고, 다른 학우들과 생각을 나눠야 하므로 책을 읽고 단원마다 내용을 정리하여 메모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한 독서뿐만 아니라 책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특정 분야만 찾기보다는 여러 사회 및 철학적 문제를 다룬 책들을 찾아 읽는 습관이 들게 되었다. 두 번째로, 토론 및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내가 책을 읽으며 든 느낌이나 의견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남들과 비교할 수 없기에 자칫 편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각 나누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책을 읽으며 저자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이유와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를 학우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글을 구조적으로 작성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현대의 사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단순한 인문 서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면역에 관하여'는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백신 접종이나 집단 면역 문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 '뇌의식의 탄생'을 통해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에 관해, '옳고 그름'을 통해 공리주의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등 책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현대사회 문제와 접목하여 사고할 수 있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과제 평가 방식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쓴 과제물에 대해 어디 부분이 좋고 아쉬운 부분이며, 어떻게 고쳐 써야 할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한 학기 내내 제출한 모든 과제물을 합쳐 산출한 알파벳 하나가 피드백이 끝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첫 번째 수업으로 '올라비스의 면역에 관하여'에 대한 생각 나누기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였는데, 내가 쓴 글을 평가 받고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는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의 핵심을 잡은 것에 대해 칭찬과 더불어 부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나의 의견과 저자의 주장을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지 꼼꼼히 첨삭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매 수업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안 좋은 글쓰기 버릇이나 습관을 고쳐나가면서 글쓰기에 대해 재미도 붙이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나중에는 완성도 있는 생각 나누기를 작성할 수 있었다.

4. 성장 스토리

1)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변화된 태도

첫 번째로 읽은 올라비스가 쓴 '면역에 관하여'를 통해 초학제적 보건학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었다. 현대 의학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이 난무하는 현재, 또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현대인으로써, 그리고 백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이때, 우리는 백신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들을 가

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이전까지 백신에 관해서 개인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백신에 대한 안전과 확신이 덜 확보된 상태에서,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을 의무적으로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저자의 주장대로 우리는 서로의 협력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나의 자유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른 의미에서, 이러한 이타적 행위는 결국 나의 보건위생에도 도움이 되는 이기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대한 간접적인 보호이자 저자가 말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덕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간접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도덕 구조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백신 접종과 혐오 현상에 대해서도 책의 문제의식을 접목할 수 있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코로나19의 발원지를 특정 지역으로 지목하며 대규모 확산의 책임을 지역 시민들에게 돌리는 일이 있었다. 전파지로 지목된 곳에 대한 두려움은 이내 비난과 함께 지역에 대한 낙인과 혐오로 번졌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동양인 탓으로 돌리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올라비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안티 백신 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타자와 자신을 분리하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 보험을 통해 백신을 맞는 계층은 경제 빈곤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이들과 분리되려는 욕구를 지닌다. 또 자신들의 경제력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분리된 채로 안전한 집단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 백신이 계층 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들에게엔 타자, 즉 외적인 요소(주사기 바늘)를 차단하여 자신들의 집단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를 특정 지역과 연결지어 명명하거나 봉쇄 정책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을 그들로부터 분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언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전염병을 둘러싼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의 기사에 대해선 어떠한 의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성을 지닌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만한 정보원으로 간주 되는가? 초창기 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백신의 안정성에 언론의 집중포화를 당하기 시작했고 이는 백신 접종에 대해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 연관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후 사망 보도를 쏟아 내며 백신과 사망을 단숨에 연결 지었다. 일부 언론사 간에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사망 보도에 열을 올렸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자극은 의심을 낳게 되고, 이는 결국 집단 면역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저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백신 논란을 검토하는데 특히 백신이 갖는 사회적 은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후반부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면역의 현대적 은유들을 해체하고, 면역계와 사회적 몸을 '정원'이라고 통칭하며 인간의 면역이나 질병이 개인적인 독립적 사건이 아닌 공동체 내 유기적 대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결국 전염병에 있어 과학 지식이나 의학적 연구결과가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언급함으로써 백신 찬반논의가 단순히 의학에 국한된 논쟁이 아닌 사회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도 여러 학문의 경계를 뛰어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신찬반의견에 대한 수업내용은 단순히 미국의 사례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내가 속한 사회의 다양한 사건과 면모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상황이나 모순적 난제들에 대한 윤리적 논의들을 명료하게 하고 나만의 의견을 만들 수 있는 인문학적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지금 사회는 우리에게 과학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요구한다. 이번 수업에서 다룬 주제들은 단지 백신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논의들로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수업에서 다룬 주제 중 심화 및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

나는 과학기술 관련 윤리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감정학을 다룬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국제적 윤리정치를 다룬 '옳고 그름'으로부터 얻는 아이디어들을 나만의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첫째,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감정이라는 존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막상 감정의 형성 원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려 하면 한없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고전적으로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고 외부 자극을 통해 세상에 대한 반응이 감정으로 정의되었다. 뇌에는 이미 '감정회로'라는 존재가 배선되어 있고, 감정은 뇌 속 어딘가 묻혀있는 신화 속 감정회로의 자비 아래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졌다. 저자 리사 펠드먼 배럿은 이런 전통적 입장에 반기를 든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감정 회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짐작으로 구성되는 후천적 산물이라 주장한다. 이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뇌가 예측하고 경험을 구성한다.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볼 때 표정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읽으려 하지만 진짜로 하는 행동은 비슷한 상황의 과거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내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기하였는데, 나는 이 주장이 철학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하며 기존의 신화와 관념에 대한 도전이며 주체적인 인간을 강조하

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서양 윤리학자들은 감정은 수동적이고 통제 대상의 존재로 인식하였다. 감정과 이성을 구분함으로써 감정은 이성의 우위를 위한 존재일 뿐이고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내부의 적"으로 간주 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강조하였고, 근현대 철학 역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했다.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은 우연히 발생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그녀는 아이에게 감정에 관해 가르칠 때, 본질주의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한다. 본질주의란, 우리 존재에게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고로 우리는 보통 슬프면 울어야 하고 행복하면 미소를 지어야 한다 등이 고정관념이다. 이는 우리에게 본질과 관련된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우리 모두에게 타고난 감정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프레임에 벗어나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더 나아가 감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다. 우리는 가끔 '찾김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뉴스를 종종 접한다. 감정이 감정회로 아래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라면 위의 행동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누구도 본인 이외에는 책임질 수 없다. 이런 행동은 감정적 실수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이 미리 설정되어있고, 이것이 이성적인 부분과 다소 관련이 없는 충동적이고 자동반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감정적 행위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에 대한 고정적 견해는 이제껏 설득력을 얻어 왔으며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납득되어 왔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화내는 그의 모습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대부분 분노로 인한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것이다. 나는 두 견해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그리고 감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심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과 빼놓을 수 없는 인공 지능과도 연관 지어 논의해볼 수 있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로 사용자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분석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취업 인터뷰 소프트웨어부터 감시 시스템 자동화, 법원까지 마케팅, 보안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된다. 한 AI 개발업체에 따르면 87개 나라의 700만 명의 표정을 학습하여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사람의 감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사람조차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을 인공 지능 기술이 판단하고 자동화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에 의하면 감정인식 AI 알고리즘 분석이 과

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시는 인상 찌푸리는 것을 보고 화를 낸다고 분석하였지만 알다시피 인상 쓰는 행위가 분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정확한 감정 분석 기술을 이용해 재판에서 형량 판단의 근거로 쓰이거나 의료 진단 과정에서 표정만 보고 질병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된다면 어떨까. 기사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에선 공항에서 입국자 표정을 거짓말 여부를 시가 판단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구성된 감정 이론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인식 시스템을 만든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초상권 침해 등 윤리적 문제점도 제기된다. 테러범 경계를 위해 다리와 터널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고 지하철 안에는 쉴 틈 없이 얼굴인식 시스템이 돌아간다. 소설 '빅 브라더'처럼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위험성과 발전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분야이기에 우리는 감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옳고 그름' 역시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 중 하나였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 아마도 대부분이 도덕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전히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며, 어떻게 뇌에서 구현이 되는지는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의 영역이다. 저자 조슈아 그린은 우리에게 "세계적 차원의 고차도덕으로써 도덕철학"을 제시하려 한다. 세계를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종의 다양한 도덕 부족들로 상정하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덕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적절한 수준의 공리주의를 깊은 실용주의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고차도덕의 기준이다.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기에 선과 악의 이분법적이고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고차도덕은 실제 세계에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깊은 실용주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가 과연 전 세계의 공동 통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비판점도 제기된다. 깊은 실용주의라 하여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구체적 실용주의로 옮겨 온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기에 어떻게 개별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 만약 없다면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을 따라야 할까?

이와 더불어 '트롤리 딜레마' 문제 역시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이다. 윤리학의 유명한 사고 실험 중 하나로,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거나,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 하는 두 선택지 중에 정답을 윤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다. 이는 최근 각광 받는 자율 주행 기술 문제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자율 주행차가 만약 트롤리 딜레마처럼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사이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어떤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만약 다수가 차에 치일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핸들을 꺾지 않으면 다수가 죽고,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죽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의무론과 공리주의처럼 전제를 다르게 지닌 도덕 이론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애초에 순환 논증의 오류이기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 것이 그나마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자율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문제를 실생활에 적용해봄으로써 명확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감정학과 윤리학에 관한 주제들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학에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 우발적 범죄의 처벌 근거, 시의 감정 문제 등으로 논의들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윤리학에서는 사회에서 합의 가능한 고차도덕의 가능성 타진과 트롤리 딜레마 같은 모순된 윤리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논의들은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논의들이며 동시에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적용해보면서 나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3) 나의 삶과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

'통섭'이란 단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지식의 통합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미국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한 자연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학문에 그치지 않고 종교나 예술도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낯은 선 굵기는 버려두고 과학과 함께 하되 서로의 가치와 영역을 존중한 채로 통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과 낭만. 대부분은 두 개념은 반대의 선상에 놓여 있으며, 서로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낭만은 주관적이고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 리처드 홉스는 역설적인 두 개념이 공존할 수 있었던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를 '경이의 시대'라고 지칭하며 낭만주의 과학의 시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낭만주의는 서유럽에서 18세기에 계몽주의에 반하는 운동으로, 과학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치, 예술 및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은 원래 음악가였으나, 천왕성을 발견한 뒤로 가능할 수 없는 큰 우주를 낭만적으로 상상하며 인류가 우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패러데이, 벅크스 등의 낭만주의 시대 과학자들은 당대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프랑켄슈타인'같은 역작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낭만주의 시대 과학자와 탐험가들은 주관적인 편견과 감정을 배제한 채 실험과 탐험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열정을 통해 자연과 미지의 신비를 파헤치고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헌신을 가지고 낭만적인 모험을 떠나 '경이로움'을 가져 왔다. 하지만, 실증주의가 부상하면서 과학적이란 말은 실증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과학이 반증 가능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성격이 강조되면서 과학과 낭만은 영원히 분리되었다. 저자는 경이를 느끼는 감각, 희망, 지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과학 대 종교, 과학 대 예술 같은 낡은 선 굵기를 그만하고 더 풍부하고 확장된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과학과 낭만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대척점 관계에 위치한다고 믿고 있었다. 과학은 객관성을 추구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낭만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념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 역시 어울릴 수 없는 선 굵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자의 주장을 토대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함께 나아가려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는 가치 판단에 집중하고, 과학은 현재 그대로를 파악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관여해야 할 영역이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교는 과학이 제시하는 지식과 사실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유전자의 복제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과학기술에 대한 도덕적 문제나 가치 판단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 방법을, 종교가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서 신께 기도를 드리며 느끼는 경이로움과 놀라운 과학기술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은 딱히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 수업이 나의 삶과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초학제적 사고방식이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하나의 사고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행위가 얼마나 편협하고 한계를 지닌 방식인지 배우게 되었다. 백신이나 공리주의, 인간의 감정 등의 어떠한 현대사회의 이슈에도 다양한 윤리 및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음을 인식하고,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과거만 탐색하고 나의 학문과 관점을 공고히 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지니는 것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명심하게 되었다.

참 · 고 · 문 · 헌

- 강석기, 표정을 보면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 동아사이언스, 2020.03.18,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5206>
- 강승만, AI, '감정 인식' 신뢰 문제... 얼굴표정-감정 매칭 30% 불과, Ai타임스, 2019.07.26.,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270>

05

과학 소설은 현실 속 과학이 된다 (Science fiction become science fact, SF become sf)

이주예(물리학과),
이찬영(에너지공학과)



1. 수강 전 모습

[찬영]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문, 이과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매일 수학 문제를 풀고 싶지는 않았지만 문과는 취업이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억지로 이과를 선택했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 과목들을 꾸역꾸역 공부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대학에 간다면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과목들을 마음껏 들을 생각에 신이 났다. 나에게 대학은 정말 이상적인 곳이었다. 늘 정해진 과목의 수업만 듣다가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니! 대학을 합격하고 어떤 수업을 들을까 상당히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꽤 달랐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20학점 중 15학점이었다. 하나의 수업 당 2~3학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내가 원하는 수업은 단 2개만 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나는 더욱 신중하게 수강편람을 들여다보아야 했다. 어느 날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으로 인기 교양과목을 찾아보다가 IC-PBL이라는 단어가 나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 문제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니!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멋진 대학생이 될 나를 상상하게 되었다. 게다가 기술시대의 인간과 윤리라는 이름도 문·이과의 융합을 예측할 수 있어 문과 과목을 듣고 싶으면서 이과 학생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들을 수 있는 교양으로 나에게 최고의 강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수업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누나가 같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부랴부랴 누나에게 연락해서 같이 교양을 듣자고 이야기했다.

[주예] 원하는 대학으로부터의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매일이 들떠있었다. 공부 좀 해보겠다고 토익학원도 다니고 물리공부도 하며 앞으로 걸어갈 첫 발자국을 내딛기 전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겨울이었다.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찬영이가 기술시대의 인간과 윤리를 같이 듣자고 했을 때 벗

속까지 이과라고 자부하던 나는 과연 내가 인간과 윤리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고, 솔직히 말하자면 '기술시대는 그렇다 쳐도 인간과 윤리? 괜히 수강했다가 문과대학 학생들에 치여 학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해당 과목의 강의 계획서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현대 기술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라는 점이었다. 더 이상 현대 사회는 기술 없이는 살아가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당장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과정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우리는 먹고, 공부하고, 자는 모든 생활을 기술이 스며들어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시대에서 '기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다면 난 어떻게 대처하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위해 수강을 결정했다.

2. 교수님 소개

담당 교수님이신 이채리 교수님은 주로 가상현실, 인터넷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신다. 「가상현실의 비실재론적 현실성」, 「인터넷의 존재론적 특성과 온라인상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찰」, 「굿먼의 별 만들기」, 「초록색 에메랄드」 등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셨고, 저서로 『가상현실, 별 만들기』를 저술하셨다¹⁾. 덕분에 기술시대의 인간과 윤리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람과 로봇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새로운 인간의 정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고, 첨단과학기술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시대 또한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3. 강의 소개

기술시대의 인간과 윤리는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로 산업체, 지역 사회, 대학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다²⁾. 기술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시면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주일동안 생각해보고 토론을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책, 학자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온전히 내 생각을 말해야하는 수업이다. 때문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시

1) 학계의 신진기에 시간강사들④ 철학 -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601100026>

2) 한양대학교 교직원편집위원회(2020), 한양교지 113호 가면

선에서 바라보고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교재도 따로 없고, 학자의 지식에 의존하는 토론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윤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부담이 없는 수업이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일주일동안 다른 학우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는 설렘에 수업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우리끼리의 작은 토론을 열기도 했다. 또 이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과 논제를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토론 날을 기다렸다. 충분히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봤다고 자신하며 토론에 들어가면 학우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근거들과 반박을 제시하며 우리를 놀라게 하기 일쑤였다.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아기를 맞춤아기라고 한다. 보다 똑똑하고 튼튼한 아이를 맞춤할 수 있다면 아이의 미래는 더 행복해질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옳은 것일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등장했는데, 맞춤아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이의 외모와 능력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나를 닮아 예쁜 내 새끼’라는 측면이 사라지고 능력과 외모를 개발한 아기를 맞춰 세대가 거듭될수록 가족 간의 결속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좋은 근거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찬성 측의 한 학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박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를 닮지 않으면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화된다? 그렇다면 입양가족과 재혼가족은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의미인가’라는 반박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입양가족과 재혼가족의 형태가 많이 보편화된 요즘 기존의 가족 형태 외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고, 그들을 존중하고 다르게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은연중에 다르다고 느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순간이었고, 학우들이 톡톡 제시하는 신선한 의견들은 토론 초보인 우리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지금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될까?” 수능과 입시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들에게는 단연 눈에 띄는 논제였다. 이미 기면증 치료제인 모다피닐,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 ADHD의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정상인들이 복용했을 때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상당수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고, 네이처의 조사에 따르면 3만여 명의 변호사, 의사, 과학자 응답자들 중 30%는 이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수능시험을 앞둔 시기에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수업시간에 배웠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약들은 두통, 복통, 식욕부진, 신경과민, 탈모, 불안 등



의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 만약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난 인지향상 목적의 약물이 출시된다면 어떨까?

갓 입시를 마친 우리는 “똑똑해지는 약을 복용해도 된다” 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토론 당일 반대 측에서는 똑똑해지는 약으로 인해 모두가 상향평준화가 되어 오히려 경쟁이 과열될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약을 많이 구해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근거들을 내밀었다. 토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토론을 통해서 토론이 없었다면 편협한 사고에 그쳤을 우리의 시야가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확장되고,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4. 심화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 성장 스토리

[주제] “로봇이 어느 날 이성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있고, 판단능력이 있다. 이러한 로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생각하는 로봇 갑돌이가 자유 의지를 갖고 해방시켜달라고 하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로봇을 해방시켜준다면 인간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까?”이 토론을 준비하며 문득 TV에서 자주 방영해주던 영화 <아이, 로봇>이 생각났다. <아이, 로봇>은 로봇에게는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내용의 로봇 3원칙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법칙이 탑재되지 않은 로봇 썬니가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과 과연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인공지능 로봇이 진화해 사람을 해한다면? 등과 같은 다양한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본 적이 있기에 로봇이 감정을 갖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전 나는 이 논제를 가볍게 여겼다. ‘로봇은 로봇일 뿐! 감정을 가져도 인간이 될 수 없지!’가 내 의견이었다. 하지만 실제 토론에서 학우들이 제시한 근거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우들은 ‘과연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작은 논제를 하나 더 끌어들이며 주장을 펼쳤다. 이 논제에 나는 가히 충격을 받았다. 단 한 번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인간은 감정을 갖고 고등사고능력이 있으면 인간인 것인가? 반대 측에서는 ‘그렇다면 세탁기가 감정을 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파업하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이고 세탁기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반박으로 토론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 토론과 함께 배운 포스트 휴먼의 희망과 공포 수업을 들으며 ‘과연 인간의 정의는 어디까지

이고, 개조인간 사이보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연 의족이나 의수는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내 머리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던 와중 얼마 전 우연히 접하게 된 책에서 우생학과 포스트 휴먼에 대해 다룬 내용을 보게 되었다³⁾.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이던 줄리언 헉슬리는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 있지만, 인간 본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스스로를 초월한다”라고 말했다⁴⁾. 헉슬리의 시대에는 포스트휴먼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허무맹랑한 상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이 아닌 그 누구도 인간의 정의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공상 소설을 그저 공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작은 질문에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공상이 그려낼 새로운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찬영] 상상해본 적 없는 ‘포스트휴먼의 희망과 공포’수업은 특이하게도 설득력 있는 학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인간의 포스트휴먼화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카스(Kass)와 후쿠야마(Fukuyama)로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불평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존엄하며 인간 본성을 이루는 특징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포스트휴먼화 찬성 측은 보스트롬(Bostrom)과 뷰케넨(Buchanan)으로 반대 측은 근거를 반박하며 포스트휴먼은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라고 주장하며 포스트휴먼과 인간은 모두 이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업의 목표대로 기술로 인해 변화된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하다 보니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원숭이와 같은 조상에서 조금 더 똑똑하게 갈라져 나온 종으로 영장류와 유전자를 비교하면 99%가 일치한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경계는 어디일까?’, ‘동물과 인간은 평등한가?’라는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과 인간은 평등할 수 없는 것 같다. 동물과 인간의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기에 앞서 성인과 갓난아이가 평등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갓난아기는 이성적인 판단은커녕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대상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 대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평등이란 생명의 가치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에 갓난아기와 성인이 평등한 이유는 인간이기 때

3)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4) J. Huxley, 『Religion Without Revelation』, 1927

문이다. 인간은 무언가 특별하고 인간의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고귀하다는 생각이 다른 동물도덕적 능력도 없고 이성도 없는 갓난아이를 성인과 평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어떠한 생명도 인간의 생명만큼 고귀할 수는 없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에 인간과 평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왜, 어떤 점에서 다른 생명보다 귀하며 다른 동물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인간은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 인간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까? 인간은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왜 도덕적인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선과 도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라는 종과 각각의 개인이 만들어낸 기준일 뿐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도덕이나 윤리라는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 약육강식인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인간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이를 실천한다. 인간만이 자신만의 양심과 기준에 따라 눈앞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참으려 노력한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 속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존엄한 이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도덕적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존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주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찬영] 5G 상용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에서 마치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⁵⁾. 이렇게 불과 몇 년 전에는 그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가상현실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피부에 느껴지고 있으며, 현재 메타버스는 10대들을 선두로 널리 퍼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의 축제가 어려워지자 건국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로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5)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26822&cid=43667&categoryId=43667>

메타버스는 현실에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시간·공간적 제한,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 없는 등 굳이 현실에서 멀리 이동하거나 힘 들일 필요 없이 많은 행동이 가상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짐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많은 기업들도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계가 더 커질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가 일으킬 사회적 파장은 어떨까. 메타버스는 정보 격차, 기술 오남용, 메타버스 내 신종 범죄, 메타버스 안에서만 생활하려는 '메타페인'양상, 인공지능(AI) 활용 과정 중 데이터 편향성으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플랫폼 기업의 빅 브라더 이슈⁶⁾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나는 기술시대의 인간과 윤리 과목을 수강하기 전이었다면 '오~ 메타버스? 별게 다 나오네...'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수업과 토론에서 배운 공상이 그려낼 새로운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가상세계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비대면, 비접촉이 되면서 현실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 결합되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현실과 가상이 분리되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인간의 개념도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우리는 현대 기술들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옳고 그름의 문제, 인간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사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5. 강의 운영 방식에 대해 느낀 점과 제안

기술시대의 인간과 윤리 수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IC-PBL 수업으로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토론하는 것이다. 수업 시작 전에 찬성과 반대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나누고, 또 조를 찬성 1팀, 2팀, 3팀 반대 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누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견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적당한 인원수대로 조를 나누는 것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작은 조별로 근거를 2~3개씩 선정하고 전체 토론시간에 서로의 근거에 대해 주거나 받거나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토론에서 다른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샌델, 보스트롬, 후쿠야마, 카스 등 여러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주장한 것을 교수님께서 핵심을 정리하여 가르쳐주셨다. 수업은 전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는데, 수업 이외의 책이나 다른 인터넷 자료를 추가로 찾아보았지만 간결하고 핵심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는 역시 찾기 어려웠다. 세 번째는 수업 중 궁금했던 점을 교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다음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다음 토론시간 전까지 다음에 토론할 주제 거리를 던져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의 근거를 더 다양하게 세울 수 있었다. 수업이나 토론에서 생긴 궁금증을 교수님께 따로 질문드렸더니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더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다만 수업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우리는 배운 모든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많은 양과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시험시즌 즈음에 교수님께서 친절히 성적 평가 방법을 공지해주셨다. 성적의 주된 비중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과목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배운 모든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함께 시험 범위를 정하고자 하셨다. 다 같이 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원하는 부분으로 시험 범위와 양을 정하게 해주셨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편의를 봐주신 교수님 덕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둘째는 그동안에 생각해 보았던 주제를 더 발전시켜 생각을 담아내는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이고, 셋째는 한 학기 동안 했던 토론을 회고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그때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를 더하여 성적을 산출하시는 교수님의 방식 때문에 이 수업이 더 기억에 남았다.

시험의 목적은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인데, 이 과목의 특성상 학자들의 이론 학습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토론에 참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내가 토론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토론 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가.'는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토론에서 더 집중하고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키운 사람은 토론의 모든 요소를 조합해서 더 훌륭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그동안에 토론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중에서 주제 하나를 골라 토론을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입장을 더욱 심도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발전시킬 수 있었다.

6)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21), 한림원의 목소리 제 29호

6. 교양과 과학에 대한 생각 변화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특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왜 중요할까?⁷⁾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윤리의 목적이란 행복을 얻는 것.”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 교수님의 교과목 개요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예전의 인간보다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화된 인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완벽한 ‘슈퍼맨’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나은 삶, 더 튼튼하고, 더 똑똑하며, 더 행복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이 기술들은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에도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고 반드시 인간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시사하시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진화된 기술은 당연히 더 좋은 것이고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고 믿었다. 기술이 진보할 때 완전히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만 없다면 인류는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농업혁명 이후의 인간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산업혁명 이후의 인간이 더 충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과학자를 존경했고 과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에 있었는데 한 동안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도 유튜브 <책을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올리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만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멋진 신세계에서는 시사하고 있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불행해 보였다. 마치 오직 행복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로봇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항상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불행함을 겪지 않고 항상 행복하다면 그것을 완전한 행복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등장인물 존은 통제관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함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⁸⁾.” 이 불행해질 자유와 권리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항상 행복한 것이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 있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까? 이것도 아닐 수 있다. 윤리가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과학의 고도한 발전으로 우리가 행복할

7)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91673&cid=41908&categoryId=41941>

8) tvN insight [멋진 신세계] 설민석 감독 풀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BQ-u_w9-IWg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좋을까? 이렇게 끝없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수업!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수업! 우리는 이것이 참된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참 · 고 · 문 · 헌

- 학계의 신진기에 시간강사들⁴⁾ 철학 -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601100026>
- 한양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2020), 한양교지 113호 가면
-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 J. Huxley, 『Religion Without Revelation』, 1927
-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26822&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21), 한림원의 목소리 제 29호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91673&cid=41908&categoryId=41941>
- tvN insight [멋진 신세계] 설민석 감독 풀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BQ-u_w9-IWg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나의 길을 찾는
나의 인생 교양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전화 02)6919-3951~4

홈페이지 <http://www.konige.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